금주의 법구-〈대길상경〉
어리석은 이와 가까이 하지말라.
슬기로운 이와 가까이 지내라.
그리해 존경할 만한 사람을 섬겨라.

현대불교

행복 더하는
현대불교 ARS 후원
060-700-1080

1994년 10월 15일 창간

불기 2561년 단기 4350년(음력 9월 6일) · 주간

대표안내 (02)2004-8200 구독신청 (02)2004-8212 hyunbulnews.co m 제1169호 2017년 10월 25일 수요일



국화향기에 빠진 가을 불심 서울 조계사가 경내에서 제7회 국화향기 나눔전 '시월국화는 시월에 핀다더라'를 개최한 가운데 10월 19일 한 불자가 관음수인을 형상화한 국화조형물을 유심히 살펴보고 있다. 33관세음보살의 가피를 수인으로 표현한 관음수인, 33관음국화수, 동진보살상 등 다양한 국화조형물이 선보인 조계사 국화향기 나눔전은 함평군과의 연계를 통한 도농상생의 대표적인 모델로 자리잡고 있다. 축제는 11월 8일까지 열린다. 글 · 사진=노덕현 기자

불교계 'VR포교 시대' 열린다

가상현실(VR)과 증강현실(AR)을 기반으로 한 콘텐츠산업이 점차 확대되는 가운데, 불교계서도 VR기술을 활용한 불교문화콘텐츠가 늘어나고 있어 눈길을 끈다.

양양 낙산사(주지 도후)는 10월 19일 불자와 관광객들에게 사찰을 보다 생동감 있게 전하기 위해 전국 최초로 사찰 안내소에 VR체험존을 개설했다. 총 2대의 VR기기를 배치한 낙산사는 조계종 사업지주회사인 ㈜도반HC와 협력해 지난여름 VR영상을 촬영하고, 편집을 거쳐 공식적인 사찰안내 영상을 제작했다.

약 3분 길이의 영상은 낙산사의 전각과 문화재, 전경을 직접 옮겨 다니지 않고 한눈에 감상할 수 있다는 게 장점이다. 주요 관광위치별로 화면이 전환되며, 이를 설명하는 자막과 내레이션도 추가돼 별도의 소책자나 안내판 없이 낙산사 전반을 관광할 수 있다.

낙산사 VR영상을 체험한 이들의 평가는 매우 긍정적인 것으로 전해졌다. 젊은층은 VR기기에 대한 호기심을 보였으며, 부모의 경우 안내판을 찾아다니지 않아도 제공되는 교육적인 효과에 주목한다는 게 낙산사 측 설명이다. 특히 어르신들에게는 체력적인 한계 없이 사찰 구석구석을 돌아볼 수 있다는 점이 매력으로 작용했다.

낙산사 종무원은 "VR체험이 사찰에서는 처음 있는 일이어서 관광객들이 관심을 보인다. 줄을 서서 기다릴 정도는 아니지만 자연스레 영상에 집중하게 되는 게 장점"이라며 "젊은 사람들은 '친구를 데리고 놀러와야겠다'는 얘기를 할 정도로 신세대 포교에 뒤처진 불교에 활력을 불어넣을 것 같다"고 평가했다.

낙산사뿐만 아니라 한국불교문화사업단이 발행하는 계간지 〈템플스테이〉도 올해부터 모바일 매거진 앱 'tapzin'을 통해 일부 기사에 대한 VR영상을 함께 제공하고 있다. 오는 11월초에는 평창올림픽 성공 개최를 위해 강원도 5개 사찰(월정사 · 신흥사 · 낙산사 · 삼화사 · 백담사)을 주제로 한 템플스테이와 사찰음식 VR영상도 배포할 예정이다.

문화사업단 측은 "매거진 외에도 앞으로 사회트렌드에 맞춘 VR홍보영상을 확대해 불교문화를 알리는 데 나설 계획"이라고 밝혔다.

시 · 공간 제약 없는 新포교 가능

이처럼 VR기술이 불교계 콘텐츠로 자리 잡아가면서 시간과 공간에 제약받지 않고 대중이 불교문화를 향유할 수 있을 것이란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다. 기존 홍보영상 등이 제공자의 임의대로 보여주고 싶은 곳을 보여줬다면, VR영상은 참여자가 보고 싶은 곳을 볼 수 있어 새로운 포교콘텐츠의 가능성을 품고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10월 19일 양양 낙산사에 VR체험존이 문을 열었다. 낙산사 총무 무문 스님이 VR기기를 착용한 뒤 사찰안내 영상을 체험하고 있다.

낙산사, 사찰 최초 VR체험존
문화사업단도 VR영상 제공해
깊은 몰입감에 대중도 호평
새 포교콘텐츠 가능성 높아
기획력 · 대중 수요 등 과제

황철기 ㈜도반HC 전무는 "일반사회에서는 VR이 주로 오락산업에 많이 활용되고 있다. 불교계서 VR을 활용한 콘텐츠 제작에 힘을 쏟는다면 미디어분야를 개척하는 선봉장이 될 수도 있다"면서 "문화해설사가 없는 사찰에는 이를 대체하는 인프라가 되고, 이야기가 있는 사찰에는 각 콘셉트에 맞는 스토리텔링이 가능하다"고 견해를 피력했다.

VR촬영 및 편집을 총괄하는 박영 ㈜도반HC 실장은 "대부분의 일반인들은 사찰에서 역사와 문화재에 대한 이해보다는 사진촬영이나 풍경을 즐기곤 한다. 이 때문에 사찰안내 역할을 겸한 VR영상이 앞으로 주목받게 될 것"이라며 "특히 문화재 훼손 우려 등으로 일반인들의 출입이 제한되는 곳을 촬영해 제공한다면 교육적인 효과도 늘어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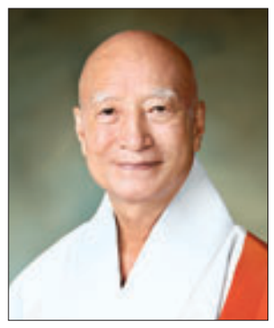
하지만 이 같은 장점에도 불구하고 VR기술이 불교계서 확대되기 위해서는 불교만이 간직한 이야기를 풀어내는 기획력과 대중의 수요가 뒷받침돼야 한다. 현재까지 촬영기법은 상당한 발전을 이뤄 더욱 입체적인 영상과 체험까지 가능하지만 수요 없는 제작이 자칫 낭비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따라서 앞으로는 VR기술에 접목 가능한 불교문화 기획자 양성을 통해 대중의 감동을 이끌어내는 것이 과제로 꼽힌다.

박 실장은 "기술력은 어느 정도 준비돼 있는 상황이다. 그렇다고 너무 앞서 가면 젊은이들은 괜찮을지 몰라도 기성세대가 받아들이긴 어려울 수 있다"며 "현재로써는 VR기술을 불교문화 안내자 역할에 충실하도록 활용하고, 대중 확산 정도에 따라 상위기술을 접목하는 게 가장 원활할 것으로 본다"고 조언했다.

윤호섭 기자 sonic027@hyunbul.com

조계종 원로회의, 설정 스님 총무원장 인준

10월 18일 회의서 만장일치로… 취임 법회 11월 1일



조계종 제35대 총무원장으로 당선된 前덕숭총림 수덕사 방장 설정 스님〈사진〉이 총무원장 인준 절차를 통과했다.

조계종 원로회의(의장 종하)는 10월 18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4층 대회의실서 제56차 회의를 비공개로 열고, 총무원장 당선인 설정 스님의 총무원장 인준을 만장일치로 결의했다. 회의에는 22명의 원로의원 중 19명이 참석했다.

이번 회의서는 핵심 쟁점사항으로 예상된 설정 스님 관련 의혹과 관련해 구체적인 질의가 오가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원로회의 사무처에 따르면 설정 스님은 의혹 소명을 요구하는 원로스님들에게 준비해온 원고를 낭독하며 자신에게 제기된 의혹을 해명했다. 이와 별도로 설정 스님 측은 세부적인 해명자료까지 마련했지만 원로스님들이 이를 요구하진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원로스님들이 전반적으로 인준여부 결정에 초점을 맞췄다는 게 사무처 측 설명이다.

이에 따라 설정 스님과 제35대 집행부는 오는 31일부터 본격적인 임기를 시작한다. 취임식은 정기중앙종회 개원일인 11월 1일 봉행된다.

한편 원로의장 종하 스님은 회의 시작 전 개회사에서 "다른 어느 때보다 총무원장 선거가 조용히 끝나지 못하고 시끄러웠다. 따라서 이기고 진 사람이 없는 상황에서 원만한 회향이 되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총무원장 자승 스님은 "제34대 집행부는 마무리에 임하고 있다. 완수한 성과는 종단 미래를 위한 씨앗이 될 것이고, 미흡한 내용 역시 시행착오가 없도록 잘 정리하고 있다"면서 "지난 8년 동안 부여받은 사명을 다할 수 있었던 것은 원로스님들의 고견과 격려 덕분이었다. 종단 발전과 새로운 미래를 위해 언제나 청안하시길 기원드린다"고 인사했다. 윤호섭 기자

동국대, 'QS대학평가'서 역대 최고 평가

국내 13위, 아시아 82위… 학계 평가 등서 두각

동국대가 '2017QS아시아대학평가'서 국내 순위 역대 최고를 달성했다.

동국대(총장 보광)는 "QS(Quacquarelli Symonds)와 조선일보가 실시한 '2017 QS아시아대학평가'에서 국내순위 역대최고(국내 13위)를 달성했다"고 10월 17일 밝혔다.

2016년 아시아 순위 88위를 기록했던 동국대는 올해 6계단 오르면서 82위를 기록했다. 또 국내 순위는 1계단 올라 13위를 기록했다.

올해는 아시아 426개 대학을 대상으로 평가가 진행됐다. 본교와 분교를 통합해 단일캠퍼스로 인정하는 QS의 평가방식에 따라, 동국대는 서울과 경주캠퍼스의 지표를 합산한 수치로 평가를 받았다.

이번 평가에서 동국대는 교원논문 연구역량에서 큰 두각을 보였다. 특히 '학계 평가', '교원당 논문 수', '논문당 피인용 수'에서 순위가 크게 상승했다. '학계 평가'는 국내 19위를 차지하며 전년보다 3계단 상승했으며, 아시아에서는 순위가 23계단이나 상승했다. '교원당 논문 수'는 지난해보다 14위 상승한 국내 36위를 차지했다.

동국대의 강점인 '국제화 영역'도 여전한 강세를 보였다. 외국인 학생 아시아 45위(국내 6위), 인바운드 교환학생 비율 아시아 35위(국내 9위), 아웃바운드 교환학생 비율 아시아 13위(국내 3위)로 전년과 마찬가지로 상위권을 유지했다. 졸업생 평판도 순위도 지속적으로 향상되고 있다. 특히, 졸업생 평판도는 지난해 99위를 차지하며 처음으로 100위권 진입에 성공했고 올해 6계단 상승한 93위를 차지하며 순위 안착에 성공했다는 평가다.

이의수 동국대 기획부총장은 "우리 대학의 중장기 발전계획인 'VISION 2020'에 따라 대학순위가 해마다 상승하고 있다"며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국내 대학 10위 이내 진입을 반드시 이룰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QS는 세계적으로 최고 권위를 인정받는 영국의 대학평가 기관으로, 2009년부터 조선일보와 공동으로 아시아 대학평가를 실시하고 있다. 신성민 기자



불교 대사회 역할 Good 종법 문제는 Bad

임기 만료 앞둔 조계종 34대 집행부 결산

2013년 출범해 4년간 조계종단을 이끌어온 제34대 집행부 임기가 오는 10월 30일 만료된다. 34대 집행부는 '자비와 화쟁으로 이웃과 함께 하겠습니다'라는 발원 아래 △사회와 이웃을 향한 나눔과 봉사의 불교 △지혜와 자비를 구현하는 사부대중 공동체 △불교중흥을 위한 지속적 종단 혁신을 종무기조로 세웠다. 이에 따라 종무시스템 개선과 대사회역할 강화 등 다양한 부문에서 괄목상대할 만큼 업적을 이뤘다. 반면 선학원 관계 악화와 서의현 재심파동 등은 아쉬움으로 남았다. 본지는 임기가 얼마 남지 않은 34대 집행부의 공과를 정리했다.

노동·인권분야 성과 뚜렷
불교 고유 토론문화 정립
문화재 다수 환지본처도
답 안 보이는 선학원 관계
서의현 재심파동도 오점
선거법 변화 실패 아쉬워

功-소외계층 지원·종무혁신

제34대 집행부의 가장 큰 성과 중 하나로 꼽히는 것은 바로 노동위원회의 확대 개편을 통한 대사회역할 강화다. 2016년 초 기존의 노동위원회를 사회노동위로 개편하고, 20명의 실천위원을 위촉하면서 불교의 사회적 역할을 더욱 넓혔다는 평가다. 세월호 참사를 비롯해 콜트콜텍 및 KTX여승무원 해고자 등 노동·인권 분야서 불교계 신뢰를 한껏 끌어올렸다. 아울러 차별금지법 제정을 강조하며 성소수자들을 위한 자리도 마련해 품 넓은 불교의 유연성을 드러내기도 했다.

국내·외에서 발생하는 각종 재난 및 재해 현장에 긴급구호단을 급파해 초기 대응에 나선 것도 주목받을 만하다. 국내로는 세월호 침몰에 따른 지원 활동과 2016년 울산 태풍 피해지역 긴급구호가 있다. 국외로는 필리핀 하이옌 태풍, 네팔 대지진, 미얀마 홍수 피해 구호활동 등이 있다. 이 같은 선제적 대응은 단발성이 아닌 장기적 지원으로 이어져 이재민 및 유가족들의 자립에도 기여했다.

종단 내적 성과로는 2013년 문을 연 '100인 대중공사'를 꼽을 수 있다. 시행 당시 '전시행정'이라는 비판도 받았지만 거듭된 사부대중공사는 불교 토론문화를 이끄는 모델이 됐다. 당시 논의결과들이 종무행정에 반영되기도 했으며, 현재 지역 교구본사에서는 대중공사를 바탕으로 지혜를 모아 현안을 해결해 나가는 방향으로 발전하고 있다.


조계종 제34대 집행부의 공과는 극명하게 나뉜다. 사진 왼쪽은 법인관리법으로 인해 갈등을 겪은 선학원 임원들의 탈종 관련 기자회견. 오른쪽은 세월호 참사 희생자의 극락왕생과 미수습자 귀환을 기원하는 자승 스님 및 교역직 스님들.

또한 경복궁·광화문·종로·인사동·조계사를 연계해 전통문화벨트로 조성하는 '총본산 성역화불사'는 서울 도심에 대표 역사문화 관광자원을 조성한다는 점에서 호평을 받았다. 아울러 10.27법난기념관 사업과 이어져 불교계 명예 회복에도 힘을 보탰다. 기념관 사업부지는 2016년까지 매입하는 것이 목표였으나 소유주들과의 협의매수가 필요해 2022년까지 사업기간을 연장했다.

성보문화재 보존과 환수를 위한 활동은 과거 어느 때보다 활발했다. 2014년 경찰청·문화재청과 '불교문화재 도난 예방 및 회수를 위한 협약'을 체결한 데 이어 수십 점의 도난 문화재를 환수했다. 또 국외로 반출된 불교문화재 역시 미국·독일·프랑스 등 다양한 국가에서 환수해 환지본처에 앞장섰다.

過-선학원 관계·서의현 재심파동

이처럼 종단 내·외적으로 많은 성과를 남긴 34대 집행부지만 부족했던 부분도 적진 않았다.

가장 먼저 법인관리법으로 인한 선학원과의 관계 악화가 대표적이다. 2014년 6월 조계종 중앙종회서 기존 법인법을 대체하는 법인관리법이 가결되면서 선학원에 대해 이사 자격은 조계종 승려로, 이사 4분의1 이상을 총무원장 복수 추천에 의한 이사회 선출로 규정했다.

정관에 있던 '조계종 종지 종통을 봉대한다'와 '임원은 조계종 승려로 한다'는 조항을 삭제한 선학원 측은 "재단법인의 고유한 권한을 무시한 처사"라고 비난했다. 이어 이사장 법진 스님을 비롯한 이사 11명과 감사 2명 등 13명의 임원이 조계종에 제적원을 제출했다. 하지만 조계종은 이 같은 행위를 징계사유로 법진 스님의 멸빈을 결의하면서 선학원과의 관계가 악화일로를 걷게 됐다. 현재도 이 같은 문제는 진행 중이며, 대화 채널조차 운용되지 못하는 상황까지 관계가 악화됐다.

또한 법인관리법으로 인해 현대 한국불교 대표 선지식인 송담 스님이 탈종한 일도 뼈아팠다. 송담 스님이 이사장인 재단법인 법보선원은 이사회서 종단 법인 등록을 거부하기로 결의하고, 송담 스님을 비롯한 문도들은 제적원을 제출했다. 총무원장 자승 스님까지 나서 송담 스님의 탈종을 막으려 했지만 실패했다.

1994년 종단개혁 당시 멸빈된 前총무원장 의현 스님이 재심호계원 판결을 통해 공권정지 3년 판결을 받은 일 역시 논란은 진행 중이다. 호계위원 사퇴 촉구를 비롯해 비판 성명이 쏟아졌고, 자승 스님은 "논란이 종식될 때까지 재심판결 후속 행정절차를 진행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이후 사부대중공사를 통해 '잘못된 판결'이라는 결론을 내렸으나 당시 호계원장 자광 스님은 "법에 위배되는 사안이 없다"고 반박한 뒤 사퇴했다.

총무원장 선출제도에 변화를 주지 못한 것도 아쉬움으로 남았다. 2014년 총무원은 준직선제에 가까운 선거법을 입법 예고했으나 종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 이후 염화미소법의 등장으로 총무원장 선출제도는 지속적으로 논박을 주고받았고, 중앙종회가 '원점 재검토'를 결의하며 차기 집행부에서 해결해야할 과제로 남았다.

윤호섭 기자

불교 가치 담은 인성교육법 배워보세요

한마음과학원 11월 9~11일 '한나무 인성교육' 연수

조계종 스님 대상 진행
오는 11월 2일까지 접수
마음등불 사업 참여 혜택

불교적 가치를 담은 인성교육법인 '한나무 인성교육' 프로그램을 배울 수 있는 자리가 마련된다.

(재)한마음선원 한마음과학원은 오는 11월 9일부터 11일까지 충남 공주 한국문화연수원에서 조계종 승려 연수 '한나무인성교육'을 진행한다.

'한나무 인성교육'은 (재)한마음선원 한마음과학원이 조계종 포교원으로부터 인증을 받은 청소년 인성교육프로그램인 '꽃을 피우는 나무'를 핵심 콘텐츠로 구성된 연수로, 2014년부터 조계종 교육원 인증을 받아 매년 1회, 2박3일 숙박형 승려 연수 과정으로 진행해오고 있다.

세부 프로그램으로는 △마음의 원리 △불교와 과학 △우리는 하나 △참나 찾기 △청소년 마음등불 △마음의 활용 △비정상회담 △그래 그래 괜찮아 등으로 구성된다.

'한나무 인성교육' 연수는 조계종 스님을 대상으로 하며, 오는 11월 2일까지 30명 선착순 마감한다.

참가 스님들은 연수 점수가 부여되며, '꽃을 피우는 나무' 프로그램을 근간으로 한 조계종 포교원의 '청소년마음등불 사업'에 참여할 수 있다.

이번 연수와 관련해 한마음과학원은 "한나무 인성교육, 승려연수과정은 불교 가치를 담은 인성교육콘텐츠로 구성되어 참여 구성원들 모두가 스스로의 자생력을 키울 수 있게 기획된 수준 높은 프로그램"이라며 "어린이·청소년 포교에 활용성이 높은 만큼 스님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고 밝혔다. (031)470-3196

신성민 기자 motp79@hyunbul.com



정찬주 작가의 **법정 스님이야기** ⑬ 좋은 친구

도반, 진리를 구하는 길동무

불가에서는 친구를 도반(道伴)이라고 한다. '진리를 구하는 길동무'라는 뜻이다. 그러지 못한 사이라면 차라리 혼자서 가라고 부처는 가르쳤다. 초기 경전인 〈숫타니파타〉에 있는 '무소의 뿔처럼 혼자서 가라'는 가르침이 바로 그것이다.

우리는 참으로 친구를 얻는 행복을 기린다/ 자기보다 뛰어나다거나/ 비슷한 친구와는 가까이 친해야 한다./ 그러나 이런 친구를 만나지 못할 때는/ 허물을 짓지 말고/ 무소의 뿔처럼 혼자서 가라.

외톨이가 되거나 고독해야 진리를 구할 수 있다는 가르침이 절대로 아니다. 서로가 숫돌이 되고, 칼날이 되어주는 관계가 좋은 친구라는 것이다. 법정 스님은 친구에 대해 다음과 같이 말씀하신 적이 있다.

"주변에 나쁜 친구를 가려내기 전에 나 자신이 과연 남에게 좋은 친구 역할을 하고 있는지 스스로 물어봐야 합니다. 허물을 밖에서 찾을 것이 아니라 나 스스로가 좋은 친구를 만날 수 있는 그런 바탕이 준비되어 있는가, 아닌가를 스스로 물어야 합니다. 좋은 친구란, 나를 속속들이 잘 알고, 나를 받아주고 세상에선 다 내치더라도 나를 이해해 주는 마음의 벗입니다. 좋은 친구란 서로의 부족하고 모자람을 채워주는 것입니다. 온전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다 부족합니다. 그것을 내 친구가 채워 줍니다. 좋은 친구는 먼 데 있는 게 아니라 바로 가까이 있습니다. 그 친구가 지닌 좋은 요소, 좋은 향기를 내가 제대로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법정 스님께서 친구로 여긴 분은 한둘에 불과했다. 천주교 원주교구의 장익 주교님 정도였다. 그밖에는 지인이라거나 친지라고 했다. 스님께서는 언행이 맑은 수행자들을 가끔 이야기해 주셨다.


일러스트·정윤경

이를테면 해제 때 선객들이 벗어놓고 간 양말이나 런닝셔츠를 빨아 다리 밑에 사는 넝마주이들에게 갖다 주고 오는 스님, 못 자국 하나 없는 빈 방에서 차를 마시는 스님, 드라이버를 지니고 다니면서 버스 안의 느슨해진 나사를 조여 주는 스님, 신도들에게 신세지기 싫다고 도시락을 싸와 공원에서 식사하는 스님, 산길을 넓힌다고 함부로 나무를 베지 않는 스님 등을 좋아하셨다. 한마디로 수행자다운 수행자를 칭찬하고 가까이 하셨다.

반면에 신도라도 육식을 즐기는 사람은 멀리 하셨다. 고기를 먹는 것은 죽어간 짐승의 원망까지 먹는 것과 같다고 말씀하셨다. 내가 남도산중으로 내려와 자연스럽게 채식주의자가 됐다고 말씀드렸더니 아주 좋은 변화라며 반기셨다. 그러시면서 스님께서는 젊은 날 존경했던 분이 흰 수염을 날리면서 불고기를 뜯는 모습을 본 뒤로는 저절로 멀어졌다고 술회하셨다. 그러고 보면 사람들한테도 알게 모르게 동류항의 질서가 있는 것 같다.

세계에서 침 제일 의과대학, 중국 1위 대학 –

세계 100위 대학 남경대 재경

2017년도 남경 의대(중의학) 학생 모집


혜인스님
한국총장

조기 유학생 모집
어학단기반 모집
● 초 6년 ~ 고3 재학
● 남경사범대학 부속실험학교
www.njsdfc.co.kr

한국 유학생 중국의사 개업 취업 의료행위 할 수 있게 됐다

한국인 중국 의대졸업생 중국정부 중국 의사자격 취득한 외국인 개업 의사활동 허용한다고 중국정부는 발표했다.

❶ 특차모집 (남경중의학대학)

학 과	학 제	모집인원	지원자격 및 제출서류
한의학과	5년	100명	• 최종학력증명 1부 • 최종성적증명 1부 • 입학신청서 1부 • 여권용사진 10부
석사과정	3년	50명	
박사과정	3년	10명	
재경대학	4년	80명	• 법학,경제,경영,무역,식품,금융 등

❷ 지원자격
▶ 고등학교 졸업 및 동등이상 학력자
▶ 주지스님 추천자

❸ 학교소개
▶ 세계침구 1위 명문 국립 한의과대학
▶ WTO국제 전통의학 협력센터
▶ 부속병원3,제약공장,교육병원12,제약연구소 등 완비
▶ 중국어 어학원 및 유학생전용 기숙사
▶ 군입대 연기 가능
▶ 현재 생활관리 담당교사 상주하여 학사 관리
▶ 학자금 대출 가능
▶ 서울시내 대학 편입 가능
▶ **중국내 개업 의사 가능**

❹ 전형방법 및 모집기간
▶ 전형방법 : 서류전형 및 면접
※모집기간 : 2017년 10월 31일까지 수시전형

❺ 지원서 교부 및 접수
▶ 교부 : 한국 사무처 – 홈페이지에서 다운받거나, 불교조계종 교학과에서 직접 교부 (지방은 우편으로 배부 가능) www.njutcm.co.kr
▶ 접수 : 불교조계종 한국분교(빠른 접수 가능) 서울시 강남구 도산대로 6길 8(논현동 2-13 2층)
▶ 제출서류
특별전형 : 최종학력증명 및 성적증명서 각 1통
▶ 기 타
어학연수 및 조기유학에 관한 문의는 불교조계종 국제교류처(02-511-1080)으로 문의 바람.

❻ 학비 (등록비 및 보험료 포함)
▶ 학사 과정 : 매년 25,800위안
▶ 석사 과정 : 매년 33,800위안
▶ 박사 과정 : 매년 41,800위안

■ 남경중의약대학(南京中醫藥大學)
南京市仙林大道138號(210023)
138 Xianlin Rd., Nanjing 210023, P.R.China
E-mail : overseas@njucm.edu.cn
Website : www.njucm.edu.cn

■ 한국상담처 : 불교조계종 총무원교육부
서울특별시 강남구 도산대로 6길 8
▶ 교학처 : (02)511-2026, 2027
Fax (02)511-2028
▶ 총장실 : (02)511-1080
http://www.njutcm.co.kr

문화재 부실 보수·보존 '도마 위'

문화재청 국정감사 내용 살펴보니

미황사 천불도 부실 복원 비판

목조 문화재 방재 문제 제기도

문화재청(청장 김종진)이 부실한 문화재 복원과 보존·관리 행정으로 여·야 의원들에게 날선 비판을 받았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는 10월 16일 국회에서 문화재청과 소속 산하기관에 대한 2017년도 국정감사를 진행했다. 이날 국정감사에서는 현재 부실함이 노출된 문화재 정책 전반에 대한 비판이 이어졌다.

문화재 방재 대책 전반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한 의원들이 많았다. 조훈현 자유한국당 의원은 "사찰 목조문화재 화재보험 미가입률이 66.3%에 달한다"면서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된 경주 불국사와 합천 해인사 장경판전도 화재보험에는 가입돼 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실제 지난 2005년, 건물 14동이 붕괴된 양양 낙산사 화재 당시 관세음보살을 모신 전각인 원통보전만 화재보험이 가입돼 있어 피해보상액은 5억 원에 그쳤다.

조 의원은 "사찰이 개별적으로 화재보험에 가입해야 하지만 보험료 부담 등으로 가입률이 저조하다"면서 "화재 발생 시 국가가 100% 복원 비용을 투입해야 하는 점을 감안하면 문화재청이 종단과 협의 하에 가입을 독려하고, 보험료 지원 등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목조문화재 화재 등을 예방하기 위해 설치한 CCTV의 화소가 떨어지는 것에 대한 문제 제기도 있었다.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현재 국가지정 목조문화재에 설치된 CCTV는 모두 3,871개이며, 이 중 41만 화소 이하는 1,116개(29%)에 달한다"고 밝혔다, 130만 이하는 305개(8%), 130만 초과는 2,450개(63%)이다.

저화소 CCTV 46개는 국보로 지정된 목조문화재 7곳에 설치돼 있으며, 249개는 보물 목조문화재 39건에 설치돼있는데, 이 중 보물 22건에 설치된 128개가 모두 저화소로 조사됐다. 나머지 보물 17건의 경우 저화소 121개와 고화소 66개를 섞어 설치했다. 사실상 목조 국보 보물 27건에 설치된 155개 CCTV가 안전 예방 기능을 상실한 저화소인 셈이다.

김 의원은 "가장 훌륭한 문화재 보존과 관리는 재난을 사전에 예방하는 것"이라며 "화질이 나빠 제 기능을 하지 못하는 CCTV를 하루빨리 교체해 소중한 문화재를 지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철규 자유한국당 의원 역시 목조문화재에 대한 CCTV 설치가 시급함을 주장했다. 이 의원은 "목조 문화재의 경우 화재가 나면 복원이 어렵다"면서 "전국 목조문화재 330개 중 65개소는 CCTV 설치가 안 돼 있다"고 지적했다.

부실한 사찰 문화재 복원도 도마 위에 올랐다. 손혜원 의원은 최근 언론 보도를 통해 문제가 된 미황사 천불도 훼손에 대해 "문화재청-자문위원-보존수리업자의 부패 삼각사슬의 단적인 예"라고 질타했다.

손 의원에 따르면, 미황사 천불도 수리는 지난 2015년부터 영산문화재연구소가 진행했다. 하지만 2006년부터 해당 업체 대표의 부인이 수장인 사찰문화재보존연구소가 모사를 진행하고 있음이 확인됐다.

이후 보존수리 업체가 제출한 설계도에는 현재의 문화재를 떼어내고 모사본을 붙이겠다는 내용이 담겨있다. 이 내용은 그대로 문화재청 수리기술과의 승인을 받아 진행됐다.

이러한 결정이 가능했던 것은 바로 지류, 불화 등 관련 분야 전문가가 전무했던 자문위원회의 심의 때문이었다는 게 손 의원의 지적이다. 자문위원회는 업체의 의견을 그대로 반영한 심의결과를 내놓았고 문화재청 역시 자문위원회의 의견을 별도 검토 없이 그대로 수용했다.

손 의원은 "문화재위원회 의견서에 따르면 벽면에서 떼어내는 행위 자체가 문제이며 재부착을 위해 제작된 모사도 역시 그 격이 떨어진다고 명시돼 있다"며 "미황사 천불도 문제는 일련의 보존수리 과정들이 모두 잘 짜인 시나리오처럼 사전에 결정된 상태에서 문화재청, 업체, 문화재청 출신 자문위원들의 결탁으로 이뤄진 일"이라고 비판했다.

신성민 기자 motp79@hyunbul.com

청년문제 책임질 전문가들 뭉치다

백년대계본부 미래세대위원 위촉



조계종 총무원장 자승 스님(가운데)과 위촉된 미래세대위원들.

주거·취업·학업 등 청년세대가 겪는 문제들을 해소하고, 불교의 가르침으로 심성을 맑히기 위한 불교전문가들이 한 데 뭉쳤다.

조계종(총무원장 자승)은 10월 19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4층 접견실서 총 15명의 스님과 재가불자들을 백년대계본부 산하 미래세대위원회 위원으로 위촉했다. 위원 임기는 2년이며, 향후 일반 청년단체 활동가들을 추가 위촉해 청년문제 해결에 앞장설 예정이다.

이날 위촉된 위원은 △심산 스님(파라미타청소년연합회장) △일감 스님(중앙종회의원) △광전 스님(중앙종회의원) △묘장 스님(조계종 사회복지재단 상임이사) △법선 스님(광주 문빈정사 주지) △가섭 스님(조계종 포교부장) △원빈 스님(행복문화연구소장) △수안 스님(매화종합사회복지관장) △유지원(전북불교네트워크 공동대표) △최유형(안동청소년문화센터 관장) △김성권(대한불교청년회장) △이경수(한국대학생불교연합회장) △정웅기(생명평화대학 운영위원장) △이채은(한국대학생불교연합회 간사) △한정민(조계사 청년회장) 등 15명이다. 위원장은 호선을 통해 심산 스님이 맡게 됐다.

윤호섭 기자

BBS, 미디어센터 건립으로 '제2 창사' 선언

상암동에 580평 부지 확보

BBS불교방송(사장 선상신)이 불교의 현대화·세계화 및 불교 미디어의 발전을 선도할 BBS글로벌미디어센터 건립 불사에 나선다.

BBS불교방송은 "최근 BBS글로벌미디어센터(상암 사옥) 건립 부지를 확보했다. 해당 부지는 서울 마포구 상암동에 위치하며, 580여 평(1917.2㎡) 규모"라고 10월 20일 기자간담회서 밝혔다. 부지는 상암동 인근 종교시설 1필지로, 현재 등기 신청을 마쳤다.

BBS글로벌미디어센터는 TV 및 라디오 스튜디오를 비롯해 불자들의 신행생활이 가능한 법당과 명상센터 등을 갖춤으로써 방송·문화·종교가 어우러진 복합 미디어 공간으로 꾸려진다. 향후 건물 설계 공모 및 모연 불사 등을 거쳐 구체적인 활용 계획을 수립할 예정이다.

이번 부지 확보는 BBS불교방송 후원회 '만공회'의 원력으로 가능했다고 전해진다. 만공회원 4만7,000여 명 중 6,680여 불자가 BBS글로벌미디어센터 건립 불사에 동참한 것. 선 사장은 "불자들이 함께하는 공간인 만큼 불사 과정에도 전 불자가 동참할 수 있도록 건물 설계 공모 및 다양한 모금 불사 등을 추진할 것"이라면서 "한국불교의 한 획을 그을 역사적인 불사에 많은 분들의 동참 바란다"고 당부했다. BBS불교방송은 향후 모연 불사와 관련해 구체적인 프로그램을 계획할 예정이다.

BBS글로벌미디어센터는 선상신 사장이 2년 전 취임 공약으로 내세웠다. 이번 건립은 해당 공약의 실천으로, 선 사장은 BBS글로벌미디어센터를 불자들을 위한 복합 미디어 공간으로 구성하겠다는 방침이다.

박아름 기자

해인사 원당암 불상서 고려 경전 발견

조계종 〈대방광불화엄경〉 등 28책 납입 확인

해인사 원당암 보광전 주불인 아미타삼존불상에서 고려시대 경전들이 확인됐다.

조계종 문화부(부장 정현)는 "해인사 원당암으로부터 보광전 주불인 목조아미타불상의 정밀조사를 의뢰받아 진행한 결과 복장물로 15세기 후령통과 고려시대 경전 납입됐음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조계종 문화부와 원당암에 따르면 지난 8월 개금불사를 위해 복장을 확인하던 중 중수발원문과 은제 후령통, 고려후기 고려대장경에서 인출한 진본, 정원본의 〈대방광불화엄경〉 28책과 1375년에 간행한 〈성불수구대다라니〉가 복장 전적으로 발견됐다.

중수발원문에는 1694년 해인사 승려 숭열, 종안 등이 모연해 불상을 중수했으며, 조각승으로 법능, 법종, 경천, 청담, 지일 등이 참여했다는 내용이 담겼다.

또한 복장에서 나온 은제 후령통은 1490년 학조 스님이 왕실 후원을 받아 해인사 법보전과 대광명전에 모셨던 비로자나불상에 납입한 것과 유사한 형식으로 "해당 불상 역시 학조 스님의 주도하에 조성될 가능성이 높다"는 게 조계종 문화부의 설명이다.

복장물에서 가장 눈길을 끄는 것은 고려시대 경전들이다. 발견된 〈대방광불화엄경〉은 고려대장경을 비롯해 고려시대 사찰간행 사간판(寺刊板)에 대한 불교 판본학적 연구에 중요한 자료로 평가된다.

또한 수진본 〈성불수구대다라니〉는 국내에 전존본이 확인되지 않은 유일본임이 확인됐다. 조계종 문화부는 "권수의 삼신불을 비롯한 마리지천 도상의 변상도를 비롯해 간행관련 기록이 분명해 향후 불교회화사 및 불교사상사, 서지학적 연구에 중요한 자료적 가치를 지니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협시 보살인 관음보살입상과 지장보살입상에 대해서 X-선 촬영 검사도 진행됐다. 그 안에서도 아미타불좌상과 동일한 후령통이 납입돼 있었다. 또한 낱장의 경전이나 다라니로 추정되는 종이 뭉치, 경전 사이로 화려한 보상당초의 표지화, 6행 17자로 구성된 절첩본과 17자로 구성된 족자형의 사경이 확인됐다.



해인사 원당암 목조아미타불좌상.



복장물로 확인된 고려대장경 인출 〈대방광불화엄경〉 진본.

특히 족자형 사경의 경우 사경 축에 금속장식이 확인되는데 이는 현재 일본 금산사에 소장된 고려 사경인 〈불설대길상다라니경〉(1324년 추정)의 사례가 유일한 것으로 알려져 있어서 주목된다는 게 조사팀의 설명이다.

한편, 해인사 원당암은 관음보살입상과 지장보살입상은 향후 복장을 열지 않고 법당에 봉안키로 했다.

해인사 원당암은 "목조아미타불좌상이 1983년에 개금불사를 위해 복장이 일부 개봉된 것과 다르게 관음보살입상과 지장보살입상은 지금까지 한 차례도 복장을 개봉한 적이 없다"면서 "광학적 조사를 통해 보살상 내부의 복장물을 확인하는 것에 그 의미를 두고 향후 보존 관리를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신성민 기자**

진각종 내년 예산 174억7000만원

유지재단 이사 법정·덕운 정사

진각종 내년 예산이 174억7000여만 원으로 확정됐다.

진각종 종의회(의장 덕일 정사)는 10월 19일 서울 종인원내 진각문화전승원 4층 종의회 회의실에서 제407회 정기종의회 및 유지재단이사회 합동회의를 갖고 2018년도 통리원, 교육원 등 중앙종무기관 예산안을 심의해 통리원 144억 1000만원, 교육원 7억7000만원 등 총 174억7000여만 원으로 확정, 의결했다.

내년 예산은 행사비와 문화사업비, 인건비 등이 소폭 증가했으며 각종 운영비와 관리비 등은 감소했다.

한편 종의회는 12월 6일자로 진각종 유지재단 이사 임기가 만료되는 법정 정사(김덕천·경전심인당 주교)를 유임하고 경당 정사(정재윤·진불심인당 주교) 후임에는 덕운 정사(김성록·유가심인당 주교)를 선출했다. 이어 서울 교구 남부심인당과 경주교구 선혜심인당을 개축키로 의결했다.

김주일 기자 kimji4217@hyunbul.com

대한불교조계종 제35대 총무원장 설정스님

당선을 축하드립니다

대한불교조계종 삼각산 흥천사

사부대중일동

"흥천사에 오시면 당신의 꿈이 이루어 집니다"

서울시 성북구 흥천사길 29(돈암동)
TEL 02)929-6611



일 주 문



무산지역아동센터 10주년 음악회

금곡 무산복지재단 이사장 스님은 10월 28일 무산지역아동센터 야외무대서 무산지역아동센터 10주년 작은 음악회를 개최한다.



창건 10주년 산사음악회

무심 칠곡 무심사 주지 스님은 10월 15일 창건 10주년 제6회 산사음악회를 개최했다.

남한산성 축성한 의승군 수륙대재

장경사, 15일 6회 의승군 문화제 개최



세계문화유산 남한산성을 쌓고 지켰던 의승군의 넋을 기리는 문화축제가 열렸다.

경기도 광주 장경사(주지 진광)는 10월15일 제6회 남한산성의승군문화제를 열고 의승군 추모 수륙대재와 수륙무차대법회, 산사음악회를 개최했다.

조계종 어산어장 인묵 스님의 인례와 집전으로 봉행된 수륙대재는 남한산성을 축성하고 방어한 의승군을 추모하는 수륙재의 전통을 이어 의미를 더했다. 조선 선종수사찰 봉은사에서 열렸으나 일제시대 중단된 이후 지난 2012년 의승군이 머물던 장경사가 이를 복원해 매년 열고 있다. 이날 제24교구본사 선운사 주지 경우 스님, 조억동 광주시장 등이 참석해 장경사 수륙도량에 펼쳐진 의승군문화제를 축하했다.

신성민 기자

경주 분황사, 제21회 원효예술제



경주 분황사(주지 성효)와 원효학연구원 주최 '제21회 원효예술제'가 10월 15일 봉행됐다. 이날 행사에는 불국사 회주 성타 스님, 불국사 관장 종상 스님, 불국사 주지 종우 스님, 분황사 주지 성효 스님, 최양식 경주시장 등 800여명의 사부대중이 참석했다.

회주 성타 스님은 "화쟁 사상을 본받아 대승 · 대중불교 진흥에 앞장서자"고 설했다. **손문철 대구지사장**

"미래 20년 준비하는 포교사단으로"

Interview

윤기중 신임 포교사단장



19일 제10대 사단장 선출

포교행정 체계화 공약

모바일 결제 · 매뉴얼화 도입

"자부심 고양 · 역할 확대"

"10대 단장 임기가 끝나는 2년 후는 포교사단이 창단 20주년을 맞는 해입니다. 20주년을 앞두고 포교사단은 앞으로 미래 20년을 준비하는 포교사단으로 거듭나야 합니다. 종단 내 지위와 역할을 확대하고, 포교역량 강화에 박차를 가하겠습니다."

조계종 포교일선을 책임지는 포교사단 제10대 단장으로 윤기중 제9대 단장이 선출됐다. 포교사단은 10월 19일 서울 장충동 우리함께빌딩 5층 포교사단 교육관에서 단독입후보한 윤기중 단장을 제10대 단장으로 선출했다.

윤기중 9대 단장은 2006년 포교사 품수 후 군포교 팀장과 서울지역단 부단장, 수석부단장 등을 통해 포교사단 발전에 힘썼다. 9대 단장 재임기간 포교사 감소를 극복하기 위한 전문화 교육을 위해 교재를 편찬하고 시스템을 개선했다. 또 전문포교사 활성화로 역량 강화에 앞장서 왔다.

윤 단장은 "포교사의 종단 내 위상과 인적 역량을 강화해 포교 변화에 즉각 대응할 수 있도록 하겠다"며 "특히 포교사단 운영시스템을 대폭 개선해 나가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윤 단장은 구체적으로 "지역단과 본단 사무국의 인력이 수시로 바뀌는 한계를 매뉴얼과 행정 전산화로 극복하겠다"며 "포교행정 현대화를 위해 문서작성을 전자화 하고, 모바일 결제 프로그램도 개발해 상주하는 직원이 없는 사무국의 경우 포교행정 업무에 누수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포교사단은 9대 집행부에서 진행하는 전문화 교육에도 박차를 가할 것임을 공개했다.

윤 단장은 "발간한 포교길라잡이를 적극 보급하고 장기적으로는 선발제도도 개선해 나갈 계획"이라며 "활동을 통해 포교사들이 일선 현장에서 보람을 느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또 수행을 통한 포교혁신도 강조했다. 1인 1수행덕목의 생활화와 사회복지분야 포교 강화가 눈길을 끈다.

윤 단장은 "포교사는 재가자와 출가자의 중간자 입장에 있다. 하지만 포교사 품수 이후 체계화된 수행 절차는 없는 실정"이라며 "지역별 포살법회를 확립하고, 신행혁신운동을 포교사단 내에서 먼저 펼쳐, 교육과 수행, 전법이 함께 가는 신행문화 개선에 동참하겠다"고 말했다.

끝으로 윤 단장은 "공심으로 사사로움 없이 포교사단 발전과 5000여 포교사들의 자부심 넘치는 활동 기반을 조성하는데 최선을 다 할 것"이라며 "사회와 함께 하지 않는 포교는 실효성에서 한계가 있기에 사회복지분야 포교활동을 확대해 나가는데도 주력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선거에서는 김임중 포교사와 하용이 포교사도 2년 임기의 감사로 선출됐다.

노덕현 기자 noduc@hyunbul.com

총지종 관성사 '헌공불사 및 득락전 가지불사'

10월 17일, 전법 수행공간으로 새롭게 발돋움



10월 17일 서울 관성사서 열린 헌공불사 및 득락전 가지불사 법회에는 400여 대중이 참석했다.

총지종 서울 관성사는 10월 17일 '헌공불사 및 득락전 가지불사' 법회를 봉행했다.

1972년 총지종 창종과 동시에 불사한 관성사는 지난해 8월부터 새롭게 중창불사에 들어가 대지 700㎡(212평), 건물 2155㎡(652평)로 지하 2층, 지상 5층으로 건립됐다. 1~3층은 교육시설과 근린생활공간, 4층은 공양실과 사택, 5층은 도량의 중심인 서원당 등으로 구성돼 있다.

이날 법회에서 총지종 통리원장 겸 관성사 주교 인선 정사는 인사말을 통해 "법신 비로자나부처님과 관세음보살님이 상주하시는 전법 수행의 공간으로 거듭 태어난 것은 총지종으로서 큰 의미를 갖고 있다"며 "한국밀교 중흥과 종조 원정 대성사의 가르침을 받들어 용맹정진하는 수행공간을 만들겠다"고 피력했다.

이어 종령 효강 정사도 법어를 통해 "오늘 이 헌공불사 현장에 와서 특히 기억에 남는 것은 우리 종도님이 창건 하시면서 재단법인을 설립했습니다. 그래서 일체 모든 개인 재산을 전부 재단법인에 넣었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종단 관리 등을 철두철미하게 했습니다. 그런 노력들이 쌓여서 오늘 이 성대한 불사까지 이어졌기 때문에 큰 의미가 의미 있다고 생각한다"며 "우주의 모든 중생이 다 행복하기를 빌면, 그것이 곧 내 행복을 비는 것과 마찬가지이다. 그것이 또한 불법의 진리인 것이다. 그래서 오늘 이 관성사가 나라와 사회, 각 개인의 안녕과 행복을 발원하는 성소가 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편 이날 법회에는 총지종 종령 효강 정사를 비롯해 통리원장 인선 정사 등 400여 사부대중이 동참했다.

김주일 기자 kimji4217@hyunbul.com

"불교성지 순례하며 전법 매진"

중앙신도회, 10월 13~17일 라오스서 직무연수



조계종 중앙신도회(회장 이기흥)는 10월 13일부터 17일까지 3박 5일간 라오스에서 2017 중앙신도회 실무자 직무연수를 개최했다.

올해는 포교사단을 비롯해 교구신도회, 신도단체 실무자 약 60여 명이 참가했으며, 불교문화탐방과 함께 조계종 사회복지재단에서 운영하는 싸일론 유치원을 방문했다.

노덕현 기자

'동국사랑 1.1.1.' 홍보대사 위촉

동국대, 이경규 · 손나은 등 5명 기부약정식



동국대 서울 캠퍼스에 동문 연예인들이 총출동했다.

동국대(총장 보광)는 10월 19일 오후 2시 동국대 서울캠퍼스 본관 로터스홀에서 '동국사랑 1.1.1캠페인 1천구좌 돌파 기념, 연예인 동문 기부약정식 및 홍보대사 위촉식'을 개최했다. 이날 행사에는 동국대 연극영화과 동문회장 개그맨 이경규 씨(79학번)을 비롯해 배우 김인권(96학번) · 채정안(97학번), 아이돌 그룹 에이핑크 멤버 손나은(14학번) 씨 등 동문 4명이 참석했다. 신성민 기자

청소년 탈선 막는 템플스테이

불국사-경주경찰서, 업무협약 체결



불국사(주지 종우)와 경주경찰서(서장 양우철)는 10월 17일 불국사 종무실서 청소년의 올바른 성장과 경찰서 소속직원의 정신건강 증진을 위한 상호협력차원의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에 따라 불국사와 경주경찰서는 학교폭력 관련 비행청소년 등 선도를 위해 템플스테이를 운용한다. **윤호섭 기자**

봉은사 미륵대불 용화정토 원불 봉안 불사 모연

천년고찰 봉은사는 새로운 천년을 준비하며 불자님들의 원력을 모아 20여 년간 못다 이룬 미륵대불 불사를 완성하고자 합니다.
미륵부처님이 계신 용화정토에 태어나기 위해서는 십선행을 행하며 수많은 공덕을 쌓아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이번 '미륵대불 용화정토 원불 봉안 불사'를 통해 사부대중 모두가 1천일기도로 치성드리며 미륵불 3,999위를 봉안하는 대작불사를 실현하고 미륵부처님의 원력으로 삼세의 업장소멸과 나와 내가족이 서원하는 모든 소원, 건강, 행복을 함께 지킬 수 있도록 발원코자 합니다.
봉은사에서 용화정토를 여는 뜻깊은 자리에 많은 불자님들이 두루 동참하시어 부처님의 가피가 함께하시길 바랍니다.



동참방법
- 동참금은 계좌 입금도 가능하오며, 송금 후 반드시 접수처에 전화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불사에 동참하신 분들은 원불 봉안 위치 확인을 위해 접수처에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 계좌번호 : 신한은행 140-005-663446 대한불교조계종 봉은사
- 접수문의 : 봉은사 접수처 02)3218-4801~6

기도동참

미륵대불 원불 불사 원만성취 천일기도
- 일 정 : 입재 2017년 10월 15일(일) ~ 회향 2020년 7월 10일(금) / 1,000일간
  - 1차기도 일정 : 입재 2017년 10월 15일(일) ~ 회향 2018년 1월 22일(금)
  ※ 기도일정은 100일간 나눠서 기도입재
- 시 간 : 새벽예불(4:30), 사시불공(10:00), 저녁예불(18:00)
- 장 소 : 미륵전
- 동참금 : 10만원(가족축원 / 100일기도 기준)

불사모연

원불명	원불수	불사금	비고
미륵불	3,999위	100만원	1인 1위
미륵가족불	22위	1,000만원	1가족(8인) 1위(복장성물)
보살입상	23위	5,000만원	1인(복장성물)
금강역사	2위	5,000만원	1인



봉은사 BONG EUN SA



대한불교조계종 제35대 총무원장 설정스님

당선을 축하드립니다

法寶宗刹 海印寺

방 장 碧山 源覺 大宗師
주 지 香寂

사부대중일동

대한불교조계종 제12교구본사 해인사

경남 합천군 가야면 해인사길 122
TEL 055)934-3000 FAX 934-3010
www.haeinsa.or.kr

대한불교조계종 제35대 총무원장 설정스님

당선을 축하드립니다

대한불교조계종 제14교구 본사
禪刹大本山 金井叢林 梵魚寺



방 장 지 유 큰스님
주 지 경 선
총무국장 보 운
범어사 신도회 합장

매월초하루 큰스님 모시는 화엄대법회
– 화엄천일기도 –

www.beomeo.kr

부산광역시 금정구 범어사로 250(청룡동) | 종무소 ☎ (051)508-3122

대한불교조계종 제35대 총무원장 설정스님

당선을 축하드립니다

유가종찰 미륵성지

대한불교조계종 제17교구 본사

모악산 금산사



사부대중 일동

대한불교조계종 제17교구 본사
모악산 금산사

전북 김제시 금산면 모악 15길 1
전화 063)548-4441~2 | 팩스 063)548-1390
홈페이지 : www.geumsansa.org
이 메 일 : geumsansa@hanmail.net

“청년세대 호스피스 및 활성화 나서자”

불교호스피스협회 10월 14일 세미나 개최

전현수 원장 “불교생사관 청년 홍보”
능행 스님 “호스피스 활동 참여” 당부
지홍 스님 “호스피스활동 신행혁신”



10월 14일 열린 제8회 호스피스 세미나에서는 청년 호스피스 활성화와 인식개선 입장이 모아졌다.

세계호스피스 · 완화의료의 날을 맞아 불교호스피스의 과제를 짚고 인식 확산을 위한 원력을 모으는 자리가 마련됐다.

불교호스피스협회(회장 능행)는 10월 14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전통예술문화공연장에서 ‘죽음, 청춘이 묻다’를 주제로 제8회 호스피스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날 세미나에서 기조강연을 진행한 전현수 정신건강의학과의원장은 “괴로우면 죽고싶다는 생각이 들 수 있다. 이러한 생각이 ‘안되면 죽으면 되지’란 마음가짐으로 이어져 오히려 상황을 악화시킨다”며 “모든 것은 인과의 법칙을 따르며 원인에 변화를 주어야 결과가 달라진다. 죽음이 모든 상황의 끝은 아니다”고 지적했다.

전 의원장은 “맛지마니까야에는 다음 생을 결정하는 세가지 요인 중 금생과 과거생에 한 일과 함께 죽을 때의 상태도 들어간다. 즉, 생을 완전히 끝내는 것이 아라한이 되어야 함을 의미한다”며 “이러한 불교적 생사관을 청년들에게 보다 많이 알림으로서 자살예방, 그리고 호스피스 활동가들의 헌신이 더없이 고귀하다. 호스피스 활성화를 이끌 수 있다”고 말했다.

이날 세미나에서는 청년 세대에 대한 호스피스 인식 개선과 봉사자 확대에 대한 다양한 도움을 요청하는 목소리가 이어졌다.

협회장 능행 스님은 “힘들고 고단하며 때때로 엄청난 소진이 요구되는 어려운 길이지만 죽어가는 이들을 돌보는 이 길 위에 서로 힘이 되고 있다”며 “이러한 불교적 생사관을 청년들에게 보다 많은 이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힘을 모아달라”고 당부했다.

포교원장 지홍 스님도 “젊은 세대의 죽음에 대한 생각을 접하고 생명의 소중함을 성찰하는 시간이 될 것”이라며 “호스피스 관련 단체와 기관, 지역사회와 긴밀히 소통하며, 호스피스 활동가를 성장시키는 작업을 함께 해나가자”고 말했다. 지홍 스님은 이어 “포교원에서 진행되는 신행혁신 운동과 함께 호스피스 협회의 활동은 신행혁신을 보다 풍부하게 하는 활동”이라며 “호스피스의 순수한 가치를 실현해 불교의 위상과 역할을 높이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세미나에서는 최정통 성균관대 영어영문과 박사과정의 ‘죽음! Learning? or Acquisition?’, 강숙영 사회복지사의 ‘죽음은 끝이 아닌 또 다른 시작’, 정승민 씨의 ‘나의 삶과 죽음, 그리고 연기’, 임주은 마하보디명상심리대학원 석사과정의 ‘사별경험을 통해 배워가는 삶’ 발표가 이어졌다. 노덕현 기자

“어린이 청소년 포교 접근방식 변화해야”



‘반야톡’ 펴낸 권진영 법사



“청소년들이 쉽게 접할 수 있는 ‘카카오톡’을 통한 대화를 책에 실었습니다. 아무리 좋은 이야기라도 아이들이 접하기 어렵다면 무슨 소용이 있을까요. 청소년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매체 개발이 시급합니다.”

부처님께서는 각각의 사람이 가지고 있는 상태나 근기근기에 따른 가르침을 내렸다. 이른바 대기설법(對機說法)이다. 아직 불교를 모르거나, 혹은 관심이 없는 청소년들에게 불교의 가르침을 어떻게 전할 수 있을까.

최근 권진영 동대부여중 교법사가 펴낸 청소년을 위한 〈반야심경〉 해설서 ‘반야톡’이 주목을 받는 이유는 이 때문이다.

‘반야톡’은 조계종 포교원의 청소년 포교자료 지원사업으로 발간됐다. 카카오톡 대화창 이미지를 차용해 반야심경 내 한자용어 등 청소년들이 어렵거나 관심이 떨어질 수 있는 부분을 최대한 배제하고, 법사가 구어체로 직접 설명하는 방식을 띄고 있다.

특히 소은, 소정, 지찬, 양석, 영진, 상현, 혜린, 권찬, 민아, 나영, 현태, 진수, 정호, 용해, 도훈 등 실제 중학생들이 책 속의 주인공으로 권 교법사에서 학업의 스트레스, 연예 상담, 가족과의 갈등, 진로 문제 등 고민을 털어놓는다. 권 교법사는 이를 반야심경의 내용을 활용해 재치있게 답변해 간다.

10월 18일 기자간담회에서 만난 권 교법사는 청소년들에게 맞는 매체개발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권 교법사는 “요즘 아이들은 성장이 빠르고, 인터넷 등 지식 습득의 경로도 많다. 의외로 중학생 시절부터 어른들이 하는 고민을 하고 있다”며 “이에 반해 불교계는 적절한 포교 대응을 하고 있지 못하다. 보다 청소년들이 쉽게 접할 수 있는 매체 개발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권 법사는 “중 · 고생과 카카오톡으로 대화를 하는 소스 자체가 청소년들의 관심을 끌 것”이라며 “웹 게재를 비롯해 삽화 소스 제공 등 포교에 도움이 된다면 열린 자세로 응하겠다”고 말했다.

노덕현 기자 noduc@hyunbul.com

“한반도 희망과 평화 밝혀요”

108산사순례기도회, 108평화걷기대회 개최



108산사순례기도회(회주 선묵 혜자)는 10월 14일 서울 조계사와 광화문 일원에서 한반도 평화를 기원하는 ‘108평화 걷기대회’를 봉행했다.〈사진〉

이날 걷기대회에는 108산사순례기도회 회주 선묵 혜자 스님과 108산사순례기도회 회원 1000여 명이 참여했다. 이들은 평화의 깃발을 앞세우고 각각 평화의 초를 들고 조계사와 종각, 광화문, 인사동 일원을 행진했다.

선묵 혜자 스님은 “한반도와 대한민국, 우리 가정과 마음속에 ‘평화와 희망’이란 화두를 밝혀달라. 대중이 모두 마음을 모으면 남북이 서로 소통하고 공존하는 그 날이 올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걷기대회에서는 108산사순례기도회가 제작한 평화의초로 한반도 조형물을 장엄하는 행사도 진행됐다.

걷기대회에 참여한 참가자들은 발원문을 통해 “한국불교의 중심에 평화의 불을 밝히고 올리는 이 기도와 행진이 한반도 평화의 밑거름이 되게 하시고 남북은 전쟁과 분단으로 인한 고통은 사람지고 평화가 항상 하게 하옵소서”라고 서원했다.

노덕현 기자

장맛 빠져든 아이들에 어르신 ‘웃음꽃’

종로노인종합복지관 제2회 종로 장(醬)축제 개최


지역 어린이집 아이들과 미니 장독대를 꾸미고 있는 어르신 모습.

종로노인종합복지관에는 조금 독특한 장금이가 있다. 드라마 ‘대장금’ 속 장금이도, 조선시대 의녀도 아닌 장 담그기와 장독대 관리 활동을 하는 이곳의 ‘장 마스터’들이다. 지난 10월 18일 장금이 어르신들을 필두로 복지관 어르신들이 장독대를 들고 나왔다. 그간 만

지역주민 참여에 ‘성황’
남녀노소 함께 어우러져

든 장을 판매하고 전통장 관련 다양한 행사를 진행하기 위함이다. 연두색 유니폼을 입고 누구보다 순수한 미소를 짓는 어르신들은 드라마 속 장금이보다 고왔다.

구립 종로노인종합복지관(관장 정관)은 이날 복지관 5층에서 제2회 종로장축제를 개최했다. 행사에는 지역주민뿐 아니라 인근 어린이집, 초등학교, 지역아동센터 등의 어린이들 300여 명이 동참했다.

누구보다 장축제를 즐긴 참가자는 어린아이들이었다. 자신의 몸보다 큰 장독대를 안아보기도 하고, 장을 입에 잔뜩 묻힌 모습을 서로 놀리며 왁자지껄 웃고 즐기기 바빴다. 처음에는 낯선 풍경에 어색해하던 아이도 사과 고추장을 묻힌 떡꼬치는 더 달라고 어르신을 재촉했다. 사과 · 고구마 고추장, 유자된장은 장 특유의 향이 강하지 않아 아이들에게도 인기였다. 모두 복지관의 어르신들이 직접 담근 것이었다.

이날 체험은 △전통장 배우기 △전통문화체험 △장요리 시식부스 운영 △정성가득 장류 판매로 나뉘어 진행됐다. 관장 정관 스님은 “우리 복지관은 앞으로도 플러스카페, 장체험관 및 장카페와 같은 지속가능한 노인 일자리 창출과 전통문화 전수에 앞장 설 예정”이라고 말했다. 박진형 기자

불교상담개발원, 스마트폰 중독예방 나서

학부모 대상 과의존 예방교육 강사 파견

불교상담개발원(원장 가섭)은 증가하는 디지털 중독(과의존)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한국정보화진흥원과 함께 사찰 및 불교계 기관에 학부모 대상 디지털 과의존 예방 교육 강사를 파견하는 사업을 진행한다.

불교상담개발원은 지난해 불교계 디지털 과의존 예방교육 강사 양성 과정을 진행한 바 있으며, 올해 7월 교육생 중 10명이 한국정보화진흥원에서 종교계 스마트쉼 예방교육 강사로 위촉됐다.

불교상담개발원은 학부모를 대상으로 디지털 과의존 예방 교육을 시도하고 있다. 이는 불교계에 중장년층이 많은 현실과 디지털 과의존 청소년의 변화를 위해서는 학부모 교육이 선행돼야 한다는 판단에 의한 것이다.

교육 강사 파견을 위해 김길영(대림대학교 외래교수), 이경애(이경애심리상담소장), 문진건(동국대학교 명상심리상담학과 교수) 교수를 중심으로 표준강의안 작업이 진행됐으며, 주 강의 내용은 과의존에 대한 이해, 자녀의 스마트폰 과의존 현상에 대한 이해 및 자녀와 부모의 스마트폰 과의존 대처방법 등이다.

한국정보화진흥원과 함께 하는 본 강사 파견 사업은 총 10번의 강사를 파견할 예정으로 인터넷 · 스마트폰 과의존 예방 · 해소를 위한 학부모대상 교육 강사 파견을 신청하고자 하는 사찰 및 기관은 10월 30일까지 신청하면 된다. 교육시간은 90분 가량으로 학부모 20명을 대상으로 한다. 자세한 내용은 불교상담개발원 홈페이지(www.kbcd.org) 공지사항을 참조하면 된다. (02)737-7378

노덕현 기자



“채식은 우리의 역사이자 미래 대안”

진흥원 화요열린강좌… 주제: 채식이 세계인의 밥상을 치유하다

정혜경 호세대 식품영양학과 교수

채식 여부는 이제 선택이다. 먹을 게 없어 산나물 뜯어먹던 예전과 달리 풍요로운 먹거리의 홍수에 우리는 살고 있다. 인류는 이전에 없던 질병을 앓고 지구는 오염에 끙끙댄다. 건강함을 되찾을 방법은 무엇일까. 채식이다. 채식이 바로 지구의 미래 대안이다. 정혜경 호서대 식품영양학과 교수는 10월 17일 대한불교진흥원 화요열린강좌서 ‘채식이 세계인의 밥상을 치유하다’라는 주제로 강의했다. 정 교수는 “인류의 오랜 역사는 채소와 함께 해 왔으며, 건강한 미래를 위해서는 채식이 생활화 돼야 한다”고 당부했다. **박진형 기자** realjeanp@hyunbul.com



정혜경 교수는… 이화여자대학교 식품영양학과를 졸업하고 동 대학원에서 이학박사 학위를 받았다. 현재 호서대학교 식품영양학과 교수로 있으면서 농림수산식품부의 식품산업진흥 심의위원과 농수산물유통공사의 한식 세계화 자문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지은 책으로는 〈서울의 음식 문화〉〈한국 음식 오디세이〉〈천년 한식 견문록〉 등이 있다.

인간에 가장 중요한 것은 음식입니다. 음식에 문화도 담겨있고 사상도 담겨있습니다. 민족이 수천 년동안 먹어온 것에 문화가 다 들어 있습니다. 음식은 먹고 나면 DNA에 영향을 미치기도 합니다. 음식이라는 것은 민족성을 규정하는 요소입니다. 음식이야말로 인간의 중심에 있지요.

먼저 채소, 나물 등 많이 쓰는 용어라 익숙하긴 하겠지만 여러 의미가 있습니다. 사실 채소는 한자어입니다. 푸성귀라는 말 많이 들어보셨죠? 남새라는 말 알고 계신가요? 예전에는 채소를 푸성귀, 남새라고 말했습니다. 북한에서는 지금도 남새라고 부릅니다. 그렇다면 나물은 무엇일까요. 나물이라고 하면 채소나 반찬 같은데 그걸 다 포함하는 용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또 채소대신 많이 쓰이는 말 있죠, 야채. 야채는 일본어로, 채소는 우리말로 알고 계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조선시대 문헌에는 야채라는 말도, 채소라는 말도, 수채라는 말도 나옵니다. 야채도 일본식 용어만은 아닙니다. 우리말인줄 알았던 채소가 한자어인 것처럼요.

문헌 속 채소 이야기

먼저 대중매체 속 채소를 찾아 소개하겠습니다. 여러분이 많이 아는 소설이나 만화, 드라마에서 흔히 나왔습니다. 소설 〈혼불〉 〈토지〉 〈미망〉 만화 〈식객〉 드라마 〈대장금〉 등 우리가 본 작품들 속에 채식이 있습니다. 채식은 옛날 우리 조상님들의 글 속에서도 찾을 수 있습니다.

이미 고려시대 때, 이규보 선생님께서 ‘가포육영(家圃六詠)’을 남기셨습니다. 가포육영은 오이, 가지, 순무, 파, 아욱, 호박의 여섯 가지 채소 재배에 대한 기록을 시로 남긴 것입니다. 당대 식습관을 알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무장아찌 얘기를 보면 당시 가을에 동치미를 담가 먹었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고깃국에 파가 들어가니 맛이 더 해진다고도 하셨고 여러 채소 사용법을 계속 소개합니다. 시를 통해 옛날 우리 조상들이 채소를 사랑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목은 이색 선생님도 채소얘기를 많이 하셨습니다. 그중 가장 좋아하셨던 것이 두부입니다. 두부는 콩으로 만든 가장 좋은 단백질원이죠. 두부가 고기의 비계 같다며 굉장히 많은 두부 예찬을 남기셨습니다.

또 홍길동전으로 유명한 허균 선생님도 있습니다. 실제로 조선시대 미식가를 넘어서 탐식가셨다고 합니다. 허균 선생님은 〈도문대작〉이라는 이야기도 남기셨습니다. 도문대작(屠門大嚼), 도살장 문을 바라보고 입맛을 다신다는 뜻입니다. 식욕과 성욕은 인간의 본성이라고 이야기하기도 하셨죠. 그런데 이분의 〈도문대작〉에도 채소얘기가 많이 나옵니다. 그중 가장 인상 깊은 것은 방풍죽입니다. 방풍이라는 채소로 쑤어 먹는 죽입니다. 당시 먹을 게 없어서 먹은 것이겠습니다만 우리 조상들은 그 향을 느끼며 즐기며 먹었습니다.

두 분만 더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정약용 선생님도 마찬가지셨습니다. 다산이라는 호에서 다(茶)가 차를 의미하죠. 〈한암자숙도〉에 보면 채소를 예찬하고, 채소로 수익을 얻을 수 있다고 했습니다.

마지막 추사 김정희 선생님입니다. 당대 최고의 화가이자 서예가셨습니다. 허균 선생님이 탐식가였다면 그 다음 미식가로 손꼽히는 분이 김정희 선생님입니다. 귀양 가셔서도 어느 집 된장이 맛있으니 사 보내라고 하실 정도였습니다. 나이 드시고는 ‘세모승(細毛僧)’이라는 시를 통해 우뭇가사리를 예찬하기도 하셨습니다.

채소의 역사와 우리의 역사

채소의 역사를 간단하게 볼까 합니다. ‘선사인’이라고 하면 괜히 낯설 수 있지만, 그냥 우리 조상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선사인들이 먹었던 채소는 도토리입니다. 전분을 내 먹기도, 그냥 먹기도 했습니다. 그 도토리가 요새 스페인서 건강식으로 부상 중이죠. 도토리는 굉장한 건강식품입니다. 선사인들은 도토리와 밤, 마를 먹었습니다. 그리고 단군신화에는 쑥과 마늘이 나오죠. 그 옛날에도 쑥과 마늘을 먹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마늘로 해석된 것이, 원본 문헌에는 대산이라고 돼있는데, 명이나물이나 달래라고 지금은 보고 있습니다. 당나라 이후에 지금의 마늘이 들어오기 때문입니다. 쑥은 항산화 물질을 많이 함유한 아주 좋은 음식입니다. 서양에서도 쑥을 술에 넣어 먹습니다.

삼국시대로 넘어가면 굉장히 다양해집니다. 우리가 먹는 무, 상추, 가지, 마늘, 아욱 등이 나옵니다. 또 식생활의 계층이 없었던 이전과 다르게 귀족식과 서민식으로 나뉘게 됩니다. 삼국시대 이후부터 우리의 식사 패턴이 자리 잡힙니다. 이 시대 이후 권력을 가진 사람이 생기고, 쌀밥을 먹게 되고, 다양한 채소가 경작됩니다.

> “인간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음식
> 채소는 인간을 가장 이롭게 한다
> 우리는 건국때부터 채소와 함께
> 채식의 민족답게 채식 유지해야”

그 다음은 고려시대입니다. 고려시대로 오면 음식이 다채로워집니다. 불교가 국교가 되면서 육식과 살생을 금하고 소식을 하면서 한국 음식의 채식전통이 이때부터 기틀을 잡았습니다. 실제로 고려 후기 〈향약구급방〉에는 다채로운 채소가 나옵니다. 불교가 우리나라 채식 문화를 잡는데 큰 역할을 했습니다.

조선시대에는 팔도지리지 〈동국여지승람〉서 각 지역의 토산물로 다양한 채소가 재배됐음을 알 수 있습니다. 조선 왕실에서는 얼마나 특별한 채소를 먹었을까요? 정조 19년에 〈원행을묘정리의궤〉 들어보셨죠? 정조의 어머니이자 사도세자의 부인인 혜경궁 홍씨의 회갑연을 기록한 의궤입니다. 의복의 자료가 되기도 하지만 음식연구에도 큰 도움이 됩니다. 여기에 나오는 채소만 15가지 이상입니다. 또 임금이 윤선도 집에 내려준 음식이 많은데 그 중에서도 채소가 귀한 것이었다고 나옵니다. 당시 조선시대 채소는 굉장히 귀한 구황식이었습니다. 대부분 약재들이었습니다. 먹을 게 없어서 나라에서 먹으라고 했던 야생의 산나물과 채소. 이것들은 우리 민족이 살아있게 한 생명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조선말에 가면 다양화됩니다. 현재 우리가 먹고 있는 채소 중 50%는 외래종입니다. 파, 토마토, 홍시 등이 이때 들어옵니다. 우리는 고추의 민족으로 매운맛을 즐긴다고 하는데 고추도 조선 후기 남미에서 들어왔습니다. 현재는 남미보다 더 다양하게 고추를 사용하죠. 그리고 일제 강점기에도 다양한 채소를 먹을 수 있었습니다. 쌀을 탈취해 갔기 때문입니다. 개항기 이후에는 케일, 케비지, 레드케비지, 양파, 파슬리, 아스파라거스 등이 들어옵니다. 이렇게 5000년 역사가 끝납니다.

채식과 건강

건강 얘기 안 할 수 없죠. 채식위주의 한식은 건강을 유지케 해주고 만성질환 예방효과가 있습니다. 채소가 중요하다고 할 때 ‘기근’이라는 말을 많이 언급합니다. 먹을 게 없을 때 기근이라고 하지요. 예부터 곡물뿐 아니라 채소가 부족해도 기근이라고 했습니다. 그만큼 채소가 우리의 중요한 식품이었습니다. 평균적으로는 하루의 식사를 채식과 육식 8:2의 비율로 먹는 것이 좋습니다.

최근 미국에서 채소의 생리활성물질 파이토뉴트리안트에대한 연구가 한창입니다. 서양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채소를 안 먹어서 항산화력도 떨어지고, 섬유질이 부족해 비만이 오기 쉽습니다. 미국서 굉장히 많은 전문가가 모여 국민들에게 “접시의 반을 반드시 채소로 채우라”고 말했습니다. 어마한 돈을 들여 한 연구의 결론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먹던 방식으로 먹으면 됩니다. 씀바귀, 쑥 등에 미국서 찾는 모든 물질이 들어있습니다.

한때 와인이 몸에 좋다고 붐이었습니다. 포도껍질 성분이 심장에 좋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머루는 더 좋습니다. 머루와 더불어 부추, 율무 등이 암 예방학회에서 선정한 음식입니다.

우리나라는 OECD 국가 중 채소 소비 1등입니다. 실제로 우리 민족은 나물을 다양하게 먹었습니다. 국내 총 자생식물은 4500여종이고 식용은 1000여종이나 됩니다. 옛날에는 99가지 나물 노래를 알면 3년 가뭄을 넘긴다고 했습니다.

〈동의보감〉에도 55종의 채소가 나오고, 상당히 유용하다고 쓰여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외국에서 온 음식법이나 식이요법을 보는데 우리는 조선시대 때부터 식이요법서를 편찬했습니다. 한국에서 가장 오래된 〈식료찬요〉가 그것입니다. 이 중에는 열 몇 가지의 채소와 효능이 다수 수록됐습니다.

미래의 대안, 채식

지구의 미래 대안 음식은 바로 채식입니다. 한국인의 채소 섭취는 모든 연령대가 하루 권장량인 400g에 미달합니다. 특히 아동 · 청소년기 및 청년기 섭취량이 저조합니다. 채소 · 과일의 섭취량이 영양섭취기준에 크게 못 미치는 것은 현대인의 식생활의 불균형을 의미합니다. 보건복지부 2012 국민영양조사결과 보고서에 따르면 1969년 우리 식탁의 식물성 식품과 동물성 식품의 섭취비율은 97:3이었습니다. 이때가 가장 좋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60년대처럼 육식과 채식의 비율을 맞춰야 합니다. 채식이 미래에 대안인 이유는 단순히 우리 몸건강을 위해서가 아닙니다. 고기를 만들기 위해서는 에너지 소비, 환경오염 등 부수적인 문제가 발생합니다. 결론적으로 채식은 환경도 지킬 수 있습니다. 사람들의 미래는 어떠한 먹거리를 선택하느냐에 따라 결정됩니다. 사람들에게 음식을 공급하는 일은 인간의 삶과 지구에 큰 영향을 미치죠. 기후변화, 에너지문제, 도시화, 자본주의, 기아문제 등 모든 문제의 핵심은 음식이기 때문입니다. 지구의 미래는 우리가 지금 어떻게 먹느냐에 따라 달라지기에 지속가능한 먹거리로 옮겨야 합니다. 지속가능한 먹거리는 안전을 넘어 사회적 경제적 환경적 지속가능성에 초점을 둡니다. 그리고 그러한 지속가능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생산자와 소비자의 관계, 먹거리 노동에 있어서 공정한 노동관계, 자연과의 지속가능한 관계 등이 중요합니다.

신흥사 운암승려 노후수행관 입주 안내



사회복지법인 운암원에서는
승려 노후복지를 위한 비구니 전용 노후수행관을 개원합니다.
아래의 혜택으로 안내하여 드리오니 문의 바랍니다.

생활 의식주 (사부대중으로서 공동제공)

- 선원, 화엄학림 운영 (서예실, 화실, 도서실, 다실 등)
- 매월 (음, 7일) 원로큰스님 초청법회
- 전기, 상수도, 냉난방 세탁 (무료제공)
- TV 43인치, 드럼세탁기, 냉장고, 에어컨, 전기쿡탑 (제공)
- 생활 필수품 (무료제공)
- 스님 출입시 부산역, 공항, 고속터미널 (승용, 승합 제공)
- 월 1회 온천 및 성지순례 (제공)
- 유선 전화기 기본요금 (무료제공)
- 월 40 ~ 50만원 및 타선원 방부시 대중공양 일백만원 지원
- 수행관 입주자 일반의료비, 중증의료비, 암 치료 등 (무료지원)
- 수행관 내 노후자 편의를 위한 승강기 3대
- 상시 승복(법복) 무료 제공
- 객실 / 실내 도반과 함께 입주 가능
- 승납(법납) 및 세속나이 관계없이 1차 입주는 가능함
- 수행관 주변 : 백병원(종합) 승용 3분거리 / 지하철 도보 10분 / 시내버스 종점 도보 3분거리 / 공원, 대학, 고등학교, 산책로
- 남덕유산 무위사 심신수련원 매년 거주(한철) 가능 (대한불교조계종 제7교구본사 등록예정)
- 사후 사찰내 식장, 무위사 다비장 부도탑 49재, 사중제사 (단, 유언장에 따라 정리함)
- 입주자 : 전국 비구니스님 (60세 외 관계없이 가능)

· 개관 : 2017년 12월

대한불교조계종 신흥사
주지 정일 성범 합장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가야공원로 77-20
사찰전화 : 051-891-3776
문의전화 : 051-895-3400. 010-6783-1208

불보살 가피, 靈駕를 극락으로 보낸다



강소연 교수의
불화 속 스토리텔링

⑦ 목련존자 이야기

우리나라 사찰의 영단(靈壇)에 걸리는 '감로탱'은 대대적으로 거행되는 '공동 천도재'의 장면을 옮겨 그린 것입니다. 만약 당시에 사진기가 있었더라면, 감로탱 화폭에 담긴 모습은 공동 천도재의 현장을 한 컷 찍은 장면이라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 장면에는 중생의 육안에만 보이는 모습만 찍힌 것이 아니라, 부처님의 눈(佛眼)또는 지혜의 눈(慧眼)으로 보이는 장면도 찍혀 있습니다. 바로 '영가(靈駕)가 천도되는 모습'입니다. 중생의 육안에는 한 상 잘 차려진 시식단과 병풍과 스님의 재(齋) 올리는 광경만 보이겠지요. 하지만, 천도재가 벌어진 이곳 현장에는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엄연하게 벌어지는 일들이 있습니다. 천도재를 주재하는 스님의 시식의 순서에 따라 영가가 모셔지고, 부처 보살님들이 납시어 가피가 내리고, 그 영험함으로 (존재에 대한 욕망을 버리지 못한) 영가는 드디어 천도되게 됩니다. 이때 시식을 주재하는 스님과 참가 신자들의 마음이 얼만큼 청정하냐 그리고 또 간절하냐에 따라, 천도의 성공률이 달라지게 됩니다.



영가를 모신 벽련대 장면, '용주사 감로탱(龍珠寺甘露幀)' 1790년, 수원 용주사 소장

'아귀'서 '여의주'의 모습으로

이러한 천도재의 생생한 풍경을 그림으로 그린 것이 감로탱입니다. 감로탱의 일반적인 구도를 보면 ①중생들이(자신의 업대로) 각양각색으로 살다가 다양하게 죽음을 맞이하는 모습(俗界)→ ②아귀의 모습의 영가로 본 모습을 드러냄. 이는 해탈하지 못한 영가의 모습인데 중음(中陰)기간에 해당→ ③부처님의 왕림으로 법(法)의 가피, 즉 감로(甘露)가 내림, 이렇게 3단계로 그림 내용이 전개됩니다.

하지만 조선후기에 오면, 예를 들면 '용주사 감로탱'과 '백천사 감로탱' 등에는 이 같은 3단계 과정의 그 다음 과정인 4단계 '영가(靈駕)가 성공적으로 천도된 모습'이 추가됩니다.

즉, '벽련대에 실려 극락으로 향하는 영가'의 모습까지 그려집니다. 아귀의 모습의 영가는 환하게 빛을 발하는 여의주 모습을 하고 있습니다. 밝고 투명한 여의주(작은 원상)의 모습을 하고 바야흐로 커다란 깨달음의 바탕(큰 원상)으로 계합하고 있습니다.

이 같은 '천도된 영가를 모신 벽련대'의 도상은 감로탱 뿐만 아니라, '극락도'에서도 발견됩니다. 즉, 속세에서 영가천도를 통해 극락으로 이운되어 온 모습이라고 할까요. 마치 감로탱 속의 천도를 마친 영가 벽련대가 극락세계로 고스란히 옮겨간 듯 한 풍경입니다. 그래서 영가를 모신 벽련대라는 공통적인 도상을 매개로, 감로도 속의 속계와 극락도의 극락세계가 서로 연차적으로 연결되는 현상을 볼 수가 있습니다. 관음시식의 마지막 부분이 아미타불 염불인 극락왕생으로 끝나는 것과 마치가지로, 감로도와 극락도라는 두 개의 다른 장르의 불화가, 천도라는 관점에서는 서로 연계됩니다.

감로도의 화면 상단에 나타나는 영가 천도의 벽련대 모습은 참으로 우아하고 기품 있게 표현됩니다. 형식을 살펴보면, 커다랗고 높은 탁자와 같은 사각대 위에 푸른 연꽃(碧蓮) 모양의 좌대(臺)가 있고 그 위에 금니(金泥)로 채색된 작은 원상(圓相)이 모셔져 있습니다.

벽련대 위에 모셔진 작은 여의주 위로는 화려한 장식의 보개(寶蓋)가 있어 여의주를 보호하고 있습니다. 벽련대 주변으로는 주악 천녀들이 에워싸고 풍악을 울리고 있고. 위쪽으로는 오색 번(幡)을 휘날리며 천녀가 일렬로 늘어섰네요.

벽련대와 이를 호위하는 천녀의 군상 뒤로는 이 전체를 감싸 안듯 커다란 원상이 후광(後光)처럼 둘러 있습니다. 벽련대 위에 해탈한 영가의 작은 여의주(小圓相)가 크나큰 깨달음의 바탕인 커다란 원상(大圓相)으로 포용되고 있습니다. 이는 '작은 원상이 큰 원상으로 수렴 또는 합일'되는 모습은 개체적 불성이 큰 바탕의 불성으로 계합하는 모습을 그린 것입니다.

공동 천도재를 옮겨 그린 감로탱
혜안으로 본 영가 천도 모습 담겨
벽련대 위 여의주, 영가의 眞본체
小자아 · 大자아 합일, 깨달음 과정



가운데의 여의주, 해탈한 영가의 모습 (작품정보 상동)

둥글고 오묘한 법, 진리의 모습이여/ 고요뿐 동작없는 삼라의 바탕이여//이름도 꼴도 없고 일체가 다 없거니/ 아는 이는 성인이고 모르는 이는 범부라네 –의상조사 〈법성게〉 중에서

벽련대 위에 모셔진 여의주는 영가의 진실된 본체로, 영주(寶珠) · 자법성(子法性, 아들법성) · 순수 의식 · 환영체 · 사념체 · 작은 자아(小我) · 영가 · 선가 등 다양하게 불립니다. 물론 관점과 불교종파에 따라 조금씩 다르게 표현되지만, 어쨌든 깨달은 개체적 자아는 작은 원상(또는 작은 불성)으로 그려집니다. 감로탱에는 두 개의 원상이 나타나는데, 하나는 벽련대 위에 모셔진 영가의 본체에 해당하는 작은 원상이고 또 하나는 벽련대 전체를 둘러싸는 배경의 큰 원상(빛)입니다.

아들 법성이 어머니 법성으로

유명한 옛 선사님들의 영가천혼 법어를 검토해 보면, "영식(靈識)에게 깨닫게 하여 무명(無明)을 타파하게 하고, 공적영지(空寂靈知)가 드러나도록 한다" 또는 "몸은 죽었으나 영식(靈識)이 있어 이에 고(告)한다" 등의 표현을 자주 볼 수 있습니다. 즉, 사대(四大)가 흩어지고 남은 이것을 주로 '영식(靈識)'이라 불렀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유식(唯識)의 관점에서 본다면, 처음부터 끝까지 존재하는 것은 '식(識)'일 뿐이겠지요. 그래서 영식을 업식(業識)이라고 하기도 합니다. 이같인 작은 원상이 큰 원상으로 합일되는 해탈의 과정에 대해 〈티벳 사자의 서〉에서는 이렇게 언급하고 있습니다.

"사후세계에서 사자(死者)의 몸은 빛나는 환영체라고 부를 만한 성질을 갖는다. 자신이 죽었는지 살았는지 알지 못하는 사이에 밝음의 상태가 사자에게 나타난다. 사자가 이 상태에 있을 때 (사자의 서에 기술된) 가르침을 성공적으로 실천하면 어머니 진리 세계와 아들 진리 세계가 만나게 되고, 그럼으로써 그는 카르마(업)의 지배를 벗어나게 된다."

여기서 '어머니 진리 세계와 아들 진리 세계'는 해당 저서의 각주를 참고해 보면, 산스크리트어 'Dharma Matri Putra'로 직역하면 법성모자(法性母子, 어머니와 아들의 진리 세계)로 번역됩니다. 영가가 성공적으로 천도되기 위해서는 '子(아들)'의 법성이 '母(어머니)'의 법성으로 합일되어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는 깨달음의 과정을 '소아(小我)가 대아(大我또는 眞我)로 합일하는 것'으로 풀이하는 이해와 맥락을 같이합니다. 죽은 이의 순수 의식이 투명한 빛으로 해탈해야 법신과 하나가 될 수가 있습니다. 신앙적 맥락에서는 어머니 법성을 '아미타부처님'으로 설정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는 자기 자신의 모습을 깨닫고 존재의 근원과 영원히 하나가 될 것이다. 그리하여 틀림없이 영원한 자유에 이르게 되리라."

중앙승가대 교수 · 불교문화재학

미술로 보는 불교상식

벽련대 용어의 뜻과 의미

감로탱에 묘사된 작은 원상의 영가를 모신 연화대(蓮臺) 및 사각 받침인 대좌(臺座) 등을 통칭하여, 기존의 문헌에서는 '벽련대반(碧蓮坮畔)'이라는 용어를 쓰고 있다. 벽련대반의 용어의 근거는 관음시식(觀音施食) 〈증명청(證明請)〉 대목 '手擎千層之寶盖 身掛六銖之花蔓 導請魂於極樂界中 引亡靈 向碧蓮坮畔 大聖引路王菩薩摩訶薩 唯願 慈悲 降臨道場 證明功德(손에 천층의 보개를 받들고/ 몸에 온갖 꽃목걸이 걸치시고/ 영가를 극락으로/ 인도하시며 망령을 이끌어/ 벽련대반으로 향하게 하시는/ 큰 성인 인로왕보살이여/ 원컨대 자비로 강림하시어/ 증명의 공덕을 베푸소서)'이다. 그 용어의 쓰임을 보면, '망령을 인도하여 벽련대반으로 향하게 한다(引亡靈 向碧蓮坮畔)'라고 하여 바로 앞 구절의 극락세상을 말하는 비유의 용어임을 알 수 있다. 육도윤회로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푸른 연꽃 대좌가 있는 연못으로 향하게 한다는 표현이니, 이는 영가를 이끌어 극락의 연못에 '연화화생' 또는 '극락왕생'하게 한다는 것의 의미임을 바로 알 수 있다. 정리하면, '벽련대반'이라는 용어는 '극락의 푸른 연꽃 물가' 즉 '극락의 연못'을 지칭하고, '향벽련대반(向碧蓮坮畔, 극락의 연못으로 향한다)'은 '극락왕생'을 보다 직접적으로 표현한 문구이다.

그래서 영혼을 모시는 '탈 것'이라는 의미로 쓸 때에는 대좌의 의미만 살려 '벽련대'라고 지칭한다. '벽련(碧蓮)'의 대(臺)라고 청정한 옥빛 같은 '파란 연꽃'을 강조한 이유는, 파란 빛은 '자비(慈悲)'를 표현하는 색깔이기 때문이다. 불성은 지혜(깨달음, 아는 마음)와 자비를 그 성품으로 갖고 있다. 번뇌와 무명의 영가가 해탈하기 위해서는 자비의 힘이 필요하다. 그래서 아미타부처님의 좌우에는 지혜(깨달음)를 상징하는 대세지보살과 자비를 상징하는 관세음보살이 자리한다.





두 원로학자에게서 구산선문 실상 듣는다

한국선학회 10월 27일 좌담회

원로학자들이 구산선문의 실상을 논하는 자리가 마련된다.

한국선학회(회장 신규탁)는 오는 10월 27일 오후 1시부터 연세대 외솔관 526호실에서 '구산선문(九山禪門)의 실상(實狀)'이란 주제로 좌담회를 개최한다. 좌담회에는 조영록 동국대 명예교수와 최병헌 서울대 명예교수가 참여한다. 사회는 김상영 중앙승가대 교수가 맡는다.

토론자로는 고려시대의 〈선문보장록〉을 자료로 구산선문의 실상을 분석한 바도 있는 선불교 연구자인 정영식 박사, 신라 불교 철학사상연구 전문가인 고영섭 동국대 교수, 고려말 선불교 사학자인 강호선 성신여대 교수, 원간섭기 사원의 기능을 연구한 윤기엽 박사가 참석한다.

이날 좌담에는 '구산선문이 당시에 존재하기는 했는가'라는 근본적 질문부터 훗날 만들어진 역사라면 그 의도는 무엇인지, 구산선문이 현재 조계종의 선수행과 무슨 관련이 있는지 등 가감없는 논의가 펼쳐질 전망이다.

신규탁 한국선학회장(연세대 교수)는 "'구산선문'은 한국불교를 논할 때에, 종단적으로나 학문적으로나 매우 중요한 주제의 하나"라면서 "좌담회을 통해 학자에게 연구란 과연 어떤 의미인지에 대해 두 원로의 체험을 학계와 공유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신성민 기자

골굴사 문화 콘텐츠 발전 방안 모색한다

1월 28일 골굴사서 학술대회

선무도 본찰이자 전통 석굴사원을 간직한 경주 골굴사의 문화콘텐츠 증진 방안을 모색하는 자리가 마련된다.

골굴사와 동국대 경주캠퍼스 불교사회문화연구원은 오는 10월 28일 골굴사서 '골굴사의 문화와 문화콘텐츠'를 주제로 학술대회를 개최한다.

이날 학술대회에서는 장재진 동명대 교수가 '골굴사와 축제문화'를, 고상현 조계종 불학연구소 상임연구원이 '골굴사와 역사문화적 콘텐츠'를, 최원섭 前 금강대 연구교수가 '골굴사와 영화문화콘텐츠 모색'을, 문무왕 동국대 불교사회문화연구원 전임연구원이 '골굴사와 문화콘텐츠 모색' 등을 발표할 예정이다. 신성민 기자

지금 여기, 화쟁은 가능한가

박태원 교수, 향상포럼서 '현실 화쟁론' 제언

원효의 '門 구분 통한 화쟁'
무조건화 · 절대화 배제 노력
'기울어진 운동장'의 해결은
강자 유리함 상쇄해야 가능
'합리의 힘' 종교계 수용해야



원효 스님의 핵심 사상 중 하나는 '화쟁'이다. 쟁론을 화(和)하는 화쟁을 현대사회 문제에서 어떻게 반영할 것인지에 대한 총론적 방법론이 제시됐다.

박태원 울산대 철학과 교수〈사진〉는 10월 20일 중앙신도회관 3층 보리수실에서 진행된 향상포럼 10월 발표에서 화쟁사상의 현실 반영에 대한 방안을 내놨다.

박 교수는 '원효와 말 섞기-지금 여기의 원효를 위한 소참' 발제문에서 원효의 화쟁 사상을 분석하고 '지금 여기의 화쟁론'을 제시했다.

원효의 화쟁 사상 특징을 박 교수는 '문(門) 구분'에 있다고 봤다. 박 교수에 따르면 원효의 '문'은 종류 · 유형과 방식 · 측면으로 나눠 번역되는데 이견을 회통해 쟁론을 화쟁할 때 채택한 튼 문의 의미는 방식에 가깝다. 철학적으로는 "견해 · 관점 · 이론의 조건 인과 계열"이라는 게 박 교수의 설명이다.

이에 대해 박 교수는 "원효는 견해와 이론의 문 구분을 통해 불통의 쟁론을 소통의 화쟁으로 바꾸려했다"면서 "이는 인류의 오래된 '무조건화와 절대화'의 언어 사유의 관행을 치유하려 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문 구분을 통한 화쟁은 견해에 '합리의 힘'을 실을 수 있는 원천인 붓다의 연기 법설을 원효 식으로 계승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박 교수는 '합리의 힘'을 실을 수 있는 '문 구분을 통한 화쟁'을 통해 화쟁을 '지금 여기'에 소환할 수 있다고 확신했다. 하지만, 전제 조건으로 △견해 주체들 간의 상호신뢰 △'기울어진 운동장'에 대한 고려가 해결돼야 한다고 했다.

이 중 '기울어진 운동장' 해결에 대한 논설은 주목할만 하다. 애초 공정할 수 없고, 유불리가 명확한 '기울어진 운동장'에서의 쟁론은 이뤄지지 어려운 부분이다.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박 교수는 쟁론 주체들에게 대한 '차별'을 제안했다.

박 교수는 "기울어진 운동장의 게임 규칙처럼 이미 유리한 지위를 차지한 자가 유리함을 상쇄하는 정도의 차별적 규칙을 수용해야 한다"면서 "쟁론적 게임에서 화쟁적 태도를 선택함으로써 발생할 수 있는 불이익을 강자가 먼저 선택하도록 해야 공정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현대 사회가 '절대화'에서 '다면화'로 사유의 전환이 이뤄지고 있음을 강조한 박 교수는 종교계가 화쟁의 담론에 응하기 위해 기득권을 내려놓는 진정성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박 교수는 "한국사회를 화쟁과 통섭의 길에 올려놓는 데는 한국 종교계의 용기있는 선택이 결정적 역할을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신성민 기자 motp79@hyunbul.com

진전사지서 국보급 금동보살입상 발견

양양군 · 국강고고학硏, 사지 3층석탑 발굴결과 발표

6세기 삼국시대에 조성 추정 보살삼존상 발굴 유일한 사례

조계종 종조 도의국사의 주석처인 강원도 양양 진전사지에서 삼국시대 6세기 경 금동보살삼존불입상〈사진〉이 발견됐다.

양양군(군수 김진하) · (재)국강고고학연구소(소장 차재동)는 "문화재청(청장 김종진)의 허가를 받아 발굴조사 중인 '양양 진전사지 3층석탑(국보 제122호)' 주변 유적서 6세기 경의 국보급 금동보살삼존불입상이 출토됐다"고 10월 15일 밝혔다.

'양양 진전사지 삼층석탑'을 포함하는 사역의 전면을 파악해 사찰의 성격과 범위, 내부 건물터와 규모 등을 조사하기 위해 지난 7월부터 시행 중이며, 이 불상은 사찰의 금당지로 추정되는 위치인 삼층석탑의 북측 편에서 발견됐다.

소형의 금동보살삼존불입상은 광배 상단과 좌대 일부분이 없어졌으나, 현



높이 8.7cm로 전체적인 모습은 양호하다. 출토 당시 육안으로는 청동으로 추정됐으나, 보존처리를 위해 국립춘천박물관에서 기초조사를 하던 중 금동으로 확인됐다.

삼존불은 모두 보살상으로 출토지가 명확한 삼존보살상은 한국에서 유일한 사례로 평가된다. 중앙 본존불에 보살상, 좌우에 협시보살을 배치했는데, 본존불에서는 두광과 신광이 모두 양각으로 표현됐다. 본존불과 협시보살 사이의 하단에 인위적인 구멍 2개는 처음 발견되는 사례이다.

광배에는 전체적으로 화염문이 새겨져 있으며, 손 모양은 다섯 손가락을 가지런히 펴서 손바닥을 밖으로 하여 어깨높이까지 올린 모습이다. 삼존불 모두 보살상의 앞면에서 겉옷은 'X'자로 교차하였다가 좌우로 퍼지는 양식이다.

발굴 관계자는 "이 보살상은 6세기인 '금동신묘명삼존불입상(국보 제85호)'의 화불 · 옷 주름, '금동보살삼존입상(국보 제134호)'의 좌대 · 옷 주름과 유사하며, 세 가닥으로 올라간 보관(寶冠), 'X'자형의 옷 주름, 화불 등으로 미뤄 삼국 시대인 6세기에 제작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이어 "좌대에는 음각한 1단의 단판 8엽의 연화문이 관찰되며, 불상과 좌대가 일체형으로 만들어졌을 것으로 보인다"면서 "이 같은 주조기법과 도금방법 등은 앞으로 보존처리 과정을 통해 정밀하게 조사하여 밝힐 계획"이라고 밝혔다.

신성민 기자

보문사 대웅전, 서울 最古 불교건축 확인

지붕공사 중 건륭 12년 상량문 · 복장물 등 발견

서울 성북구에 위치한 보문종 보문사(주지 인태)의 대웅전이 서울시에서 가장 오래된 불교 건축물로 확인됐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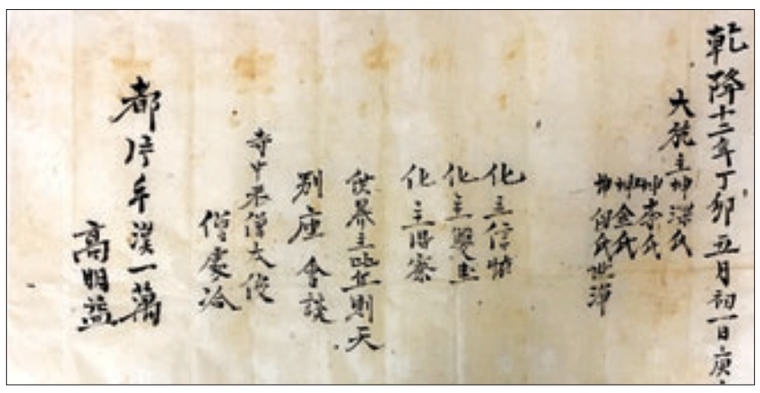
보문사는 "전통사찰 보수 · 정비 사업으로 지난 9월 28일 대웅전 지붕 보수공사를 시행하던 중 종도리에서 완전한 상태의 상량문과 상량복장물을 발견했다"고 10월 16일 밝혔다.

보문사에 따르면 발견된 상량문은 총 3종이며, 이 외에도 불사에 동참한 시주질, 상평통보 등의 주화 총 100점, 오색실과 황초폭자, 오보(五寶), 복장다라니 등이 발견됐다.

특히 눈길을 끄는 것은 3종의 상량문 중 건륭 12년에 작성된 것이다. 건륭 12년은 1747년이며, 이번 발견으로 서울지역 불교건축 중 가장 이른 시기의 상량문이 확인됐다. 대시주로 이름을 올린 인물들은 모두 심씨, 이씨, 김씨, 윤씨 등 여성으로 모두 궁인(宮人)인 것으로 추정된다. 또한 당시 보문사는 비구 스님들이 소임을 보던 사찰이었던 사실도 확인됐다.

하지만, 이후 상량문인 도광 4년(1824), 동치 4년(1865)의 상량문부터는 모든 소임과 대중이 비구니인 것으로 보아 18세기를 거치면서 보문사는 비구니 승방으로 변화했음도 확인됐다.

상량문을 넣는 전통방식을 그대로 확인할 수 있던 것도 중요한 의의다. 이에 대해 보문사 관계자는 "이전에는 불사에 참여한 사람들이 시주한 비녀, 가락지 등은 종종 발견됐으나 보문사와 같이 후령통을 만들고 황초폭자로 감싸 불복장한 형태는 사례를 찾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신성민 기자



보문종 보문사 대웅전 지붕 보수공사 중 발견된 상량문 중 하나인 건륭12년(1747) 상량문. 궁인으로 추정되는 시주자 여성들이 성씨들이 적혀 있다. 이번 상량문 발견으로 보문사 대웅전은 서울지역서 가장 오래된 불교건축인 것이 확인됐다.

韓 · 中 · 日 학자들이 본 불교문헌 확장성

동국대 불교학술원 등 19~20일 국제학술대회

한국 고대 · 중세 불교문헌이 어떻게 국제적으로 전승됐으며, 이에 대한 활용 방안을 논의하는 자리가 마련됐다.

동국대학교 불교학술원 ABC사업단과 불교문화연구원 HK사업단 · 토대연구사업팀은 10월 19일, 20일 양일간 동국대 혜화관 고순청세미나실에서 '한국불교문헌의 정본화와 확장성'을 주제로 추계 국제학술대회를 개최했다.

19일에는 원효 스님 탄신 1400주년 기념해 '원효 찬술문헌의 전승과 정본화'를 세부 주제로 한 학술회의가 진행됐다.

이날 학술회의에서는 김천학 동국대 HK교수는 '〈기신론소 · 별기〉의 전승과 정본화'를 통해 원효 저술의 한 · 중 · 일에서의 유통과정과 함께 〈별기〉 일부의 정본화를 시도했으며, 아타고 구니야스 도요대학 연구원은 〈무량수경종요〉가 일본에서 평가되는 양상들을 분석했다.

김영석 동국대 연구초빙교수는 일본에서 새로 발굴해 촬영한 〈판비량론〉에 대한 조사 경위와 함께 내용을 분석했다.

20일 학술회의는 '한국 불교문헌의 확장성과 디지털지형도'를 주제로 열렸다. 스에키 후미히코 前 동경대 교수는 '동아시아 불교와 동아시아 주연불교'를 주제로 한 기조강연에서 동아시아 불교의 흐름을 〈석마하연론〉의 유통을 중심으로 밝혔다.

이번 학술대회에 대해 동국대 불교학술원은 "지금까지의 불교 문헌학은 해당 문헌의 내용 이해에만 주로 관심을 쏟았다"면서 "앞으로는 보다 확대된 시각에서 고대 불교문헌의 지식체계가 주변 국가들과 어떠한 영향을 주고받았는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신성민 기자



대한불교조계종 제35대 총무원장 설정스님

당선을 축하드립니다



대한불교조계종 제19교구 본사

지리산 화엄사

조 실 혜광 종산 대종사
문 장 금성 명선 대종사
주 지 초암 덕문

사부대중 일동

전남 구례군 마산면 화엄사로 539
TEL 061)783-7600 FAX 061)782-7601
www.hwaeomsa.com

대한불교조계종 제35대 총무원장 설정스님

당선을 축하드립니다



대한불교조계종 제22교구 본사

호국과 차(茶)의 성지

두륜산 대흥사

회 주 상월 보선
주 지 무생 월우

사부대중 일동

大興寺

전남 해남군 삼산면 대흥사길 400 (구림리 799)
TEL 061)534-5502~3 / FAX 061)535-5357 템플스테이 061)535-5775

대한불교조계종 제35대 총무원장 설정스님

당선을 축하드립니다

대한불교조계종 제24교구 본사

강학과 수선, 문화와 복지의 도량

도솔산 선운사



주 지 경 우

사부대중 일동

전북 고창군 아산면 선운사로 250 / ☎ 063)561-1422 Http://www.seonunsa.org/



1962년 3월 1일 대한민국 건국공로훈장 추서
1990년 10월 9일 대한민국 은관문화훈장 추서

대한불교조계종 제35대 총무원장 설정스님
당선을 축하드립니다

구국성사 용성진종대종사 대각사상으로
수행 · 포교하는 재단법인 대한불교조계종 대각회

이 사 불심 도문 이 사 서주 태원 이 사 월천 혜총
이 사 봉안 효경 이 사 금아 혜국 감 사 월암 덕상
이 사 서해 흥교 이 사 장선 성춘 감 사 대해 일광
이 사 선효 성학 이 사 무심 보광 용성문도회회장 경선
이 사 장산 도업 이 사 벽암 지홍 대각회분원회장 지암

(재)대한불교조계종 대각회 이사장
목동 법안정사 · 횡성 대각정사 주지 월천 혜총 서울특별시 양천구 목동동로 371 TEL. (02)765-2701, FAX. (02)741-1385

대한불교조계종 제35대 총무원장 설정스님 당선을 축하드립니다

대한불교조계종
청 계 사
사부대중일동

부설 : 정신지체 장애인 복지시설 녹향원
의왕시립(희망나래) 종합복지관
청계 장애인주간시설
대궁 어린이집

경기도 의왕시 청계동 11 종무소 ☎ 031)426-2348, 2221 전송 426-3666



대한불교조계종 제35대 총무원장 설정스님
당선을 축하드립니다

대한불교조계종
나한도량 관음성지
落袈山 普 門 寺
사부대중일동



대한불교조계종 보문사
인천광역시 강화군 삼산면 삼산남로 828번길 44
TEL 032)933-8271~3 www.bomunsa.me



향봉 스님의
一切唯心造

착한 인연은 비켜가고

"오늘은 하늘의 문이 반쯤 열린다는 일요일인데 아침안개가 산허리에 감기더니 종일 내 방에는 수상쩍은 사람들이 드나든다. 한 남편은 죽고 한 남편은 헤어진 오십 줄넘긴 과부댁 둘이 용한 무당이 사자암에 가라해서 왔다며 재수 좋은 일, 돈 버는 일을 묻는다. 제기랄, 재수 좋으면 돈 벌었으면 일요일 산간(山間)에 퍼질러 이불빨래나 하며 짓이길까. 점심엔 일 년 내내 사과 한 알 사온 적 없는 김 처사가 친구까지 데려와 아껴먹는 군고구마 남김없이 먹어 치우고 사과나 배 없느냐며 냉장고 안까지 뒤져댄다. 여름엔 땀방울로 일궈놓은 열 평 남짓한 텃밭에서 풋고추랑 깻잎이랑 호박잎까지 따가던 박 보살이 오지 않아 다행, 라면 끓여 먹고 그릇은 대충 씻는 오십 넘긴 노총각이 오지 않아 다행, 이런 날엔 김이 모락모락 나는 찰떡이나 천원에 두 개주는 황금잉어빵을 사오는 진짜배기 거사나 보살이 한두 명 다녀가면 좋으련만, 착한 인연은 비켜가고 지지리도 수상쩍은 버거운 인연만 드나들고... 늦오후엔 차라리 헤진 삶 다둑이며 가벼운 산행(山行)을 해야겠다. 마음을 반에 반쯤은 열고 염불대신 그리운 얼굴 떠올리며 휘파람으로 구성지게 추억이 가슴까지 차오르게 유행가나 두 어 곡 불러 봐야겠다. 시린 가슴에 눈물방울 두 어 방울 고일 수 있게."

몇 년 전에 낙서삼아 써둔 '착한 인연은 비켜가고'이다.

선재동자는 아니지만 일상의 생활 주변에서 보살과 투사, 부처와 중생을 만나며 늘그막 황혼기에 철들고 있다. 마음의 흐림과 맑음에 따라 보살이 투사로, 부처가 중생으로 키를 낮추며 다가선다.

내가 머물고 있는 사자암은 오르내리막 길이 업 다운이 심한 등산로의 해발 380m의 위치에 자리하고 있다. 하여, 사과 한 알을 몸에 지니고 오기에도 숨 가쁜 벅찬 노동일 수 있다. 중간에 음료수 파는 곳도 없어 요사채에 항시 마련해둔 봉지라면은 종교 신앙과는 상관없이 누구나 들락거리며 라면을 셀프로 끓여 먹고 봉지커피로 휴식을 즐기며 잡담 나누며 돌아간다.

그런데 오늘 점심에 있었던 일이다. 작심하고 온 어느 등산객들이 20여 명이 종각 밑에서 소주파티에 불고기 식사를 즐기고 있었다.

하여, 나는 그들에게 화난 감정을 잦아들게 한 후 조용한 음성으로 말하였다. "이미 시작한 점심이니 맛있게 편하게 드시고 뒷정리는 말끔히 해주셨으면 합니다."

그러자 한사람이 말하였다. "식사 후 감사기도와 성가(聖歌)도 부를 수 있습니까?"

"물론입니다. 가능하면 조용하고 엄숙한 품위가 유지되길 희망합니다."

그들이 떠난 뒤 요사채의 책상 위에는 편지 한 장이 놓여 있었다. "불교에서 말하는 보살 한 분을 보고 갑니다. 저희의 무례함을 용서 하십시오 불교는 열린 종교라는 게시판의 주지스님 글도 읽고 갑니다. 오늘, 감사했습니다."

글쎄, 사자암 주지 성깔은 지랄이고 버럭 인데 모르시는 말씀이다. 다만 상황이 이미 엎질러진 물인데 버럭은 버럭을 불러들일 따름이다. 상대가 의도적인 잘못을 저지르며 도전해 오길 바란다면 그 자리를 떠나는 것이 평화이다. 가정에서도 부부 사이에서도 직설적인 꾸짖음보다 배려와 이해로 부드러운 용서가 행복과 자유를 꽃피게 할 터이다.

의도적으로 도전하는 사람을 피하라
분노는 결국 분노를 불러올 따름이다

그러나 받아들임의 이해와 용서만이 자비가 아니다. 섭수(攝受)의 자비보다 절복(折伏)의 자비가 더욱 힘을 발휘할 수도 있는 것이다. 받아들이고 감싸는 자비가 섭수자비라면 말씀에 힘을 실어 꾸짖는 회초리 든 자비가 절복자비이기 때문이다. 이 두 개의 자비는 〈열반경〉에 박혀있다.

소아마비의 아이에게 일정한 운동을 시키며 게으름이 없도록 회초리 든 심정의 아버지의 교육이 절복자비라면 아이가 안쓰러워 운동을 중간에 쉬게 하고 아이를 감싸며 게으름을 용서하는 어머니의 받아들임이 섭수자비인 것이다. 1년 내내 사과 한 알 사온 적 없는 김 처사가 친구까지 데려와 아껴먹는 군고구마 남김없이 먹어치우고 사과나 배 없느냐며 냉장고 안까지 뒤져댄다고 글을 남기는, 뒤 끝이 좀팽이인 사자암 주지이다.

오늘 점심시간에 요사채에 글 남긴 기독교인은 알까? 모를까? 별난 성깔, 버럭 성질을, 열 개, 스무 개의 얼굴가진 향봉인데.

부처는 '마삼근(麻三斤)'이다



지안 스님의 〈禪話의 향기〉
조계종 고시위원장

중국 호북성(湖北省) 양주(襄州)는 삼(痲)의 생산지로 유명한 곳이었다. 당나라 때 여기서 생산되는 특산물인 삼을 나라에 세금으로 바쳤다. 한 장정이 나라에 바쳐야할 최소한의 양(量)이 삼 세근을 바치는 것이었다. 일종의 납세의 의무였던 것이다.

동산수초(東山守初:910~980) 선사가 양주의 동산에 머물고 있을 때 어떤 학인이 찾아와 물었다.

"부처가 무엇입니까?" 선사가 대답하기를 "마삼근(痲三斤)이니라." 라고 했다. 이는 나라에 바치는 장정 한사람 몫인 최소 단위의 삼 세근을 말한 것이다. 바꾸어 말하면 '삼 세근이 부처'란 이 말은 이후 유명한 공안이 되었지만 부처를 남에게 물을 수 없다는 말이다. 부처는 내 자신이 감당해야 하는 내 몫일 뿐 남이 대신할 수 있는 것은 아니란 말이다. 마치 나를 남에게 물을 수 없다는 뜻과 같은 말이다. 가령 내 이름을 내가 기지고 있는 것이지 모르는 사람에게 내 이름이 무엇이냐고 물을 수 있겠는가?

〈무문관(無門關)〉 18칙에 이 '마삼근'을 평가한 말이 이렇게 설해져 있다. "동산이 방합선(蚌蛤禪)을 공부하여 조개와 같이 두 입술을 떼자마자 뱃속의 간장을 모두 드러내 보였다. 비록 그렇긴 하지만 생각해 보라. 어디에서 동산의 본래 뜻을 알아차릴 수 있겠는가?" 그리고 게송을 읊었다. "느닷없이 삼 세 근이라고 말하니 그 말도 친절하고 뜻도 더없이 친절하구나. 옳으니 그르니 시비를 말하는 사람은 옳으니 그르니 하는 시비에 빠져 있는 사람일 뿐이다.(突出痲三斤 言親意更親 來說是非者便是是非人)

방합선이란 조개가 입을 벌리면 속이 다 드러나는 것과 같이 '삼 세근'이란 말 한 마디에 진실을 모두 보인 선이란 말이다.

〈벽암록(碧巖錄)〉 12칙 평창(評唱)에는 "이 공안은 많은 사람들이 잘못 이해하고 있다. 이것은 참으로 씹기가 어려워 아무나 쉽게 입을 댈 수가 없다. 왜냐하면 담박(淡泊)하여 아무 맛이 없기 때문이다"라고 하였다. 이어 또 말하기를 "이 '삼 세근'은 장안으로 통하는 큰 길이 한 길로 쭉 뻗은 것과 같이 발을 들거나 내리거나 이 길을 밟지 않고 갈 수가 없는 것과 같다. 이 화두는 운문이 제시한 '호떡(胡餠)'과 마찬가지로 대단히 어렵다. 오조법연(五祖法演)이 게송으로 말하기를 값싸게 팔아먹는 장사들은 '삼 세근'을 저울에 달아 재고 있구나. 천, 백 년 동안 팔리지 않아 묵혀 둔 물건인데."라고 하였다.

운문(雲門)의 '호떡'은 운문문언(雲門文偃:864~949)에게 어떤 학인이 '부처와 조사를 초월한 말은 어떤 것입니까?' 하고 물었을 때 대답해 준 말이다. 운문은 동산의 스승이다. 운문의 '호병'과 동산의 '마삼근'을 같은 류의 화두라 한다. 물론 '조주포삼(趙州布衫)'도 있다. '조주포삼'이란 '만법이 하나로 돌아가지만 하나는 어디로 돌아갑니까?(萬法歸一 一歸何處)'하는 질문에 답한 말을 두고 나온 말이다. 조조주의 대답은 '내가 청주(靑州)에 있을 적에 베적삼을 한 벌 지었는데, 무게가 일곱 근(斤)이었네'였다. 이 화두를 '조주포삼'이라 한다.

〈운문광록〉에 운문과 학인과의 대화는 이렇게 나온다. "부처와 조사를 초월한 말은 무엇입니까?" "호떡이다." "그것과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정말 무슨 상관이 있겠는가?" 운문이 이어 말했다. "그대는 분명하지 않은 상태로 다른 사람이 조사의 뜻을 말하는 것을 듣고서 부처와 조사를 초월하는 말을 묻었다. 그대는 무엇을 부처라 하고 무엇을 조사라고 하기에 부처와 조사를 초월하는 말을 하고 삼계를 벗어나는 길을 묻는가?"

〈벽암록〉 평창에는 또 "만약 '호떡'을 부처와 조사를 초월한 말로 안다면 무슨 활로가 있겠는가? 호떡이라는 생각을 하지 말고 또한 부처와 조사를 초월한다는 생각도 하지 않는 것이 활로이다. '삼 세근'도 같은 종류의 화두이다"라고 했다.

우리나라 고려 때 태고보우(太古普愚:1301~1381) 선사가 지어 부른 노래인 '태고암가(太古庵歌)'에 "운문의 호떡과 조주의 차는 이 암자의 아무 맛도 없는 밥에 비하여 어떠한가? 본래 이러한 옛 가풍을 놔두고 누가 그대에게 기특하다 논할 수 있으리오"라고 하였다. 운문의 호떡이나 조주의 차는 음식으로서의 맛이 아니라 선미(禪味)의 맛인 것이다.

자비 · 지혜 닦아 공덕을 쌓아라



시인 도정 스님이 풀어쓴 〈대장부론〉 시즌2
⑮ 대장부가 되기 위해서는

大丈夫品第二十二
菩薩悲心唯有一事之所逼迫。常爲他事苦來逼迫。更無餘事。是名成就悲聚。棄於涅槃如棄其苦。受於有身如取解脫。與世間利樂者名此爲悲。知涅槃功德生死過患然不捨有爲。如是一切盡是大悲功德。一切處離欲。以涅槃爲體而不取涅槃。名勇健者。大悲因緣故能入生死周旋往返。觀諸有盡滅知眾生是苦爲救爲依。心持大悲厭惡己身求十力身大悲之處得處悲處功德。如轉輪聖王雖有千子然愛相好具者。佛亦如是。於一切眾生愛有悲心者。唯能作福無智無悲名爲丈夫。有福有智名善丈夫。若修福修悲修智名大丈夫。應看悲者。有悲者應共語說。敬禮悲者具一切功德。

번역 | 대장부품 제22
보살은 자비심으로 오로지 핍박당하는 곳에서 한결같이 섬기는 것이며, 늘 타인을 위해 고통과 오는 핍박에도 섬기는 것이니 다시 다른 일이 없습니다. 이것을 일러 '자비 모음'을 성취했다고 합니다. 열반을 버리는 것을 괴로움 버리는 것처럼 여기며, 몸 받는 것을 해탈을 취하는 것처럼 여깁니다. 세상에 이익과 즐거움 주는 이를 자비롭다고 부르나니, 열반공덕으로 생사의 괴로움을 지날 줄 알아 유위법(有爲法)을 버리지 않으며, 이것을 일체의 모든 대비공덕으로 여기기에 일체의 곳에서 욕심을 떠났습니다. 열반으로써 근본 바탕을 삼되 열반을 취하지 않기에 일러 용맹하고 굳건한 사람이라 합니다. 대자비의 인연으로 능히 생사에 들어가 두루 돌며 가고 옵니다. 모든 것은 다 사라지는 것임을 관찰하고 중생의 괴로움을 알기에 구제하며 의지처가 됩니다. 마음에 대비심을 지니고 자기 몸을 싫어하여 십력(十力)의 몸을 구하되 대자비 행할 곳에 머물며 대자비의 공덕에 머뭅니다. 전륜성왕에게 천 명의 자식이 있지만 사랑하고 좋아하는 자식이 있는 것처럼 부처님도 역시 그러하여서 일체 중생 가운데 자비심 있는 이를 사랑합니다. 오로지 복을 지을 줄 알되 지혜 없고 자비가 없어도 장부라고 부르고, 복도 있고 지혜가 있어도 장부라 부르는데, 만약 복을 닦고 자비를 닦고 지혜를 닦는다면 대장부라 할 것입니다. 응당 자비로운 이를 살피고, 자비로운 이가 있으면 응당 함께 말하며, 자비로운 이를 공경하면 일체의 공덕을 갖추게 됩니다.

해설 | 해마다 안거철이 되면 큰 스님들께서 법상에 올라 하시는 비슷비슷한 법문이 있다. '생사(生死)란 무엇인가. 안거하는 동안 생사를 벗어나는 대장부가 되시라'는 말씀이다. 때론 '한 생각 내는 것이 생(生)이요, 한 생각 사라지면 사(死)'라는 말씀도 하신다. 모두 생사를 벗어나는 데 방점이 찍힌다. 그런데 제바 보살은 '생사에 들어가는 보살이 돼라'는 급진적 말을 하다못해 과격한 말을 한다. '중생과 함께 괴로워라'고 말한다.

제바 보살의 이런 말들은 기실 없던 말이 아니다. 화엄경의 십지(十地) 법문 가운데 제9지(九地)인 선혜지(善慧地)의 경계다. 선혜지(善慧地)는 중생 속에 뛰어들어 함께 울고 웃는 깨달음의 경계라고 설명되어 있다. 같은 상황의 한 생각 바뀜이 보살과 중생의 차이다.

채송화 한 그루
물만 주면 피고 지는 것이
인연 따라 나고 죽는
중생의 번뇌 같더니만,
다시 돌아와 그 곁에 앉으니
번뇌의 인연 따라 자비심을 자아내는
보살과 같았네.

경허 대선사 연구 출판물 발간

경허 대선사의 선사상을 선양하고 연구하고 수행하는 사단법인 경허 연구소에서는 2017년 10월 13일 (음 8월 24일) 경허 대선사 탄신 168주년 기념하여 그동안의 경허 선사 연구 출판물을 간행하게 되었습니다.

1. '인간 경허 연구'발간 : 김태흡의 인간 경허 번역
2. '경허 선시 연구'발간 : 경허 선시 266수 해설본
3. '경허 선시 감상'발간 : 경허 선시 266수 감상본
4. '경허성우 중도불이 선사상 연구(上)'발간 : 박사학위논문
5. '경허성우 중도불이 선사상 연구(下)'발간 : 박사학위논문
동국대학교 2015년도 「경허 성우의 중도불이 사상 연구」



「경허집」 강의 목차

1. 제1강 : 경허집 ····· 0
2. 제2강 : 서문 ····· 1
3. 제3강 : 약보 ····· 9
4. 제4강 : 박태평과의 문답 ····· 22
5. 제5강 : 승화 상인에게 드림 ····· 25
6. 제6강 : 김석사 장상사에게 보내는 글 (1) ····· 33
7. 제7강 : 김석사 장상사에게 보내는 글 (2) ····· 36
8. 제8강 : 자암거사에게 보내는 글 ····· 41
9. 제9강 : 너우후 ····· 45
10. 제10강 : 일진화 ····· 56
11. 제11강 : 법계당에게 보이다 ····· 63
12. 제12강 : 시중 ····· 75
13. 제13강 : 답화 ····· 80
14. 제14강 : 장곡사 보광암 비구니 무이당에게 써줌 ····· 85
15. 제15강 : 범어사 설선사 게의서 ····· 87
16. 제16강 : 여동암화상 ····· 93
17. 제17강 : 해인사 수선사 방함인 ····· 126
18. 제18강 : 합천군 가야산 해인사 수선사 창건기 ····· 128
19. 제19강 : 걸 동수정혜 동생도솔 동생불과 계사문 ····· 142
20. 제20강 : 범어사 총섭 방함록서 ····· 220
21. 제21강 : 남원 천은사 불량서 ····· 230
22. 제22강 : 화엄사 상원암 복설 선실 정원규문 ····· 234
23. 제23강 : 동리산 태안사 만일회 범종 단나 방함기 ····· 243
24. 제24강 : 덕유산 송계암 회록 후 성조 권선문 ····· 247
25. 제25강 : 범어사 계명암 창건기 ····· 254
26. 제26강 : 범어사 금정산 계명암 창설 선사기 ····· 264
27. 제27강 : 범어사 금강암 칠성각 창건기 ····· 272
28. 제28강 : 취은 화상 행장 ····· 279
29. 제29강 : 서룡 화상 행장 ····· 297
30. 제30강 : 영찬 ····· 314
31. 제31강 : 범어사 계명암 수선사 방함 청규 ····· 323
32. 제32강 : 선문촬요 정법안장 서 ····· 331
33. 제33강 : 참선곡 ····· 338
34. 제34강 : 법문곡 ····· 347
35. 제35강 : 가가가음 ····· 356
36. 제36강 : 중노릇 하는법 ····· 361
37. 제37강 : 토굴가 ····· 307
38. 제38강 : 경석 동자에게 ····· 372
39. 제39강 : 귀취자기 ····· 374
40. 제40강 : 곽암 · 보명의 십우도 ····· 385
41. 제41강 : 경허 십우송 ····· 391
42. 제42강 : 경허 십우가 ····· 396
43. 제43강 : 경허 십우도 법문 ····· 405
44. 제44강 : 오도가(1) ····· 412
45. 제45강 : 오도가(2) ····· 424



사단법인 경허연구소에서는
2017년 경허선사 탄신 168주년을 맞아
「경허집」 강좌를 개설하였습니다.

●일시 10월 20일부터 매주 금요일
오후 7시~9시까지
●장소 9호선 봉은사역 1번출구 봉은사 교육관
●문의 사단법인 경허연구소 010-7979-8530

제 96기 교직자 양성 전문교육

佛教儀式(범음·범패) 學人 모집

본 대학 불교의식 교육원에서는 학인을 모집합니다.

■ **과정** (야간 및 통신생)

기본과정 (3개월)	사물(목탁, 요령, 태징, 법고) 다루는법, 도량석, 쇳송, 상단예불, 각단예불, 천수경, 행선축원, 불공시식 등
중급과정 (3개월)	상주권공, 대령관욕, 신중작법, 지장청, 관음시식, 다비식 등
신행과정 (1년)	기본·중급 수료자에 한 함
특수작법 (1년)	기본·중급 수료자에 한 함

◆ 모집인원 : 30명 (선착순)
◆ 개 강 일 : 2017년 11월 30일 오후 5시
◆ 강의일시 : 매주 (화, 금) 오후 5시 ~ 6시 30분 (90분 강좌)
◆ 제출서류 : 입학원서 1통, 반명함판 사진 2매

※ 본원은 초종파 교육도량으로서 수료증을 수여하며, 승려 후보생의 수계득도, 포교원(사찰)창건의 지도와 편의를 제공합니다.
※ 초심자라도 여법하게 불교의 전통의식을 봉행할 수 있도록 지도합니다.
※ 전화·서신 문의하시면 안내서를 보내드립니다.

海東佛教儀式教育院
海 東 佛 教 梵 音 大 學

서울 종로구 낙원동 243-3 탑골공원 뒷편 ☎ 02)741-0495,0496

기공 염불소리치료 명상 센타

기에너지 음악치료 명상

무료공개 강좌 : 매월 셋째주 일요일 낮 12시

미래의 대체의학인 기공 (밀교의 의성신·금강신)을 배우고 익혀서 몸과 마음을 닦아 위로는 깨달음을 구하고 아래로는 중생을 이롭게 하고 제도하는데 원력을 세워서 수행 정진 하실 분

■ **입 문 :** 초보 입문자의 기맥을 직접 열어주고 발공능력까지 갖추는데 3 ~ 6개월 (주1회 특별수련)
■ **고 급 :** 개인의 기공능력을 아무 부작용 없이 (주화 입마, 상기병 등등) 키워나가면서 단기간에 최고의 경지에 이르고자 하는 분 (비법 전수)
■ **특 징 : 제6차크라 (제3의 눈·뇌의핵심〈송과체〉·인당)가 단기간에 몸이 바뀌면서 온 몸에 신경세포가 전부 살아 움직이고(피부호흡) 머리에서 부터 발끝까지 온 몸에 24시간 강력한 전류가 흐르며(기에너지체) 고요하고 편안한, 몸이 완전히 이완된 상태에서 부작용 없이 자연스럽게 뚫리고 열려 나감**
■ 개인지도 (면접 상담 후 결정) ■ 등록번호 : 138-50-00260
■ 문 의 : ☎ 02-393-8027 (기공치료 예약 접수)

기공치료 명상가 처명(선광) 스님

- 동국대학교 일반대학원 선학과 응용선학 박사과정
- 동국대학교 불교대학원 명상심리상담학과 석사 졸업
- 중앙승가대학교 불교학과 졸업
- 동방대, 옥천범음대 졸업, 중앙승가강원 대교과 수료
- (사)한국산업카운슬러협회 1급 지도자(심리상담)
- 서울 남부 구치소 교정위원, 前 서대문경찰서 경찰발전위원회 위원
- 유네스코 세계무형문화유산 국가무형문화재 제50호 영산재 이수자

기공 염불소리치료 명상 연구소 (소장 : 처 명)

최신형 대출력 앰프로 보상 교환설치 실시!!

단 160만원 만 준비하시면, 현재의 앰프설비를 300만원대 고급음향 설비로 교체 해 드립니다

※ 설치 희망일 3~4 일 전에 예약 바랍니다. (종래 사용하던 앰프, 스피커는 보상, 회수해 옵니다!)

고출력 파워드 믹싱 앰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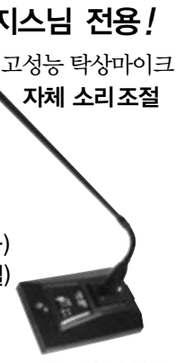


USB탑제 최신형 800 왓트

법당 앰프설치비 가격표

(기본)
A형 : 93만원 (앰프, 스피커, 마이크 2)
B형 : 127만원 (A형 + 무선 1셋)
C형 : 158만원 (B형 + CD 5개용)
D형 : 185만원 (C형 + 믹서 + 케스)
법당 표준형 : 225만원 (D형 + 무선 2인용 기타)
최고급형 일절 : 325만원 (믹싱800 + UBS, 일절)

주지스님 전용!
고성능 탁상마이크
자체 소리조절



가격 : 185,000원

무선마이크



송금계좌 :
우리은행 (예금주 : 김문화)
1002-610-963886

CC 플레이어 (연속 5개 사용)



유코음향연구소 소장 김문화 (음향연구가, 무선설비기사)
서울시 양천구 신월3동 48-9 종경빌딩 300호
010-5335-2695
전화 (02)2697-9976
팩스 (02)2601-8284

칠곡에 핀 우담바라



귀의 삼보 하옵고

금오산, 지리산 자락에서 출가 사문의 길을 걸어온 소납 도오입니다. 불 보살님의 기도, 가피, 원력으로 천불사 가람 수행 중, 앞마당 소나무에서 '삼천 년에 한 번씩 꽃이 핀다'는 '우담바라꽃'을 친견하게 되어, 이는 금륜 명왕이 나타난다는 경탄스러운 마음에서 스님, 사부대중에게 회향, 공덕 자비 보살행의 기회로 대 마음으로 알려드리오니 친견하시고 소원 성취이루시길 바립니다.

경북 칠곡군 북삼읍 태평1길 71 (구, 북삼읍 보손리 823-12)

대한불교삼보조계종 천 불 사

주지 도오 합장 (010-6769-9627)

찾아오시는 길
경북고속도로 남김천IC에서 5분거리



탱화 청동불상 전문 [1,000불 3,000불 10,000불]

상설전시관 100여평 개원





신중탱화

四 代 傳 統

계룡산파 계보도
금호당 약효 → 보응당 문성 → 회응당 상균 → 원만당 석윤

해 동 불 교 미 술 원
010-6338-5167 / 010-3743-5167
서울특별시 중랑구 망우1동 183번지 해동빌딩

"새는지붕" 때문에 고민하십니까?



최신한옥기와강판, 일반기와강판, 스레트형강판, 슬라브 사찰 (대웅전, 요사채, 산신각, 전문시공), 창고, 공장, 일반 가정집

Q 지붕개량을 해야하는데 돈이 걱정되십니까?
A 가장 싸게 시공해 드립니다 자! 이제 칼라강판으로 해결하세요!!

서울.경기 02-456-8831
강 원 도 019-396-1110
충 청 도 010-6545-3350
경 상 도 010-4187-0062
전 라 도 011-248-6298

가장 저렴한 가격에 제일 튼튼하고 예쁘게 단 하루만에 공사완료!
(전국 어디서나 출장시공해 드립니다)

현 대 칼 라 산 업 지 붕 공 사

김성우의 念佛覺者 列傳
㉑ 자운 율사

"가장 큰 불사는 염불로 정토왕생"

> "서쪽을 향하여 합장하고 단정히 앉아 아미타불 명호를 칭명하면서 조용히 입적하시니, 향기가 진동하고 묘한 소리가 청아하였으며, 염불소리와 함께 입으로부터 오색 광명이 서쪽 하늘을 가득 메웠다."
>
> –〈자운율사 탑비〉 中



열반까지 매일 10만염불
염불진언 함께하는 수행
일종식 공양과 삼천배 올려

10만 명 수계한 조계종 계단 확립자

한국 근현대불교사에서 가장 많은 스님과 불자들에게 계첩을 수여한 스님은 단연, 자운(慈雲, 1911-1992) 율사일 것이다. 조계종 전계대화상으로서 40여 년간 10여만 명에 달하는 수계제자를 배출한 분이다. 동시에 그는 28세에 용성(龍城) 선사께 인가를 받고, 1947년에는 도반이었던 성철(性徹), 향곡(香谷), 청담(淸潭) 스님과 함께 봉암사결사를 주도한 선(禪) 수행자이기도 하다.

하지만, 한국불교를 대표하는 율사이자 선사인 자운 스님이 40세 이후로는 염불수행에 매진해 일생 동안 수많은 염불행자들을 지도한 정토의 선지식임을 아는 불자들은 그리 많지 않을 것이다. 임종시에 아미타불의 접인을 받고 희유한 서상(瑞祥)을 나타내며 윤회를 벗어난 깨달음의 세계인 정토에 왕생한 자운 스님은, 조계종의 계단(戒壇)을 확립하고, 정토수행의 완성을 보여준 우리 시대의 사표(師表)가 아닐 수 없다.

율사이자 선사로 왕생한 정토의 조사

열반하시는 날까지 하루도 거르지 않고 '아미타불' 염불 10만 번, 〈아미타경〉 48편 독송, 아미타불 예경 1080배 등을 행한 원력보살! 자운 스님은 아미타불과 극락세계에 대한 믿음(信), 육도윤회를 벗어난 정토에 화생하겠다는 발원(願), 염불행(行)이란 성불의 3가지 양식(資糧)을 갖춘 정토수행이 가장 큰 불사라며 〈정토삼부경〉(법정스님 역) 서문에서 이렇게 밝힌 바 있다.

"(아미타) 부처님을 뵙고 서방의 정토에 왕생하여 성불하는 것, 이 이외에 더 크고 긴요한 불사는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 같이 여기 옮겨 싣는 정토삼부경의 가르침과 그 인연공덕으로 이고득락(離苦得樂)하고 왕생정토(往生淨土)하여 이윽고는 대각을 성취하길 바라마지 않습니다."

16세에 순치황제 출가시 듣고 발심

자운당(慈雲堂) 성우(盛祐) 스님은 1911년 강원도 평창군 진부면 노동리에서 태어났으며, 7세부터 진부면 서당에서 〈동몽선습〉, 사서 삼경 등 유서를 공부하였다. 1926년, 16세에 정초기도를 위해 절에 가는 어머니를 따라 오대산 상원사에 가서 혜운경윤 스님으로부터 "세속의 100년 3만6천일보다, 출가의 반나절이 더 낫다"는 순치황제 출가시를 듣고 발심하여 1927년, 17세의 나이로 출가를 결심했다. 그는 곧바로 해인사로 달려가 팔만대장경 판전에서 1만 배를 올리고 혜운 스님을 은사로, 남천한규 화상을 계사로 사미계를 수지하고 서원게를 읊었으며, 같은 해 범어사 금강계단에서 보살계를 받았다. 1929년 해인사 강원에서 사교과를, 1932년 범어사 강원에서 대교과를 졸업하고 1934년 범어사에서 경념 율사로부터 비구계를 수지한 스님은 이때부터 본격적으로 율장 연구를 시작하여 5부 대율을 날마다 서사(書寫)하고 지송하였다.

3년 장좌불와하고 용성 선사 인가 받아

1935년 범어사 선원에서 하안거를 마치고, 3년 동안 울진 불영사에서 눕지 않고 꼿꼿이 앉은 채(長坐不臥)로 결사(結社)하였으며, 1937년 문경 김룡사와 양산 통도사 선원에서 하안거와 동안거를, 1938년 울산 학성선원에서 하안거를 지내며 선리(禪理)를 깊이 참구하여, 드디어 용성 선사로부터 인가를 받기에 이른다.

자운 스님은 같은 해, 도봉산 망월사에서 용성 선사로부터 '달마가 서쪽에서 온 깊은 뜻(西來密旨)'에 대해 선문답을 한 다음, "청산은 항상 걷는데 백운은 영원히 움직이지 않네, 사람이 물속을 걸어가는데 물이 옷에 붙지 않도다(靑山常運步 白雲永不動 人踏水底過 水不着衣裳)"라는 오도송을 지어 올렸다. 용성 스님은 이를 인가하고 입실건당토록 하고 전법게와 함께 의발을 전해주었다.

오대산 백일기도로 문수보살 계시 받아

1939년에는 일제의 식민수탈로부터 조국을 해방하고 불교를 중흥시키려는 대원을 세우고 오대산 중대 적멸보궁에서 날마다 20시간씩 백일 용맹정근으로 문수기도를 봉행하였다. 그러던 중, 99일째 되는 날 황홀한 가운데 푸른 빛의 사자를 타고 나타난 문수보살로부터 "너는 불교의 중흥을 위해 계율정신을 진작하라"는 계시를 받고 심지계법문(心地戒法門)을 통달하여, 계율로 무너진 수행가풍을 진작하는 힘을 갖추게 되었다.

스님은 1940년 이후 10여 년간 제방선원에서 정진한 후, 본격적으로 율장 연구에도 심혈을 쏟았다. 당시 서울 대각사에 주석하면서 희귀한 율장을 구할 수 없어 2년여에 걸쳐 삼복 염천에도 두터운 장삼을 입고 날마다 국립중앙도서관에서 일본의 만속장경(卍續藏經)에 실려있는 오부 율장(五部律藏)과 그 주소(註疏)를 모두 필사하여 연구할 정도였다.

1948년 37세 때, 처음으로 문경 봉암사에서 결사하면서 보살계 수계법회를 봉행했으며, 1951년에는 한국전쟁으로 인해 엄청난 재난에 처한 재가불자의 수행과 교화를 위해 부산 감로사를 창건했다. 1955년 교단정화이후 초대 해인사 주지에 추대되어, 이듬해 해인사 금강계단 전계화상에 추대된 이후 1981년 종단 단일계단이 형성될 때까지 30여년 동안 수계증을 받은 수계제자가 무려 십만여 명에 달했다.

매일 10만 번 '아미타불' 고성염불

1956년 재단법인 해인학원 이사장, 1958년 조계종 감찰원장, 1967년 범어사 주지를 지내고, 1957년 이후로는 계율과 정토수행을 하나로 보는 계정일치(戒淨一致) 수행을 제창하고 경전과 율전의 한글 번역에 매진하였다. 〈무량수경〉 〈자비도량참법〉 등 21종에 이르는 한글본을 출간 유포했으며, 〈미타예찬〉 〈정토의범(淨土儀範)〉 등 중요 정토서적 9만여 부를 거의 자비로 간행, 유포했다.

자운 스님은 감로사에 주석하면서 주야로 여섯 차례에 걸쳐 예불과 염불을 봉행하였다. 매일 새벽 2시에 일어나 '아미타불' 고성염불을 십만 번씩 하면서 미타예경 1080배로 참회(禮懺)와 절을 겸하였다. 특이한 것은 스님의 염불수행은 염불진언을 함께 닦았다는 점이다. 즉, 하루 30만 독씩 '아미타불 종자(種子)진언' (흘리 · 紇哩)을 염하였고, '아미타불 본심미묘진언' (다냐타 옴 아리다라 사바하)과 '무량수여래 근본다라니' 등을 하루에 108번씩 외우면서 정진하였다. 또한 오후 4시 아귀들의 고통을 덜어주는 헌식 외에는 하루 한 끼니만의 일중식(日中食)을 공양하면서도 삼천배의 정진을 늦추지 않았다.

조계종 총무원장 · 역경원장으로 헌신

자운 스님은 철저한 지계행과 정토수행 가운데서도 한국불교의 중흥을 위해 사심 없이 종무행정에 헌신하기도 했다. 스님은 1976년 조계종 원로에 추대된 데 이어 총무원장에 취임하였으며, 1977년 재단법인 대각회 이사장에 취임하였고, 이듬해 조계종 대종사 법계를 품수하였다. 1981년 종단 단일계단 전계화상에 추대된 스님은 1987년 동국역경원장에 이어 재단법인 동국역경사업진흥회 이사장에 취임, 역경불사의 반석을 다지기도 했다.

세수 81세가 되던 1991년 10월 30일, 자운 스님은 범어사 금강계단에서 종단단일계단 제12회 수계법회를 마친 후 계단에 앉아 "나는 금년말이나 내년초에 금생의 보년(報年)이 끝날 것이므로 종단 단일계단의 단주(壇主)를 고별한다"며 입적을 예고하였다.

기이한 향 · 광명의 서상 보이며 왕생

과연 이듬해 초인 1992년 2월 7일(음력 1월 4일), 스님은 해인사 홍제암에서 "참다운 성품은 둥글고 밝으며 본래 공하여 광명이 시방을 극히 청정하게 비추나니(眞性圓明本自空 光照十方極淸淨), 올 때는 청풍이 소요하듯 오고, 갈 때는 밝은 달을 따라 자재하게 가네(來與淸風逍遙來 去隨明月自在去)"라는 임종게를 쓴 다음 서쪽을 향해 합장하고 단정히 앉아 아미타불의 명호를 칭명하면서 조용히 입적했다. 이때 향기가 진동하고 묘한 음악이 청아하게 들려왔으며 염불소리와 함께 입으로부터 오색 광명이 서쪽 하늘을 가득 메웠다고 한다. 세수 82세, 법랍 66년이었다. 스님의 장례는 7일째인 2월 13일 해인사 연화대에서 조계종 원로장으로 거행되었는데, 다비 후 은행 크기의 사리 19과와 녹두 크기의 사리 5천여 수가 출현하였으나, 생전에 사리를 찾지 말라는 유언에 따라 큰 것만 수습하여 이를 해인사, 감로사, 경국사에 나누어 봉안하였다.

정토 선양한 한국의 '상참괴승(常慙愧僧)'

스님은 평소 계율을 근간으로 한 염불수행과 참회를 겸수한 예참의 염불, 정토진언행을 함께 닦으며 스스로는 '상참괴승(常慙愧僧; 항상 참회하는 부끄러운 중)'이라 하심하며 산 참다운 선지식이었다. 근대 중국 정토종의 제13대 조사인 인광(印光, 1861-1940) 대사 역시 법호를 '상참괴승'이라 하여 염불을 크게 선양하였는데, 자운 스님은 한국에서 대사와 같은 정토 선지식으로서의 역할을 충분히 했다고 볼 수 있다.

"아미타불 법문 듣고 무생법인 증득한 뒤에 극락세계 안 떠나고 사바에 와서 방편을 잘 알아 중생 건지고 걸림 없는 지혜로 불사 지으리. 부처님 저의 마음 아시오리니 오는 세상 이 소원 이루어지이다."

직접 편찬하신 〈정토예경(淨土禮敬)〉 회향게의 내용 그대로 자운 스님은 해인사에서 염불만일회를 결사하여 관음전에서 정토왕생업을 닦았고, 〈정토심요〉 〈연종보감〉 등 많은 저서를 내어 정토법문을 널리 선양했으며, 서울 보국사와 대동염불회, 부산 감로사, 해인사 홍제암, 대구 만선염불원 등에서 염불결사를 조직해 정토수행을 널리 보급하였다.

자운 스님의 계율사상을 충실히 계승한 상좌인 지관 스님(1932-2012, 총무원장 역임)에 이어 손상좌들인 감로사 주지 혜총스님, 원로회의 부의장 세민 스님, 홍제암 암주 종성 스님, 보국사 주지 태원 스님 등이 활발히 지계를 바탕으로 한 염불수행을 홍포하고 있다. 조만간 전국 총림에 염불원이 개설된다면, 자운 스님이 발원한 불교중흥의 서광이 다시금 찬란히 비칠 것이다. 나무아미타불.



김성우(도서출판비움과소통 대표)

대한불교조계종 해인사 용성선사 대원문재현 선사님 현재 97권째 서적 출간

선문염송 30권, 전등록 30권을 모두 역해하여
세계 최초로 1,463칙 전 공안에 착어한 혜안으로 화엄경 81권의 역해를 마치다!!

불조정맥 제78대인 명안종사의 눈으로, 역해와 더불어서 각권과 각품마다 자문자답의 결문으로 선미(禪味)를 더하여, 대천세계를 손바닥의 겨자씨 들여다보듯이 한 불보살님들의 지혜와 신통으로 누리는 불가사의한 화엄세계를 열어 보였다.



화엄경 81권 중 18권 출간

모연문

전자책 5권 무료 다운로드

전자책 1, 2, 3, 4, 5권을 무료로 공개하였으니 읽어 보시고 만인에게 권할 만한 화엄경이라고 여기신다면 81권의 서적과 전자책 출간에 도움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무료 전자책은 아래의 홈페이지에 접속하시면 다운로드할 수 있습니다.

출간 불사

홈페이지 주소 www.zenparadise.com
불사문의 : 010-4520-796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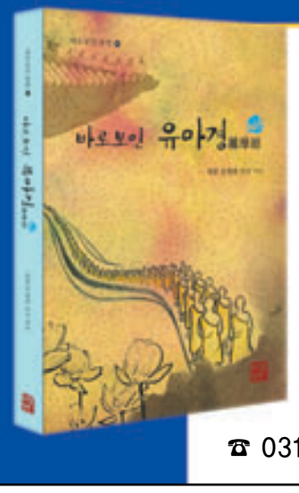
방거사 어록



말 밖의 말을 어쩌면 이렇게 자연스러운 일상의 말로 잘 할 수가 있었을까. 감탄사가 절로 나온다. 여기 방 거사의 말은 본연의 바탕에서 꽃피우는 일상의 함이라 하리라.

– 대원 문재현 선사 서문 중에서...

바로보인 유마경



禪의 일상, 禪의 누림!

유마경은 가히 부처님법의 최정점을 찍는 경전이라 할 것이니, 불보살님이 교화하는 경지에서의 깨달음의 실경과 신통자재한 방편행을 보여주는 최상승 경전이다.
대원 문재현 선사가 〈대원선사 토끼뿔〉로 이 유마경에 걸맞는 최상승법을 이 시대에 다시금 드날렸다.

☎ 031-534-3373 도서출판 문젠 (구, 바로보인)



찜질욕 / 효도상품 현금특별 판매가 135만원

편백황토찜질침대
스님편백비누작발쾌

편향의
특허청 인증서



구입처 : 010-3280-7776

늘 피곤하고, 팔, 허리, 어깨가 쑤시며 깊은 잠 못자는 여러분을 위한 희소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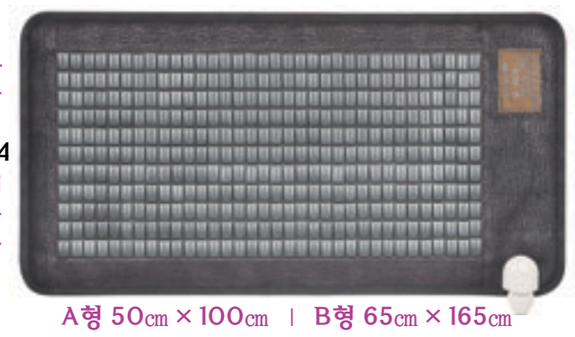
귀사문석(貴蛇紋石) 만능 미니 온열매트!

※ 귀사문석 온열매트는 근육통완화를 위한
식약청 의료용구 제조허가번호 제426호, 품목허가 제09-651인 의료기기 입니다.

생명의 빛! 원적외선이
93% 이상방출되는 방안의 숯가마로
각종 질병의 원인이 되고있는
냉기(冷氣)를 해소하자.

기도할 때는 좌복으로,
취심시에는 온열 매트로!!

귀사문석 374개로 구성



A형 50㎝ × 100㎝ | B형 65㎝ × 165㎝

올 겨울 추위는 방안의 숯가마 찜질방(전자파완전 차단)과 함께!

생명의 빛 원적외선

귀사문석 온열매트에서는 93%이상 방출되는 원적외선이 우리몸의 피부속으로 50㎜까지 침투하여 혈액순환을 촉진시켜 준다. 그리고 피하심충의 온도상승, 미세혈관의 확장, 신진대사의 강화, 부인병, 신경계 질병, 노인성질환, 어깨결림, 허리통증완화, 장속의 노폐물, 중금속 배출등에 탁월한 효과가 인정되고 있다. 또한 귀사문석은 항균효과 86%, 항곰팡이 억제력은 거의 100%이며, 냄새 제거 능력도 탁월하다.

■ 판 매 원 : 선재생활건강(주) / 경기 남양주시 평내동 580-1 리베로빌딩 5층
■ 문의전화 : 031)595-8767, 010-4399-4326 선재생활건강(주)
■ 입금계좌 : 농협 355-0014-5055-43



면발광 LED 인등

법당장엄일체
수미단 달집

발명특허 제10-1350047호
최저의 비용으로 최고의 장엄을

성불원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원흥동 418-1
010-6857-0108
http://www.sungbulwon.co.kr

불교건축의 HOT 뉴스!

이제는 스틸공법 입니다



HOT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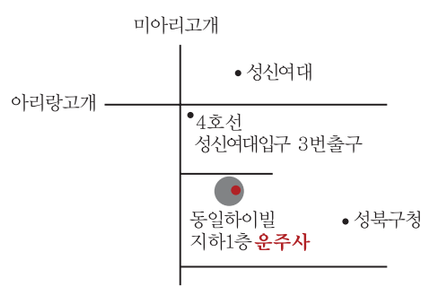
스틸공법 선두주자로 인기몰이 하고 있는 **사찰건축 전문업체**.
친환경적이며 단열효과가 탁월하고 **구조변경이 용이**합니다.
목조건축물보다 **시공비 1/5정도 대폭절감**, 단청까지 3~4개월.
습기에 강하고 내구성이 우수합니다.

☎ 문의 : 대진산업 010-2628-9944

불교도서, 명상음반,
불교용품 전문

운주사





www.unjusa.com
서울 성북구 보문로 38길 11 동일하이빌 지하 1층 Tel. 02-3672-7181

청동불상 조성전문

청동불상 · 천불 · 삼천불 · 만불 · 개금 · 탱화 · 금고 · 범종



지장 보살 | 아미타불 | 관세음보살

장인정신에 입각해 혼을 불어넣은 조성.
대덕스님들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할 수 있는 조성.
40여분의 개금불사 전시로 스님들의 폭넓은 선택기회 마련.
탁월한 재질, 섬세함, 깨끗한 개금처리의 우수성.
대덕스님들의 많은 성원과 조언 바랍니다.

대표 이상식 합장

청동불 40여분 전시중

인터넷으로도 『성화불교예술원』의 작품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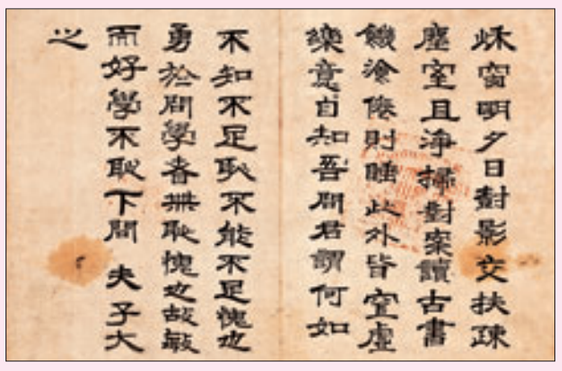
◇ 성화불교예술원 전시관 부처님 상호를 보시는 방법

NAVER 성화불교전시관
주 · 야 상담 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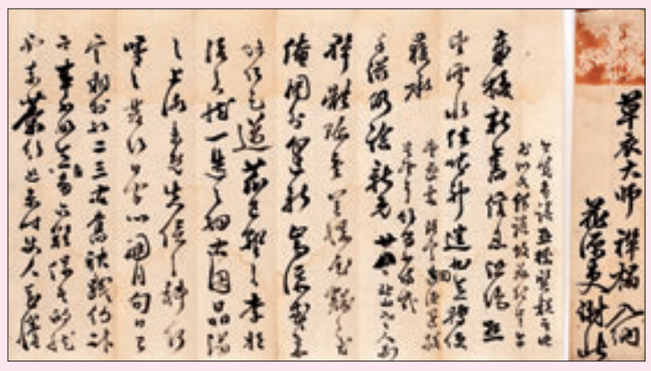
성화불교예술원

(공장 내 불교 전시관)
☎ 031)641-2747, 010-5302-1022
경기도 이천시 율면 고당리 473-2

초의는 知音과 어떤 말을 나누었나



〈추수경공월〉첩은 총 24장으로 이뤄진 초의의 친필 시첩이다. 첩의 뒷면까지 전체 공개되는 것은 이번 전시가 처음이다.



'북산도인 변지화의 편지'는 1837년경 변지화가 진도목사로 있을 때 쓴 것으로 추정된다.

동아시아차문화연구소, '초의선사에게 차를 묻다' 展

11월 3~5일 제13회 부산국제차어울림문화제 메인전시

초의 친필저술 · 흑색 다관 등 관련 유물 40여점 대거 출품

교유한 사대부들 편지도 공개

차 시음회, 특강도 다채 마련

커피와 중국차가 지배한 한국의 차 시장. 녹차와 전통차는 명맥만 유지하며 설 자리를 잃고 있다. 문제는 언제, 어디서부터 시작됐을까. 사실 한국의 차 문화는 조선 초기 위기를 겪은 바 있다. 차 생산과 소비의 중심이었던 사찰이 억불정책으로 위축되며 차 문화에까지 여파가 미친 것. 하지만 조선 후기에 이르러 초의 선사와 다산 정약용 등이 다시 차 문화의 중흥을 일으켰다. 이에 박동춘 동아시아차문화연구소장은 초의 선사의 역사를 되짚어 현재 한국 차 문화의 현주소와 해법을 모색하고자 한다.

제13회 부산국제차어울림문화제 메인전시로 (사)동아시아차문화연구소(소장 박동춘)가 '초의선사에게 차를 묻다' 展을 연다. 11월 3~5일 부산문화회관 대전시실에서 진행되는 이번 전시에서는 초의와 관련한 유물 40여점이 출품된다. 특히 그동안 단 한 번도 외부에 공개되지 않은 희귀 자료들이 대거 공개돼 눈길을 끈다.

1부 '수행의 흔적-시문(時文)과 탑명에 담다'와 2부 '지음(知音)의 아름다운 교유-시와 편지로 나투다'로 구성된다. 대표적인 전시품으로는 초의가 직접 사용했던 흑색 다관과 친필저술 〈초의선과〉〈추수경공월〉첩을 비롯해 석전 박한영의 음기가 수록된 〈초의탑명서본〉, 조희룡의 〈일정화영첩〉, 홍현주의 〈청량산방시축〉, 운암 김각의 〈운관시축〉, 소치 허련의 편지, 북산도인 변지화의 편지, 연천 홍석주의 편지, 기산 김명의의 편지 등 초의와 교유했던 사대부들의 편지들이 공개된다. 이중 〈초의탐명서본〉〈운관시축〉 등은 최초 전시되는 자료다.

먼저 〈추수경공월〉첩은 총 24장으로 이뤄진 초의의 친필 시첩이다. 해서(楷書), 예서(隸書), 행서(行書) 등 초의의 다양한 서체를 살펴볼 수 있다는 점에서 필법 연구에 귀중한 단서가 된다. 특히 첩의 뒷면까지 전체 공개되는 것은 처음 있는 일이다.

북산도인 변지화의 편지는 1837년경 변지화가 진도목사로 있을 때 쓴 것으로 추정된다. 그는 편지에서 "〈동다행〉은 한양으로 보낼 때 사람을 시켜 급하게 등사했기에 지금 보니 잘못된 곳이 많다. 표시해놓은 부분 외에도 착오가 있는 듯하다. 오처를 좇아 개정해 돌아오는 인편해 다시 보내주길 바란다"고 언급했다. 이를 통해 초의의 〈동다송〉이 처음 저술됐을 때 표제가 〈동다행〉이었으며, 변지화가 다른 사람을 시켜 필사하는 과정에서 오류를 발견하고 정정 및 재송부를 요청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수경추일〉 시축도 주목된다. 이는 초의가 1930년 경 경화사족과 교유를 넓힐 무렵, 수경(漱瓊)이 주관하는 시회에서 석범(石帆), 담산(覃山), 계당(溪堂), 초의 등 5명이 참석한 가운데 7언 율시를 짓고 그 말미에 호만을 부기한 장축(長軸)의 시회 두루마리다.

이밖에도 응송 스님의 다구, 여주 예문당 이명균 도공의 고려청자 재현 다구 등 15점도 함께 전시된다.

3일 오후 2~4시와 4일 오후 1시~3시 30분에는 '동춘차'를 직접 시음할 수 있는 기회가 마련된다. 동춘차는 초의-범해-원응-응송으로 이어지는 한국 전통 제다법을 계승하고 있는 박동춘 소장이 직접 전남 승주 차밭에서 만든 잎차다. 이번 시음회는 관람객들이 한국 전통차의 특징을 올곧이 감상할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를 모은다.

4일 오후 1시에는 박동춘 소장의 특강 '초의선사는 어떻게 초의차를 완성했을까'도 진행된다. 특강에 이어서는 '한국 차 어떻게 할 것인가'를 주제로 자유토론이 예정돼 있다.

박 소장은 "이번 전시를 통해 우리 차가 (역사적으로)어떻게 활용되었는지 살필 기회를 제공하고자 한다"며 "이를 통해 우리 차가 나갈 방향이 제안될 것이다. 초의가 추구했던 차의 방향과 초의차의 가치를 세우기 위한 그의 노력을 되묻고, 우리 차가 처한 현실적 고민과 방향을 함께 고민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제13회 부산 국제차어울림문화제는 11월 3일 오후 3시 부산문화회관 챔버홀에서 개막한다. 주요 프로그램으로는 △녹차 그릇 도자기 전시회 △삼매를 담다-찻그릇전 △김윤권 씨의 '나전칠기 차 및 향도구' 전시회 △박기봉 씨의 향도 전시회 및 체험관 △인성나무 숲 가꾸기 체험 등이 마련됐다.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www.busantea.kr) 또는 전화로 문의하면 된다. (051)809-1551

박아름 기자 pak502482@hyunbul.com

돌에 새긴 금정총림 범어사 역사를 보다

범어사성보박물관, 10월 22일부터 2017 특별기획전



범어사사적비명(梵魚寺事蹟碑銘).

금정총림 범어사의 금석문이 총망라돼 한 자리에 모인다.

범어사성보박물관은 2017 특별기획전 '돌에 새겨진 범어사'를 10월 22일부터 개최한다. 이번 전시는 전국 최초로 사찰 내 금석문을 조사 연구해 기획한 자리로 금석문 탁본과 실존 유물들을 소개, 의상대사 및 원효대사 진영과 그들의 기록을 새긴 금석문 등 화엄종의 옛 고승들을 만날 수 있는 기회가 될 전망이다.

전시 구성은 △1부 '범어사의 또 다른 역사' △2부 '왜 범어사에 사찰계가 많은가' △3부 '근대 고승의 산실, 범어사' △4부 '범어사가 기억하는 대중들' 총 4부로 구성된다.

1부에서는 최치원의 〈법장화상전〉과 〈삼국유사〉에 '의상대사의 가르침을 전한 화엄십찰의 하나'로서 기록된 범어사의 역사와 가치를 살펴볼 수 있다. 특히 범어사에는 의상대사와 동시대의 고승인 원효대사와 관련한 문화재가 대거 소장돼 이번 특별전시에서 공개될 예정이다.

2부에서는 '사찰계'를 다룬다. 범어사는 역사상 사찰계가 많이 결성된 사찰 중 하나로 기록된다. 범어사는 조선시대 억불정책과 임진왜란 등 겪는 과정에서 승려들이 사찰을 다시 재건하기 위해 사찰계를 결성, 십시일반 모아 사찰을 수리하고 지켜왔다. 이에 범어사에는 사찰계와 관련한 내용이 담긴 금석문이 곳곳에 산재한다. 대표적으로 갑자갑원보사비(甲子甲員補寺碑)와 무자갑보사단비(戊子甲補寺壇碑)가 있다.

3부는 범어사의 근대 고승들을 주제로 한다. 범어사에는 고승들의 탑비 11기가 있는데, 모두 근대 이후 세워진 것이다. 탑비에 기록된 고승들은 성월당 일전 스님, 담해당 덕기 스님, 이산당 원오 스님 등이 대표적이다. 이들의 진영과 유품이 소개된다.

마지막으로 4부에서는 대중들의 시주와 관련한 역사적 문화재들을 소개한다. 대표적으로 정희조 · 박덕운화 공덕비 김태원 · 김상품행 공덕비 등이 있다.

개막식은 21일 오후 3시 진행된다. 이날 4시부터는 백희가무가, 5시 30분부터는 산사음악회가 이어진다. 전시는 내년 2월 6일까지.

박아름 기자

에이핑크 · 허각이 사찰에 나타났다!

석왕사 중창 40주년 개산대재 개최

석왕사는 중창 40주년 개산대재를 10월 20~28일 개최한다. 매년 인기가수 초청으로 대중의 관심을 끌고 있는 석왕사 개산대재 시민음악회에는 올해 인기 걸그룹 '에이핑크'와 실력파 가수 허각이 무대에 오른다.

이번 행사의 주요 프로그램으로는 △기념음악회(25일 오후 7시 30분 부천시청 3층)△육바라밀 실천법회 및 오백나한 명호 독송기도, 오백나한재(28일까지 매일 오전 9시 30분) △쌍계총림 방장 고산 대종사 초청 개산대제 회향 및 중양절 합동제사(28일 오전 9시) △시민음악회(28일 오후 6시) △고산 대종사 사진 전시회 및 야생화 전시회(28일까지) 등이 마련된다.

먼저 개산대제 문화행사의 꽃인 시민음악회는 마지막 날인 28일 오후 6시 경내무대에서 열린다. 지난해 무대에는 래퍼 산이가 오른데 이어 올해는 인기가수 '에이핑크'와 발라드 가수 허각이 화려한 무대를 펼칠 예정이다.

이밖에도 '나눔의 장'을 주제로 나눔장터도 열린다. 템플스토어 · 경인발아연구소 · 하얀코끼리 · 원종종합사회복지관 · 김포시중증장애인요양시설 가연마을 등 불교계 복지 시설들이 참여하는 나눔장터는 사회복지법인 석왕사 룸비니 운영시설 복지사업지원을 위해 열린다. 28일 오전 9시~오후 4시 진행된다.

이밖에 네일아트, 솜사탕 나눔 행사, 부채꾸미기, 커리커쳐 등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도 실시된다.

석왕사는 "중창 40주년을 기념해 개산대제와 부대행사를 열고, '바른불교 · 실천불교' 이념을 선양하고자 한다"면서 "아울러 지역민과 함께 상생하는 불교의 역할에 더욱 주력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032)663-7771~5 박아름 기자

정은하 작가, '화 · 불 · 법' 고려불화 展

10월 25~31일 인사동 갤러리환에서

용인대 불교회화연구소 정은하 작가의 불화 작품전 '화 · 불 · 법((畵佛法)'이 10월 25~31일 인사동 갤러리환에서 개최된다. 이번 전시에서는 아미타내용도, 아미타삼존도, 수월관음도, 양류관음도, 관경 16관변상도 등 고려불화의 제작기법을 충실히 구현한 정 작가의 작품 30여점이 전시된다.

정 작가는 "불화는 내 삶의 원동력이자 수행의 의미를 가진다"며 "매 순간 순간 붓 끝에 청정한 마음으로 광대원만한 부처님을 화폭에 담고자 노력했다. 천연 석채와 비단 등을 이용했으며 산수화, 사군자 화법, 서법 등 전통기법도 적극 차용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세상 사람들에게 부처님 진리의 향기를 자극할 수 있는 불모의 마음가짐으로 매 작품에 임하겠다"고 전했다.

정 작가는 용인대 대학원 회화학과 불교회화전공을 졸업했다. 2013~2016 화불동연전, 2015 '부처로 통하다' 展, 2012 제11회 한국문화재기능인 작품전 등 다수의 기획 및 단체전에 참여한 바 있다. 이번 전시는 작가의 첫 개인전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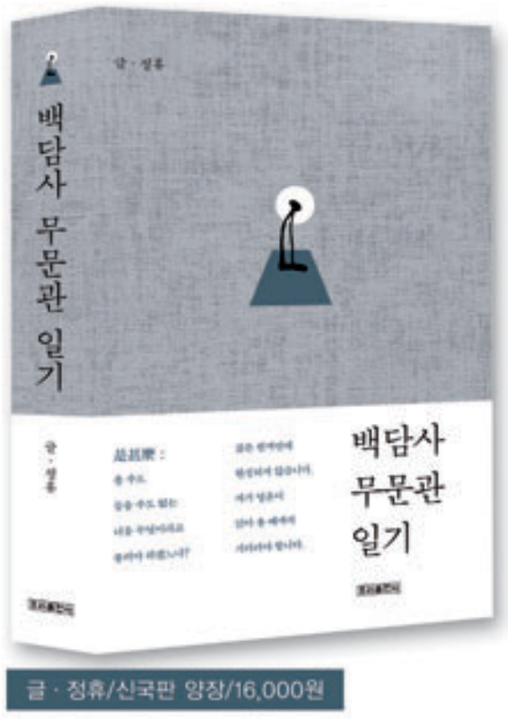
박아름 기자



정은하 作, 수월관음도, 100x60cm

是甚麼

볼 수도 들을 수도 없는 너를 무엇이라고 불러야 하겠느냐?



"죽음 언제든 온다는 걸 알면 마음 비우고 살아갈 수 있어"

"집착 내려놓을 때 내적 성숙 가능 나이 들수록 자기 자신 돌아보길"

백담사 무문관 일기

글 · 정휴/신국판 양장/16,000원

그는 몸과 마음에서 無碍의 자유를 풀어내는 雲水이다.
衲僧과는 평생 把手共行한 寒山 같은 도우이다.
일찍이 禪敎를 全歸掌握한 宗門의 聖骨이나 기꺼이 범추를 박대하지 않으니 그 法衣는 강호를 덮고 남았다.
陋巷에 머물 때는 승단이 불조혜명의 구심처가 되도록 온몸을 던지고 蘭若에 들어서는 생사의 關頭에서 任運自在를 보여준 法主가 바로 禪師다.
거년에는 설악산 無門關에서 保任하더니 門 없는 門을 부수고 나와서는 드디어 천하에 한 물건을 내놓았다. 그 末後句는 一隻眼을 얻은 작가 宗師라 할지라도 혀를 빼물게 하는 것이니 어찌 경악하지 않을 수 있겠는가 납승은 더 이상 보아야 할 눈도 말해야 할 입도 없다. 왜 그런지는 책을 펴는 순간 알게 될 것이다.

– 설악산 백담사 무문관 조실 무산오현 –

눈으로 볼 수 없고 귀로 들을 수 없는 그것을
탐구하는 과정이 치열하고 표현하는 一言一句가
古劍처럼 빛났다.

– 조계종 원로회의 의장 종하 –



우리출판사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경기대로9길 62 전화 (02)313-5047

백담사 무문관 일기

지혜의 보고 佛書

금주의 베스트 불서 10 2017.10.18~2017.10.24

※불서총판 운주사 제공

순위	도서명	저자	출판사
1	불화의비밀	자현	(주)조계종출판사
2	오직한생각	종범스님	한생각
3	원욱스님의나를바꾸는화엄경	원욱	민족사
4	과학의불교	사사키시즈카/법장	모과나무
5	아름다운인생은얼굴에남는다(원철스님산문집)	원철	불광출판사
6	봉암사의큰웃음(향곡큰스님일화)	법념/서주	답게
7	스스로를달빛삼다	원철	휴(한겨레출판)
8	달라이라마의인생론	달라이라마	마음서재
9	호흡법문핵심강의	남회근	마하연
10	티베트마음수련법로종	따렉깝괸	담앤북스

현불Shop OPEN MARKET www.hyunbulshop.com

“참선은 제일 수승하고 압축된 법문”

청화 스님의 참선공부법

청화 스님 지음 | 상상출판 펴냄 | 1만 5천원



참선은 우리 불교서 제일 수승(殊勝)하고 제일 압축된 법문일 뿐만 아니라, 인류의 모든 문화유산의 총 결론 가운데서 최고도의 수행법이다. 현대 한국불교의 선지식(善知識)으로 추앙받는 청화 스님은 일생을 참선수행에 몰두한 수행자이다.

이번에 발간된 〈청화 스님의 참선공부법〉은 스님이 평소 직접 설한 참선 공부비법을 담은 책 이다. 청화 스님이 생전에 직접 법문한 것을 원음 그대로 정리한 것으로, 불자들을 위해 쉽고 간결히 정리돼 있다.

책은 제 1부 ‘청화 스님의 금타 대화상 ‘보리방편문 설법’과 제 2부 ‘청화 스님의 참선 법문-참선(參禪)은 무엇이며 어떻게 해야 올바른 참선인가?’로 구성돼 있다. 1부 법문은 청화 큰스님이 1990년 4월 21일 광주 금륜회관서 금륜회원들을 대상으로 한 것이다. 금륜회는 청화 큰스님에게 가르침을 받던 광주 지역 재가불자들의 모임. 청화 스님은 이 법문서 금타 대화상의 〈보리방편문〉의 핵심을 전해준다.

용수 보살이 저술한 책 중 〈보리심론〉이라 하는 논장에 공부하는 요체가 많이 설명된 가운데, 〈보리방편문〉은 〈보리심론〉 중 공부와 관련한 핵심을 청화 스님의 은사 금타 (1898~1948) 대화상이 간추려 정리했다. 이와 관련해 청화 스님은 “보리란 깨달음의 뜻으로서 〈보리방편문〉은 견성오도의 하나의 방편이다. 정(定)과 혜(慧)를 가지런히 지니는 마음을 한 가지 경계에 머물게 하는 묘한 비결이니 잘 읽어서 뜻을 깨달은 후 고요한 곳에 처하고 제일절만 써서 단정히 앉아 바로 보는 벽면에 붙여서 관(觀)하고 생각하되 관의 일상삼매(一相三昧)로 견성(見性)하고 념(念)의 일행삼매(一行三昧)로 오도(悟道)함이라, 〈육조단경〉의 일상삼매나 일행삼매와도 상통이 되기 때문에 관심 갖고 정진 바란다”고 밝혔다.

법문서 청화 스님은 “〈보리방편문〉서는 한마디로 심즉시불(心卽是佛), ‘마음이 바로 부처’ 임을 말했다. ‘마음이 바로 부처’인 것을 말한 것이 〈보리방편문〉의 줄거리다. 조금 복잡하게 이론 전개가 돼 있고 법문도 상당히 길지만, 한마디로 말하면 결국 심즉시불이라, ‘마음이 바로 부처’임을 도파(道破)했다. 이것이 방편문의 대의”라고 전한다.

2부 법문은 청화 큰스님이 40년간의 일일일식(一日一食) 장좌불와(長坐不臥)의 처절한 토굴수행을 마치고 1985년 곡성 태안사서 3년결사를 결행하기 위해 6.25 이후 폐허가 된 도량을 정화하고, 그 기운을 회복하기 위해 사부대중들과 함께 4박 5일의 하계용맹정진을 감행하면서 참선에 대한 주옥같은 법문을 하루 한 시간씩 5번 설법한 것으로 참선

저자가 직접설한 참선공부 비법
참선실수의 모든 것 정리 압축

실참실수의 모든 것이 압축돼 들어 있다. 특히 이 법문은 대중 눈높이에 맞춰 참선의 필요성과 중요성, 구체적 방법 등에 대해 아주 쉽게 풀어놓은 것이 특징이다.

“참선이 무엇인가? 제가 예언가는 아니지만, 앞으로 두고두고 해를 거듭할수록 참선 문제는 더욱더 중요한 이슈로 부각될 것이다. 왜 그런가 하면 지금 번잡하기도 하고, 이와 같이 혼란스러운 산업사회의 위기를 극복하는 문제에 있어서 제일 소중한 해결책, 산업사회의 혼란상, 물질문명사회의 여러 가지 폐단, 이것을 구제하는 면에서 참선 같은 양약이 없기 때문이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참선을 하고 자 해서 이 자리에 모였다”

청화 스님은 법문서 특히 부처와 내가 둘이 아님을 강조했다. “처음부터 참선이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할 것인가? 그때는 우리 마음이 불심(佛心)서 안 떠나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모두 다 참선이다. 염불, 참선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비록 우리가 관세음보살을 소리 내서 외운다 하더라도, 우리 마음 자세가 우리 마음의 현 위치가 불심을 딱 간직하면 그때는 그것이 참선이다.”책 속에서는 염불과 염불선의 차이에 대해서도 설명한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보통 염불과 염불선은 어떤 차이가 있는가? 이것을 또 알아야 한다. 관음보살(觀音菩薩)이나 아미타불(阿彌陀佛)이 저만큼 밖에 계신다, 우리가 구하고 기도를 하면 그분들 기운이 우리를 돕는다. 이 정도는 염불선이 못된다. 법당에 들어가서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 자기 운수라든가 자기 행복을 구하는 것 그런 정도로 부처님 이름을 외워서는 염불선이 못된다. 그것은 방편염불에 불과하다. 염불이 염불선이 되려면 부처를 자기 마음 밖에서 구하지 않고서, 내 마음의 실체, 내 마음의 실상이 바로 부처다, 이와 같이 분명히 느껴야 한다. 또는 천지우주의 실상이 바로 부처다, 이와 같이 느낌으로 해야 비로소 염불이 염불선이 된다. 여러분들은 지금 선(禪)을 하고 있다. 성불의 가장 지름길, 성불의 정문, 성불의 첩경, 참선이라는 것은 인간이 가야할 길 가운데서 가장 탄탄대로로 가는 것이다”

청화 스님은 또 참선 공부 방법으로 선오후수와 정혜쌍수를 강조한다. “참선은 꼭 선오후수(先悟後修)라, 먼저 천지우주의 모두가 부처 아님이 없다는 생각, 내가 바로 부처라는 생각 말이다. 내가 봐서, 못난 내가 봐서 범부로 보는 것이지, 부처가 보면 내가 똑같이 석가모니와 같은 부처인 것이다. 어떤 누구나가 다 부처인 것이다. 만해 한용운 스님의 〈님의 침묵〉 시에도 임만이 임이 아니라 바로 보면 산도, 내도, 물도, 다 임이다. 바로 보면 다 부처님이다. 이와 같이 느끼고 천지우주를 하나의 부처 덩어리로 봐야 참선이라 말할 수 있다. 그렇게 못 보면 참선이라는 말을 못 붙인다. 이렇게 보고서 그다음 문제는 정혜쌍수라, 정과 혜가 같이 아울러 가야만, 마치 수레바퀴가 둘이 되어야만 갈 수 있고, 나는 새는 날개가 둘이 돼야 높은 하늘로 고상(高翔)하듯이 우리는 꼭 정과 혜가 함께 가야 한다. 그래야 조화롭게 공부할 수 있다. 그래야 빠르다”라고 전한다.

김주일 기자 kimji4217@hyunbul.com

문수보살의 공덕 찬탄한 티베트 불교경전

문수진실명경 역해

중암 선혜 역주 | 운주사 펴냄 | 3만 5천원



티베트불교서 〈문수진실명경〉은 ‘현밀(顯密)의 핵심은 물론이고 불법의 가장 심오한 비밀법문을 설한 딴뜨라 경전들의 핵심을 162게송 속에 간추려 모아 놓은, 제호 가운데 제호와 같은 가르침’으로 여겨진다. 따라서 예로부터 인도와 티베트의 성취자들이 일상의 일과로 독송하였을 뿐만 아니라, 여래의 지신을 밝히는 보석 거울과 같은 경전으로, 나아가 수행과 해탈의 지남으로 삼아왔다. 이에 대해 18세기에 주석서를 쓴 용진 예시걜챈(智幢)은 이렇게 말하였다.

“인도와 티베트의 선대의 현자와 성취자들은 이 딴뜨라 왕을 수행의 핵심으로 간직한 뒤 널리 전파했다. 특별히 법왕 쫑카빠 대사는 이것을 수행의 핵심으로 간직한 뒤 날마다 새벽이면 이 문수진실명송을 3차례에 걸쳐서 독송하되 끊어짐이 없었다. 다른 때와 장소에서도 제일 많이 낭송하였을 뿐만 아니라, 이 딴뜨라의 요의(要義)를 큰 제자들에게 널리 전수함으로써 지금까지도 가피의 흐름이 단절되지 않고 이어진다.” 그리고 이러한 전통은 현대에까지 이어져, 티베트불교에서는 종파를 떠나 모든 수행자들이 수지 독송하고 있다.

이 〈문수진실명경〉의 가치에 대해서는, 우리에게도 익숙한 구루 빠다마삼바와(蓮花生)의 다음과 같은 언급만으로도 충분하다. “모든 수레의 정수리의 장엄이며, 일체법의 총군(總君)이며, 모든 현밀(顯密)의 해와 달이며, 모든 현밀의 정왕(頂王)이며, 모든 경장의 거울이며, 모든 속장의 주석이며, 모든 딴뜨라들의 왕이며, 모든 대집언교의 요의이며, 모든 비밀구결의 정의이며, 모든 난처들의 석의이며, 모든 심의들의 구경이며, 처음과 끝의 둘의 연결을 끊는 이검이며, 육도 유정의 윤회의 낭떠러지를 끊는 쾌도며, 무명의 어둠을 없애는 일월이며, 심경이 집을 두드려 부수는 받침대이며, 윤회의 바다에서 벗어나는 배이며, 중생을 고해의 수렁에서 건져내는 쇠갈고리이며, 해탈을 열어주는 사다리이며, 수레의 문을 여는 열쇠이며, 오결의 결박을 풀어냄이며, 삼독을 뿌리째 자르는 도끼이며, 성냄을 끊어버리는 삭도이며, 번뇌를 쓸어버리는 빗자루이며, 모든 유가행자들의 어머니이며, 모든 유가행자들의 아버지이며, 모든 전도된 견해들의 대치법이며, 모든 무명의 소경들의 눈이며, 견수행과 넷의 분변이며, 수법과 근수자들의 교만을 부숨이며, 모든 율의들의 입김을 불음이며, 실의에 부합하는 모든 팔만사천의 법장을 생기하는 대지이며, 모든 소망들을 남김없이 산출하는 여의주이며, 도과의 정수가 모인 제호이며, 삼세제불의 뜻을 하나로 거둔 정수이며, 모든 언교들의 의미의 중핵이며, 대원만교(大圓滿教)의 핵심 정요(精要)이며, 비밀 가운데 극비밀이며, 극비밀의 마음의 진실한 구결이며, 법신을 실제로 열어 보임이며, 지혜의 무애자재이며, 모든 수레의 집합이니, 이와 같이 공용을 씀이 없이 성불함을 열어 보임이다”

이렇듯 예부터 지금에 이르기까지 티베트불교서 보석과 같은 경전으로 소중하게 받들어지고 있어서 누구나 쉽게 접할 수 있는 경전이지만, 다른 한편으로 여래의 심오하고 지고한 궁극의 가르침을 담고 있어서 삼승과 밀교에 조예가 없는 이들은 접근조차 할 수 없는 난해하고 심오한 경전으로 알려져 있다. 이번에 중암 스님의 정확하고 상세한 번역과 해설을 통해, 수행자에게 지혜의 자량이 되고 수행의 길잡이가 되는 〈문수진실명경〉의 진실한 뜻을 엿볼 수 있기를 기대한다.

김주일 기자

핵심 Q&A 33으로 짚어본 부처님 생애와 불교

불교는 왜그래?

장웅연 지음 | 최밈밈 그림 | 담앤북스 펴냄

1만 4천원



“불교 믿는 사람은 왜 고기를 안 먹어?” “불교는 왜 머리를 깎으라고 해?” 위의 질문들처럼, 우리가 흔히 불교에 대해 갖는 궁금증에는 “불교는 왜”라는 말이 붙어 다닌다. 그래서 다소 도발적이지만 호기심 가득한 〈불교는 왜 그래?〉를 출간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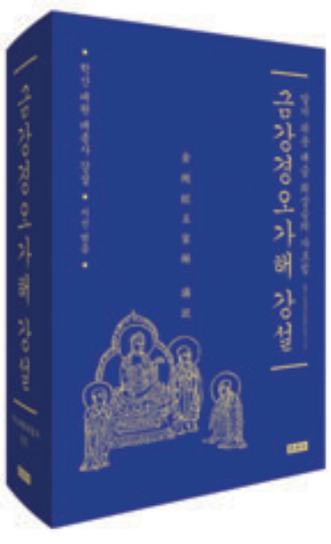
이 책은 우리 주변에 스며 있는 불교문화를 보며 떠올릴 수 있는 궁금증을 33가지로 추려, 풀어 놓은 불교 입문서다. 하지만 읽다 보면 부처의 생애부터, 불교가 오늘날 왜 이러한 세계관을 가졌는지, 나라마다 불교문화가 어떻게 다르고 그 역사적 흐름에 어떤 사건이 있었는지에 대해 알 수 있다. 저자는 기자로서 취재를 하면서 보고 듣고 느낀 불교의 가치와 깨달음을 담으려고 노력했다. 덕분에 누구나 알기 쉽고, 재미있는 불교입문서가 탄생했다.

이 책을 읽다 보면 불교가 과학적 원리를 담은 종교라는 점을 잘 이해할 수 있다. 더불어 배고픈 짐승을 위해 살점을 떼어주는 부처님의 일화, 이발사와 장애인까지 제자로 받아준 차별 없는 정신을 보며 자비로운 불교의 면모가 어디서 출발했는지 확인할 수 있다.

또한 이 책은 부처님과 제자들의 생애 일화, 경전 인용, 저자를 비롯한 불교계 저명인사들의 의견이 적절히 어우러져 불교의 세계관을 쉽게 알 수 있게 쓰였다. 일러스트레이터 최밈밈의 유쾌 발랄한 그림도 있어 보는 즐거움도 쏠쏠하다. 종교는 없지만 불교에 대한 호감을 갖고 있는 사람, 철학과 인문교양에 관심 있는 사람들이라면 이 책을 읽으며 갈증을 쉽게 해소할 수 있을 것이다.

김주일 기자

금강경 이해의 길잡이, 금강경 해설의 최고봉이라
일컬어지는 『금강경오가해』!



금강경오가해 강설

학림사 오등선원의 학산 대원 대종사, 강설을 붙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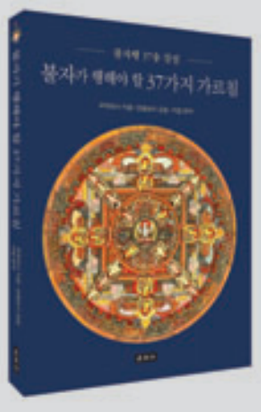
-경의 요처마다 선적, 교학적 안목과 현대적 시선으로 해설을 덧붙여 바른 안목으로 이끌어준다.

『금강경오가해』는 규봉종밀, 육조혜능, 부대사, 야부도천, 예장종경 등 다섯 명안 조사의 금강경 주석을 모아 엮은 것이다. 여기에 해동의 함허득통 스님이 설의를 붙이니 ‘육가해六家解’가 되고, 다시 학산대원 스님이 강설을 덧붙이니 ‘칠가해七家解’가 되었다.

학산 대원 대종사 강설/신국판 양장/912쪽/값 38,000원

대원만 보리심 수행의
안내서이자 나침반!

불자가 행해야 할
37가지 가르침



보살행의 핵심을 37개의 게송으로 정리!
해탈의 길로 이끄는 수행 차제를 아름다운 비유와 언어로 노래!

무착대사 지음/연용상사 강설
지엄 편역/국판 변형
216쪽/값 12,000원

도서출판 운주사 서울시 성북구 동소문로 67-1 성심빌딩 3층 ● 전화 (02) 926-8361 ● 팩스 0505-115-8361 ● 주문 (02) 3672-7181 ● 다음카페:도서출판 운주사 www.cafe.daum.net/unjubooks

대한불교조계종 제35대 총무원장 설정스님
당선을 축하드립니다
대한불교 조계종 불광사 불광법회
사부대중일동
서울 송파구 백제고분로 39길 35 TEL 02)413-6060



대한불교조계종 제35대 총무원장 설정스님
당선을 축하드립니다
대한불교조계종 염불사
사부대중일동
경기도 안양시 만안구 예술공원로 245번길 150(석수동) TEL 031)471-2300



대한불교조계종 제35대 총무원장 설정스님
당선을 축하드립니다
대한불교 조계종
호거산 운문사
운문사 회주 명성
운문사 주지 진광
운문사 승가대학장 일진
대중일동



경북 청도군 운문면 운문사길 264 (신원리 1789) 전화 054)372-8800 전송 054)371-0359 www.unmunsa.co.kr

대한불교조계종 제35대 총무원장 설정스님
당선을 축하드립니다
대한불교조계종 천년관음 기도도량 옥천암
사부대중일동
서울 서대문구 홍지문길 1-38 전화 02)395-4031



대한불교조계종 제35대 총무원장 설정스님
당선을 축하드립니다
우리말 금강경 특별기도 영험도량
대한불교조계종 숙국사
사부대중일동
서울특별시 은평구 서오릉로 23길 8-5 (구산동) ☎ 02-356-2001 Fax 02-359-6297



대한불교조계종 제35대 총무원장 설정스님
당선을 축하드립니다

동산창립 35주년 기념 및 동산인의 밤

- 일 시 : 11월 10일 (금) 오후 6시 40분
- 장 소 : 아펠가모(730-0230) 국세청 앞 The-k, 트윈타워
- 문 의 : ☎ 02-732-1206

■ 주최 : 동산반야회 · 동산불교대학
■ 후원 : 동산불교대학 총동문회

대한불교조계종
관 음 사
주지 진산 종하
사부대중 일동
■ 서울시 관악구 승방1길 109-80(남현동)
TEL 02)582-8609
www.kwaneumsa.net

대한불교조계종 제35대 총무원장 설정스님
당선을 축하드립니다
대한불교조계종 군종특별교구

대한불교조계종 군종교구장 선묵 혜자
대한민국 육·해·공군 군승 일동
국 군 불 교 총 신 도 회 일동

서울특별시 용산구 용산우체국 사서함 83호 국방부 원광사 內
전화 02)797-7266 www.gunindra.com



대한불교조계종 제35대 총무원장 설정스님
당선을 축하드립니다
대한불교조계종 포교사단

포교가 곧 수행
수행이 곧 포교
포교사 일동

서울시 중구 동호로 24길 27-17 우리함께빌딩 5층
TEL 02)927-0588 / FAX 02)927-5390



대한불교조계종 제35대 총무원장 설정스님
당선을 축하드립니다
대한불교조계종 제2교구 안성 운수암

사부대중 일동

경기도 안성시 양성면 성하길 86-63 전화 031)673-7372 / 팩스 031)673-734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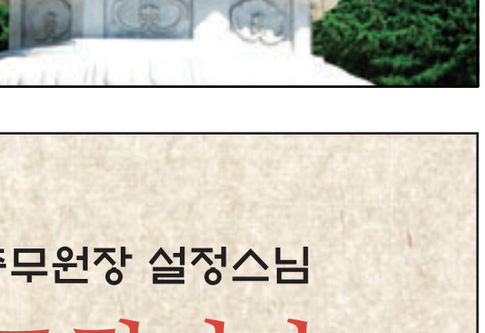


대한불교조계종 제9교구본사 팔공총림 동화사

대한불교조계종 제35대 총무원장 설정스님
당선을 축하드립니다

대한불교조계종 종정 진제 법원
팔공총림동화사 방장
주 지 능담 효광

동화사 사부대중 일동



대구광역시 동구 동화사1길1 (도학동 35) / www.donghwasa.net
TEL : 053)980-7900 / FAX : 053)985-4405



대한불교조계종 제35대 총무원장 설정스님
당선을 축하드립니다
대한불교조계종
치악산 구 룡 사

사부대중 일동

강원도 원주시 소초면 구룡사로 500
전화 : 032)732-4800
템플 : 033)731-0503
팩스 : 033)732-1211



적멸보궁으로 향하는 길에는 단풍이 무르익었다. 오대천을 따라 걷는 이길에서 한없이 숙연해짐을 느꼈다. 단풍나무 곁을 걷고 있지만 나는 겨울숲을 미리 걸었다.

저 절로 가는 길
㉑ 오대산 적멸보궁 가는 길

경허 스님 거닐은 단풍길을 걷다

천년고찰에 전해지는 선기
전쟁 화마 이겨낸 불심 남아
입추 속에 느껴지는 불국토

중국 산서성의 오대산에서는 지금 한창 중국 정부 주도로 거창한 불사가 진행 중이란다. 어떤 의도로 정부까지 나서는지 의아하지만 옛날 옛적에, 문수보살을 비롯해 별처럼 헤아릴 수 없는 보살들이 머물렀다는 이 산의 가치를 뒤늦게 알아 불국토를 재현한다는 소식이다.

잘 알려지다시피 신라의 자장율사가 그 오대산에 갔다 와서 강원도 땅에서 찾아낸 산이 우리의 오대산이다. 우리나라 오대산은 중국의 오대산에서 유래한 이름이다. 중국 오대산은 어디서 왔을까? 인도의 대승경전 화엄경에 나오는 가상의 산 청량산에서 왔다.

오대산은 바다를 건너 일본으로도 갔다. 자장보다 훨씬 늦은 중국 송나라 때 오대산에 간 일본 스님이 교토의 아타고산(愛宕山)에 오대산 문화를 이식했다. 이처럼 오대산은 아시아를 아우르는 넓이였다.

그런데 중국의 자존심은 유별났다. 불교가 자국의 종교가 아니란 사실을 감추려고 청량산을 오대산에 덮어씌운다. 같은 장소임을 강조해 가상을 사실로 전도시키려는 문화전략이었다. 중국의 오대산이 인도의 청량산과 비슷하다는 환경을 빌미로 개명까지 단행했으니, 일본 공상만화에서 힌트를 얻는다는 벤츠의 신기술처럼 인도의 가야산이 중국의 오대산으로 둔갑한 것이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할까? 화엄경에 나오는 문수보살 때문이다. 문수보살은 실존인물이라기보다는 부처의 신통력을 강조하기 위해 등장한 가공인물이란 것이 정설이다. 부처와 달리 문수보살에게는 뚜렷한 본적지가 없다는 사실도 문수의 비현실성을 지목한다.

문수보살이라면 중국 오대산에서 겪은 자장의 신화적 체험이 얼마든 현실세계에서도 통할 수 있었다. 중국의 역사서인 '속고승전'은 자장이 종남산 운제사에서 수행했다고 전하지만, 오대산에서 만난 문수보살에게서 부처의 사리와 가사를 얻었다는 삼국유사의 기록에 더 눈길이 간다.

'이것은 석가세존의 것이니 잘 보관하십시오. 당신 나라의 동북쪽 명주(溟州) 경계에 오대산이 있는데 일만의 문수보살이 늘 거주하니 가서 뵈십시오.'



선재길 징검다리를 건너는 도반들.

자장이 가져온 불사리는 강원도 오대산의 적멸보궁에 모셔진다. 삼국유사에서 불국토를 이룰 땅이라고 예견한 바와 같이 오대산에는 월정사와 상원사를 비롯하여 다섯 봉우리마다 암자들이 깃들어 문수성지로 자리매김한다.

자장이 중국 오대산에서 보았듯이 문수보살은 고승이나 노인으로 나타나고 동물로도 나타나는데, 그중 동자로 가장 자주 나타난다. 문수보살을 보려면 문수보살과의 인연이 깊어야만 볼 수 있고, 문수보살의 지혜에 이르려면 어린아이처럼 마음이 맑아야 한다. 이를 증명하듯 상원사 문수전에는 문수보살과 문수동자가 나란히 앉아 있다.

오대산에서 꽃핀 문수신앙은 21세기에 이르러 '선재길'을 만들어낸다. 화엄경에 나오는 어린 구도자 선재동자(善財童子)에서 따온 이름으로 문수보살, 아니 문수동자와는 사제지간이다.

세상이 온통 고달프다고 한다. 최고의 실업률이 고달프고, 최고의 가계부채가 고달프고, 최고의 자살률과 이혼률이 고달프다. 부조리한 것은 이같은 중생고에도 어두워야 할 도시가 점점 깨끗해지고 투명해지고 있다는 사실이다. 도시를 장악하는 유리건물들은 중생고를 차갑게 내려다보는 사이코패스이다. 선재길은 본래 월정사와 상원사를 오고간 스님들이 다니던 길이었는데 언제부턴가 고달픈 중생들이 걷기 시작했다.

선재길은 월정사 부도밭 뒤에 시작을 가리키는 표지판이 서 있지만, 나는 월정사 일주문부터 걷기 시작했다. 단원 김홍도의 그림에도 나오는 그 유명한 월정사 전나무 숲을 빼놓고 걸을 순 없었다. 전나무 특유의 알싸한 향기가몸을 씻어주는 길이다. 가을로 들어서는데도 전나무 숲길은 스님이 입는 괴색 승복처럼 계절을 타지 않았다.

월정사는 643년 자장율사가 창건한 천년고찰이지만, 한국전쟁 때 대적광전 앞의 팔각구층석탑만 남기고 모조리 불탔다. 탑 앞에서 공양하는 자세로 두 손을 모아 쥔 석조보살좌상만이 불에 그슬린 천 년을 기억하고 있다.

선재길은 상원사로 이어진 조붓한 숲길이다. 오대천을 따라 흐르는 이 길을 징검다리와 섶다리, 출렁다리, 조릿대 숲이 이어준다. 지난겨울 나는 이 길을 걸었고, 이제 아이들이 쓰는 크레용으로 가을을 그리듯 쓱쓱 다시 걷는다.

길은 오대천 위를 가로지르는 반야교를 건너면서 본격적으로 시작된다. 곧 회사거리가 나타난다. 회사거리, 일제 강점기 목재공장이 있던 자리란다. 선재길을 걸으면 화전민들이 살았던 흔적, 땔감나무를 운반하기 위해 깔았던 철길 등 우리나라의 근대사도 보인다.

회사거리에서 동피골까지, 단풍나무가 가지를 뻗어 내려와 열목어, 금강모치, 꺽치, 퉁가리, 쉬리, 버들치, 둑중개가 산다는 냇물에 붉고 노란 낙엽들을 떨어뜨린다. 지난겨울 이 부근 오대천은 꽁꽁 얼어 있었고, 얼음 위에 눈이 쌓여 소리를 낮추더니 지금은 빠른 물살 소리와 함께 낙엽들을 어디론가 데려가고 있다.



상원사 문수전.

이 길에서 만나는 단풍나무는 설악산과 사뭇 다르다. 설악산 단풍이 명료한 빛깔에 도도한 자태라면 오대산 단풍은 채도가 낮고 수수하다.

섶다리가 보였다. 나룻배를 띄울 수 없는 얕은 물에 임시로 걸쳐놓는 다리다. 잘 썩지 않는 물푸레나무와 버드나무로 다리를 세우고, 소나무와 참나무를 엮은 상판 위에 솔가지나 잎이 달린 잔가지를 깔고, 그 위에 흙을 덮는, 나름으로 정교한 공정을 거쳐 만든 다리다. 여름에 개천이 넘치면 떠내려가므로 '이별다리' 하고도 부른다.

다리를 지나자 자작나뭇과인 거제수나무가 흰 빛을 터뜨리더니 동피골 오대 산장을 지나자 푸른 조릿대가 지천이다. 출렁다리를 지나고 현수교를 지나자 다시 빽빽한 전나무 숲이 검은 그림자를 드리운다. 길은 상원사에서 중대사자암, 적멸보궁, 비로봉으로 이어지지만 선재길은 여기서 끝이 난다.

상원사는 한국전쟁 때 경허의 제자 한암스님이 지키고 있었다. 월정사를 불태운 국군이 상원사로 올라오자 한암은 불상 앞에 정좌했다. 불을 지르려거든 나부터 태우라고 하자 장교는 그 자리에서 주춤했다. 잠시 생각에 잠겼던 장교는 문짝을 뜯어 마당에서 태우고는 자리를 떴다.

선재길로 경허의 제자 한암이 다니고, 한암의 제자 탄허가 다녔으리라. 그리고 두 스님은 때때로 적멸보궁에 오르기 위해 상원사를 나섰으리라. 그들이 걸었을 길로 나도 따라나섰다. 몸이 다소 피로했지만 상원사를 몸으로 지킨 한암의 결기 때문인지 새로이 힘이 솟는 듯했다.

적멸보궁으로 가는 길에도 단풍은 타오르고 있었다. 적멸보궁으로 오르는 계단을 태우고, 5층 석탑처럼 보이는 산지가람 중대사자암을 태우고, 기와불사하는 종무소를 태우고는 마침내 땅에 떨어져 바람에 뒹구리라고는 아무도 생각하지 않았다. 단풍은 나무의 일을 모르고 있었고, 나무는 단풍의 일을 모르고 있었다.

그러나 나는 안다. 그렇게 훨훨 타오르다가 마침내 타고 남은 재처럼 검은 나무들만 남은 겨울 숲이야말로 세상에서 가장 거룩한 몸인 적멸보궁이라는 것을. 겨울 숲을 지날 때는 그래서 한없이 숙연해진다. 단풍나무 곁을 걷고 있었지만 나는 적멸보궁의 겨울 숲을 미리 걸었다.

오대산 적멸보궁은 평일인데도 참배 온 불자들로 붐볐다. 그들은 무엇을 보러 여기에 왔을까? 부처가 있어야 할 수미단에는 황금색 문양이 아로새겨진 주홍색 방석만 놓여 있었다.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부처가 거기에 앉아 있는 것일까? 방석 뒤편 벽면도 눈부신 황금빛이다. 그 벽에 가려 보이지 않는 산기슭에 부처가 있기라도 한 것일까? 자장은 어디에 부처의 사리를 묻었을까?

사람들 틈을 비집어 전각에 들어간 나는 단지 삼배만을 곡진하게 올렸다.

돌아서 나오는 문에서 먼 산들이 보였다. 산과 산이 겹쳐 있듯이 세상과 세상이 겹쳐 있었고, 그 겹친 세상 너머에 중국과 인도가 보이고, 문수보살과 자장이 보이고, 북쪽으로 마지막 유행길을 떠나는 부처의 맨발이 보였다. 문득 뭔가 머리를 찌른다. 아, 그래서 적멸보궁이구나! 적멸보궁에선 빈 방석, 빈 벽, 빈 하늘이 부처 아닌가.



• 걷는길 : 월정사 – 월정사 부도밭 – 섶다리 – 상원사 – 중대 사자암 – 적멸보궁
• 거리와 시간 : 약 5시간

고원영(조계종 산악회 수석부회장)



禪農敎團 宗務法人 우리불교 曹溪宗

종 정 홍 산 현 불

종 도 모 집

◦ 총본산 : 충남 부여군 세도북로 149번길 32번지 마강사
◦ 총무원 : TEL 041)832-4153 / FAX 041)833-4154

세계불교종단연합회(WBOA)

불교 국가간 문화 교류를 통한 힐링 불교의 재 탄생으로
더 큰 불교 세계를 이루고자 종단 참여를 공고합니다.
문의 041)832-4153 / H·P 010-6478-1569

응화세존 3천 4십 3년 음 10월 1일
WBOA 총재 영공 도성 (부산 태종사)
회장 홍산 현불 (우리불교조계종 종정)

입종안내

1) 입종 구비서류
◇ 사찰 및 승려 등록 신청서 1통
◇ 주민등록증 앞 · 뒤 사본 1통 ◇ 반명함판 사진 3매
◇ 법당사진 안 밖 각 1매(사찰등록 하실분에 한함)
◇ 승려증 발급 하실 분은 필히 타종단 수계첩 및 승려증 사본 첨부
◇ 도첩은 본 종단에서 수계를 받을 분에 한하여 발급합니다.

2) 입종 후 발급 증명서
◇ 승려증 (법사증 · 포교사)
◇ 사찰 등록증
◇ 주지 임명장
◇ 추대장 및 위촉장 (간부스님에 한함)

(宗)선농교단 우리불교 조계종에서는 도제양성과 포교에 함께 할 사찰 및 종도님을 모십니다.

"운명의 화살은 일직선으로 날아가는 법이 없더라."

불법이 꽃을 피웠던 통일신라,
그러나 어둠이 짙으면 새벽이 더욱 밝게 열리듯이
법멸의 월식 기간이 있었으니,
그 시대를 건너야 했던 왕과 여왕,
화랑과 고승들, 그리고 천하제일을 다투는 검객들의
사랑과 운명이 밤하늘의 별처럼
오늘 우리의 가슴을 적신다.



작가 정의성 (鄭義成)

신라의 김대성 공은 전생의 부모를 위해 석불사를
지었고 현생의 부모를 위해 불국사를 지었습니다.
그 멋들어진 효성이 천이백 년이 훌쩍 지난 지금에도
남아있음입니다. 저도 작게나마 부처님께 이 책을
지어 바쳐 부모님의 행복을 빌고자 합니다.



대공大恭의 난亂
• 정의성 역사소설 | 신국판 | 704쪽 | 값 22,000원

현실을 꿈처럼 재해석하게 하는 불교적 환타지,
무협소설 같은 속도와 긴장,
삼국지를 연상시키는 지혜와 술수의 맞대결…

이 소설은 통일신라시대 중기에 일어난 대공의 난을 다루고 있다. 모름지기 소설은 첫째, 재미가 있어야 하는데 작가 정의성의 〈대공의 난〉은 그 첫째를 충족시키고도 남음이 있다. 암흑의 시기를 통과하는 청춘 남녀들의 사랑과 비극이 폭염 속의 단비 같고, 장마 속의 햇살 같은 신들린 작가의 손에 의해 반전에 반전을 거듭하며 절묘하게 펼쳐진다.
〈삼국사기〉, 〈삼국유사〉가 갖는 비통일적인 특성들이 작가의 상상력에 의해 결합, 재창조되어 역사 속의 인물들을 더욱 생생하게 눈앞에 되살려냄으로써 특별한 재미와 함께 인생사의 오묘한 이치를 사유하게 한다. 역사에 대한 깊이 있는 연구와 방대한 자료조사, 검술과 진법에 대한 작가의 해박한 지식과 갈고 닦은 내공이 작품 속에 녹아 있어 삼국지를 연상시키는 박진감을 선사하면서, 영화나 드라마처럼 생생하게 펼쳐진다.

한국불교대표방송 BTN 대표이사 서성우

현대불교신문사 서울 종로구 율곡로 6길 36, 606호 전화 02) 2004-8200 • 전국 대형서점 및 인터넷 서점에서 구매하실 수 있습니다. • 총판 법우당 031-945-4533

현대불교신문 창간 23주년을 축하합니다

성종사 대만최대 규모 범종 제작 수출

세계로 수출되는 성종사 범종! 우리의 자랑스런 불교문화유산입니다

聖鐘社 SUNG JONG SA

최근 세계적인 범종 제작회사로 거듭나고 있는 성종사가 대만 최대 규모인 8,800관(33 ton) 범종을 제작 수출하였다. 높이 4.82m, 직경 2.89m 중량 33ton(8800관)의 이 초대형 범종은 대만 타이중에 위치한 명선사 (明善寺)라는 사찰로부터 2013년 주문 받은 것으로 기존 대만 최대 범종인 25.5ton의 불광산사 범종보다 무려 7.5ton이 무거우며 높이도 50cm나 더 크다.

본 범종의 제작기간은 약 18개월이 소요되었으며, 종 표면에는 12,129자의 경전과 명선사의 역대 祖師 70명이 정교하게 빼곡히 새겨져 있어 보는 이로하여금 감탄을 자아내게 한다.

성종사의 범종은 대만, 중국, 일본, 싱가폴, 홍콩, 베트남, 태국,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등 전세계 불교권 국가로 수출되고 있습니다

聖鐘社
전시관 : 서울시 종로고 견지동 110-43 TEL 02-733-6141 / FAX 02-733-4840
사이트 : www.sungjongsa.co.kr / E-MAIL : sungjongsa@hotmail.com
공 장 : 충북 진천군 덕산면 합목리 406-28 TEL 043-536-2581 / FAX 043-536-2582
대 표 : 범산 원 광 식 (중요무형문화재 제112호 · 대한민국 명장)

생명 살림, 바로 부처님 마음입니다

불교상담개발원, 10월 15일 범어사서 생명존중 강좌 개최

생명존중 · 자살예방은 곧 불살생이며 비폭력 자비 운동임을 알리는 대강좌가 열렸다.

불교상담개발원(원장 가섭)은 '생명 함께 더하기 실천 사업'으로 생명존중 · 자살예방 대강좌를 부산 범어사 설법전에서 10월 15일 개최했다. 이날 강사로는 밝행복치유센터 원장 선업 스님이 나서 생명존중에 대한 중요성을 설법했으며, 불교상담개발원은 참가자에게 생명살림 서약문을 나눠 동참을 권유했다.

선업 스님은 "불자가 지켜야 할 기본 오계 중 1번째가 불살생이다. 불살생과 비폭력은 같은 말이며 자신에 대한 모든 폭력을 멈추는 것이 자살 예방의 첫 걸음"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스님은 "불교에서 본 자살 원인은 부처님께서 강조하신 탐 · 진 · 치"라며 "감각적 욕망을 일으키고 얻지 못하면 분노하고 좌절한다. 그래서 자신을 해치는 모습이 바로 자살로 나타난다"고 풀어 설명했다. 아울러 "자살을 거꾸로 하면 '살자'가 된다. 자신이 부처라는 믿음으로 존귀하게 여기며 살고 남도 살게 하자"고 당부했다.



불교상담개발원은 '생명 함께 더하기 실천 사업'으로 생명존중 · 자살예방 대강좌를 부산 범어사 설법전에서 10월 15일 개최했다.

생명살림, 자살예방 운동 확산
범어사에서 첫 시작, 전국으로
전문상담가 기초 과정 '전문화'
"자신을 사랑하는 자비심 필요"

대강좌에는 범어사 포교국장 효산 스님과 이범수 불교상담개발원 부원장이 참여해 격려했으며 사부대중 100여명이 참석했다.

효산 스님은 "불교상담개발원은 불교사회 기여 활동에 선구자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며 "현대 사회에 중요한 가치를 제안하는 강좌와 활동이 앞으로도 계속되길 바란다. 범어사에서는 앞으로 사회 참여 활동을 위해 일요법회와 연계해 생명존중 자살예방 운동에 동참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불교상담개발원은 대강좌와 함께 범어사 금정불교대학에서 '자살예방 교육상담 전문가 양성교육'을 9월 29일, 10월 13일과 20일 총 3차례에 걸쳐 실시해 전문화에 앞장섰다. 자살예방 교육상담 전문가 기초 과정은 자살예방 이론과 자살 위기자의 감정 및 정서 조절에 대한 내용 등 구체적인 자살현상 이해 교육이 실시됐다.

강좌에 참석한 불자들은 "자살예방과 생명존중 문화 확산은 불교가 사회 참여 활동을 통해 이뤄내 내야 할 사명이라 생각한다"고 행사를 반겼다.

이명순(55 · 청룡동) 씨는 "강좌 내용은 쉽게 풀어 설명해 알아듣기 좋았고 나 자신을 존귀하게 여기는 마음을 다시 한 번 돌아보는 계기가 됐다"며 "불교 사회 역할이 더 확장되고 생명을 소중하게 여기는 선한 마음을 일깨우는데 노력해 주시면 좋겠다"고 바람을 전했다. 김미순(45 · 청룡동) 씨는 "좋은 강좌를 열어 주셔서 감사한다"며 "자살은 없는 밝은 세상을 위해 기도하고 싶다"고 전했다.

불교상담개발원에서 추진하는 '생명 함께 더하기 실천 사업'은 2017년 보건복지부 공모사업이며 범어사를 시작으로 전국 사찰과 연계해 확산한다는 방침이다. 다음 강좌는 광주 증심사와 자비신행회 공동으로 11월 4일 자살예방전문가 교육을 실시한다.

하성미 기자

부산불교 "사명대사 호국 정신 감사"

사명대사 407주년 추모대재 봉행



부산불교연합회(회장 경선)는 10월 15일 부산 초읍 어린이대공원 내 사명호국광장에서 열반 제407주기 추모대재를 봉행했다.〈사진〉

회장 경선 스님은 "사명대사의 호국은 백성을 사랑한 애민이었다"며 "사명대사는 누구보다 중생을 사랑하고 아낀 자비보살의 화신이었다"고 대재사를 전했다. 추모대재에는 회장 경선 스님을 비롯해 수석부회장 세운 스님, 상임부회장 심산 스님, 박대성 부산불교연합신도회장 등 사부대중 300여명이 동참했다.

하성미 기자

종교와 문화예술이 하나로 뭉쳤다!

청량사, 10월 15일 '달빛 차 평화 음악회'



공동선실천부산종교지도자협의회(회장 정여)와 (사)향기로운 문화동행(이사장 보혜)이 공동으로 '달빛 차 평화 기도회 및 음악회'를 기장 청량사서 10월 15일 개최했다.〈사진〉 이날 6대 종교인들은 종교 화합과 한반도 평화를 위해 기도했으며 공동기도문을 낭독했다.

정여 스님은 "종교 간의 사랑과 자비를 만들어 가는 소중한 자리"라며 "사랑과 자비는 모든 인류를 행복과 평화로 이끌어 갈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사)향기로운문화동행은 '제2기 기장 차문화대학' 졸업식과 북카페 '야단법석' 현판식도 함께 진행했다.

하성미 기자

에밀레전, 신라의 혼을 일깨우다



BBS불교방송은 신라왕국체험축제 제6회 '신라소리축제 에밀레전'을 10월 13~15일 경주 첨성대 잔디광장에서 열었다.〈사진〉

이번 축제는 중국과 일본, 유럽의 전통 종을 만나볼 수 있는 자리였다. 특히 국보와 보물 등 100여개 신라유물들을 최첨단 3D홀로그램쇼로 재현한 것은 방문객들의 큰 호응을 얻었다.

BBS 대구불교방송 사장 법일 스님은 "우리의 소리문화를 재인식하고 신라의 혼과 경북의 혼을 일깨우는 노력이 곁들어진 정신문화행사"라면서 "앞으로 우리의 전통문화유산에 옷을 입히고 창조적 스토리를 더해 경주를 대표하는 축제로 발전시킬 것"이라고 환영했다.

손문철 대구지사장

불국사, 역대 중흥조 추모 영산재 봉행



토암산 불국사(주지 종우)는 10월 14일 경내 범영류 앞에서 불국사를 창건하고 중흥시킨 5명의 역대 조사들을 염원하고 기리는 제45회 영산재를 봉행했다.〈사진〉 이날 자리에는 사부대중 500여 명이 참석했다.

1부 영산재는 육법공양과 헌화, 법어추모사, 봉향제문 낭독, 범패 등의 순으로 진행됐다. 2부 기원대재는 헌향 및 삼배, 기원문 낭독, 금강경 독송, 살풀이춤, 축시, 퓨전국악, 홍순지의 명상음악 등으로 이어졌다.

손문철 대구지사장

사하불교연합회 불자의 밤 한마당

부산 사하구불교연합회(회장 혜우)는 10월 13일 약수사에서 '제5회 사하구민을 위한 사하불교 불자의 밤 한마당'을 개최했다.〈사진〉

행사 1부에서는 지역민을 위해 노력 봉사한 봉사자 표창과 봉행사 및 격려사 순으로 진행됐다. 이어 2부에서는 가수들의 화려한 무대와 상품 추천으로 지역민에게 즐거움을 선사했다.

회장 혜우 스님은 "부처님께서는 너와 내가 다르지 않다는 자타불이의 가르침을 설파하셨다"며 "사하구불교연합회는 앞으로도 부처님의 가르침을 이어갈 것"이라고 다짐했다.

하성미 기자



지구촌공생회, 경남에 자비의 문 열다

10월 17일 가야백화점 2층에 경남지부 개소



지구촌공생회는 10월 17일 창원시 마산합포구 구 가야백화점 2층에 지구촌공생회 경남지부를 개소했다. 초대 지부장에는 김영미 창원시의회 의원(아래 줄 오른쪽에서 3번째)이 추대됐다.

국제개발협력NGO 지구촌공생회가 경남 지부를 개소하고 부산, 창원, 마산 등 경남 일대에서 자비의 창구로 도약할 것을 다짐했다.

지구촌공생회(이사장 월주)는 10월 17일 창원시 마산합포구 구 가야백화점 2층에 지구촌공생회 경남지부를 개소하고 초대 지부장에 김영미 창원시의회 의원을 추대했다.

개소식에는 지구촌공생회 이사장 월주 스님을 비롯해 창원시의회 김하용 의장과 김종대 부의장, 정구창 창원부시장, 경남도의원, 창원시의원 등 100여명이 참석해 출발을 축하했다.

월주 스님은 "창원시는 국제교육 해외 공적개발원조 사업의 일환으로 2012년 캄보디아 창원국제교육협력센터를 건립하고 지구촌공생회와 협력 관계를 맺었다. 그 후 지금까지 각별한 인연을 유지하고 있다"며 "인류에 대한 자비 실천에 뜻을 함께 하고 창원시에 경남지부를 설립하게 되어 기쁘다"고 격려했다.

김영미 경남지부장은 "캄보디아에 방문 했을 때 만난 어린이들의 맑은 눈빛이 아직도 마음에 남아 있다"며 "앞으로 지구촌공생회와 협력해 경남도민의 온정이 아시아를 넘어 전 세계에 확산될 수 있도록 중추적 역할을 담당할 것"이라고 취임사를 밝혔다.

이어 "국제교류사업을 선도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창원시 및 관련기관과 협력하고 발전 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영미 창원시의회 의원은 지방자치단체 최초 ODA사업(Official Development Assistance, 정부개발원조)을 설립해 2014년 주정부로부터 공립학교로 인가받은 캄보디아 '창원국제교육센터'를 견학했다. 아울러 캄보디아 따께오주 주민들의 경제적 상황을 직접 눈으로 확인하고, 창원시 기증물품을 전달하는 행사를 진행하는 등 국제 지원사업에 앞장서 왔다.

현재 지구촌공생회는 창원시와 협력해 캄보디아 창원국제교육협력센터 운영과 지역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하성미 기자

피부·치아건강제

불 보살님의 기도, 가피, 지혜 원력으로
건강하시기를 기원하며, 회향공덕하는 마음으로
불자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되도록
국내산 자연식용재로 준비하였습니다.

스님, 불자님, 충치, 풍치, 시린이, 치주염, 치석, 잇몸출혈, 흔들리는이, 입냄새, 담배냄새, 혀백태, 입안건조, 임플란트 틀니 하시고 잇몸 아프신 분, 탈모, 비듬, 얼굴 기미, 손발톱 무좀, 각질, 습진, 전신잡티, 낭습진, 피부아토피, 알레르기, 벌레, 풀독, 모기 물리고 머리염색 후 가려움증, 상처, 비염, 화상(즉시 여러번 사용 물집안생김), 백반증, 노화성피부건조 등 피부 치아가 건강치 못한 분들 연락주시면 3개월 사용분을 보시합니다.

문의 및 보시처 안산 법흥사 개운 합장 010-6332-6070

양지국악사
사찰전통 大법고 · 법당천도법고 · 태징 · 목어




대북


태징


2자

서울매장 : 서울시 종로구 돈의동 46-1번지 02)3673-3442 / 764-2159 / 010-5264-3906
하남공장 : 경기도 하남시 하산곡동 445번지 031)793-3906
계좌번호 : 농협 221098-52-250376 조남양

대한명인 제14-406호 대고제작
www.yangjikukak.com

생명 에너지를 굳건히 지키면
약이 입에 이르기 전에
병이 낫는다
환인동 요가마을



민속죽염 30년전통
조상의 얼과 혼이 담긴 우리 민족의 대표죽염

인체건강의 4대 요소는 "맑은 물, 맑은 공기, 맑은 음식, 질 좋은 소금"인데 이 중 "질 좋은 소금" 자색죽염은 총 아홉 번의 가열 과정을 거쳐 독성의 완전 제거와 약성의 완전 합성이 이루어지며 마지막 아홉 번째는 극강한 열에 의한 용융과정을 거쳐 탄생된 품질이 가장 우수한 죽염입니다. 이 죽염은 다음과 같은 기능이 있기에 일반인 및 환자들에게 꾸준한 섭취를 권장 할 수 있는 좋은 식품이라 할 수 있습니다.

(1) 강한 해독작용을 하며 간 기능을 좋게 한다.
(2) 소염작용을 하며 잇몸과 치아를 튼튼하게 해 준다.
(3) 위장을 튼튼히 하며 식욕을 촉진시킨다.
(4) 정혈작용 등 체질개선에 도움을 준다.

※ 죽염을 꾸준히 섭취하시면 인체의 자가 면역력이 놀라워 감기 등 기타 질병 예방에 크게 도움이 됩니다 ※



9번 구운

가루	자죽염	125g	40,000원
가루	자죽염	230g	73,000원
알갱이	자죽염	125g	43,000원
알갱이	자죽염	230g	78,500원
휴대용 알갱이 자죽염		20g	7,500원

(단체 선물용으로 적합합니다.)

2번 구운 (음식조리용 · 양치용 · 피부미용)

보급형 민속죽염	500g	18,000원
	250g	9,000원

구입가 5만원 미만은 배송비 3천원 적용됩니다.

※ 자죽염 구매시 사은품 (휴대용 알갱이 자죽염 10g) 증정. 회원우대

주문 및 상담 : 010-2823-0483
입금 : 농협 150012-56-086122 예금주 : 김용희(민속죽염)
경북 영덕군 지품면 속곡동 54번지 www.msjy.co.kr

송광사, 금강산림 대법회 입재

12월 5일까지 매주 특별법문



조계총림 송광사(주지 진화)는 10월 17일 사자루에서 '제13회 금강산림 대법회' 입재식을 봉행했다.〈사진〉 금강산림 법회는 매년 송광사에서 봉행하는 열린 강좌 형식의 법회로 올해에는 송광사 방장 보성 스님, 지운 스님(前송광사 강주), 영명 스님(신행선원장), 혜자 스님(도안사 회주 · 군종교구장), 현진 스님(통도사 승가대학장), 현응 스님(조계종 교육원장), 무상 스님(조계종 호계원장), 지현 스님(송광사 율주) 등이 강사로 나서 매주 특별법문과 함께 49일간 매일 영가천도 의식을 봉행하고 12월 5일 회향한다.

17일 열린 입재식에는 500여 명의 사부대중이 참여한 가운데, 조계총림 유나 현묵 스님이 방장 보성 스님을 대신해 법석에 올라 법문을 진행했다.

현묵 스님은 금강산림 대법회를 시작하면서 법회의 의미를 되새기는 한편, 불자들의 수행을 독려했다. 스님은 "모든 분별과 망상은 허망한 것"이라며 "생각을 일으키기 이전에 본래 있는 것이 아닌 줄 알고 근본 자리를 보면 보는 즉시 부처님을 친견하는 자리가 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현묵 스님은 또 "〈금강경〉은 무상정각의 의미를 담고 있다"며 "육조 스님 말처럼 일념 일념으로 참구하면 도달하는 일이지만, 말처럼 쉬운 일이 아니기에 이런 법회를 통해 정진하는 마음을 챙기고 점검하는 시간을 가지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양행선 광주전남지사장

설씨부인 공덕, 연극으로 기려

순창 강천사, 제1회 명상예술제



가을 단풍이 아름다운 순창 강천사(주지 종고)가 첫 번째 명상예술제를 개최했다.〈사진〉

10월 14일 강천사 만세루에서 열린 명상예술제는 조선왕조 최초의 여성문장가이자 광덕산 부도암(현재의 강천사)을 중창하기 위해 보물 728호 〈설씨부인 권선문〉과 화첩을 지은 설씨부인의 공덕을 기리는 내용으로 꾸며졌다.

강천사 명상예술제가 펼쳐지는 강천사 도량 곳곳에는 손바느질 시연, 다도체험, 다도와 춤 그리기 등의 체험행사가 열렸다. 또 선 불교무용단체인 금비예술단(단장 전영순)은 직접 각색하고 연출한 창무극 '설씨부인 춤으로, 그리고 잇다'를 선보였다.

명상예술제에 앞서 진행된 기념식에는 前선운사 주지 법만 스님, 총무국장 심학 스님, 기획실장 대선 스님, 순창사암연합회장 청암 스님을 비롯한 지역스님과 황숙주 순창군수, 순창 설씨 종친들과 각급 기관장들이 참석했다.

조동제 전북지사장

동아시아 古都를 논하다

백제세계유산센터, 10월 18~20일 학술대회

백제역사유적지구 세계유산 등재를 기념하는 학술대회가 열렸다.

(재)백제세계유산센터(이사장 남궁영)는 10월 18일부터 20일까지 롯데 부여리조트 사비홀 등지서 '동아시아의 세계유산 그리고 고도'를 주제로 국제학술대회를 개최했다.

총 3부의 기조강연을 비롯, 9회의 주제발표와 종합토론으로 진행된 대회는, 한국전통문화대학교 총장을 역임한 김병모 교수의 '동아시아의 세계유산 그리고 고도'라는 기조강연을 시작으로, 2부 '세계유산과 고도의 연계방안'에 대해서 발표와 종합토론이 이뤄졌다.

19일 오전에는 학술대회 3부 '세계유산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대한 발표와 종합토론이 진행되며, 한필원 한남대 교수의 '한국 세계유산의 보호 · 관리 및 홍보 · 활용 현황과 과제'에 대한 발표와 토론을 하고, 2부 행사인 18일 오후에는 일본 나라문화재연구소 운노 사토시의 '일본의 세계유산 나라의 현재 · 미래와 동아시아'에 관한 발표와 토론이 이어졌다. 신성민 기자

"중생심 버리고 출가수행자로"

태고종 수계산림 회향
사미(니) 총 48명 배출



수계산림을 마친 행자들이 삼사 · 칠증사에게 연비를 받으며 출가사문으로서의 원력을 되새기고 있다.

한국불교태고종(총무원장 백운)의 새로운 출가수행자 탄생을 알리는 '제42기 합동득도 수계산림 회향법회 및 수계식'이 10월 18일 순천 선암사 금강계단에서 열렸다. 이날 수계식을 통해 48명(사미 33명, 사미니 15명)의 스님이 탄생됐다.

월조 스님(선암사 교무국장)의 인례와 인산 스님(총무원 교무국장)의 집전으로 시작된 법회는 타종, 종사이운(종정, 삼사 · 칠증), 삼귀의, 반야심경, 선조사 스님에 대한 묵념, 청법게, 종정 법어, 경과보고 등으로 1부가 진행됐다.

종정 혜초 스님은 법어를 통해 "오늘 수계하시는 행자 여러분들에게 3개월 동안 수고 많이 했다는 칭찬을 드리고 싶다"며 "불교의 큰 뜻은 악한 일을 하지 말고 착한 일을 권장해 수많은 중생을 위해 살아가는 것"이라고 당부했다.

이어 열린 수계산림 교육 우수자 표창식에서는 최우수상(총무원장 시상)에 도훈(오일록) 행자, 우수상(정수원장)에 법우(김춘호) 행자, 봉사상에 건휴(최준원) 행자, 모범상에 지현(이호복) 행자가 각각 선정됐다.

스님이 되기 위한 수계의식은 행자들의 호계합장과 삼사 · 칠증을 모시는 것으로 시작됐다. 수계자들은 3배를 올린 뒤 호궤합장 하며 "원컨대 큰스님은 수계본사가 되어 주소서. 저희들은 덕 높으신 큰스님을 의지해 사미(니) 십계를 받사옵고 부처님의 올바른 불제자가 되겠사옵니다"라고 청사를 올렸다.

이날 삼사는 전계아사리 총무원장 백운 스님, 갈마아사리 종회의장 설운 스님, 교수아사리 호법원장 지현 스님이 참여했다. 행자들은 10가지의 계를 청하고 이를 지키겠다고 맹세하는 3배를 했으며, 행은(임동묵) 행자의 대표삭발에 이어 참회진언 합송과 연비가 진행됐다.

십계에 대한 다짐과 연비가 끝난 행자들은 첫 가사를 착의하는 의식을 통해 어엿한 스님으로 거듭났다. 정대게가 울려 퍼지는 가운데 48명의 수계대중은 태고종의 상징인 홍가사를 수하며 출가수행자로 탄생했다.

한편 이날 새로운 스님으로 탄생한 수계자들은 지난 7월 20일 입소를 시작으로 사미율의, 기초습의, 초발심자경문, 부처님 생애 및 기초교리, 예경 및 의식습의, 종지 · 종풍과 종단사, 울력 등의 교육프로그램을 이수했다. 특히 수계식 전날 삼보일배를 통해 수행자로서의 염원을 간직했다. 계를 받은 사미, 사미니는 향후 선암사 강원과 동방불교대학교, 중앙승가강원 등에서 수학할 수 있다.

양행선 광주전남지사장

광주영산재 문화재 가치 알리다

전통불교영산재보존회
광주영산재 보존시연회



영산재 시연회에서 화려한 영산작법무를 선보이는 스님들.

(사)광주전통불교영산재보존회(회장 월인)는 10월 15일 광주 서구문화센터에서 '제13차 전통불교영산재 보존시연회'를 열었다. 광주시 무형문화재 제23호로 지정된 '광주영산재'의 시연을 위한 이 행사는 불자들과 시민들에게 영산재를 알리는 역할을 하고 있다.

행사에는 지암 스님(태고종 원로의원)을 증명법사로 혜령 스님(율곡사 주지 · 범음 이수자), 월인 스님(작법 이수자), 호산 스님(곡성 무각사 주지 · 바라 이수자)을 비롯해 전수생과 임우진 서구청장, 신도 등 200여 대중이 동참했다.

행사는 연(輦)에 모셔진 영가를 도량으로 인도하는 시련과 영가를 부처님의 위신력과 감로의 법으로 깨끗이 씻기는 대령관욕이 이어졌다. 본격적인 법회의 식인 상단권공과 가장 화려한 작법무인 나비춤, 바라춤이 진행되자 참석한 대중의 탄성이 터져 나왔다. 이어 신중단 기도를 하기 위한 중단퇴공과 불법을 옹호하는 신중을 청해 모시는 관음시식은 법회의 백미를 장식했다.

행사를 준비한 월인 스님은 시연에 앞서 인사말을 통해 "후학교육을 위해 전수관을 추진하고 있다. 전수관을 통해 불교계에서 영산재가 문화유산으로 길이 보존되길 기원한다"고 말했다.

한편 봉서사와 서울 봉원사 영산작법을 전수받은 광주전통불교영산재보존회는 지난 1992년 창립됐다. 매년 시연회와 연수교육, 정회원 교육 등을 진행하고 있으며, 5.18민주항쟁 희생자 위령제와 노무현 대통령 서거 전야 위령제, 빛고을관등회 시연 등 왕성한 활동을 펼쳐왔다. 이 같은 활동으로 2014년 7월 24일 광주시 무형문화재로 등재돼 현재 후학양성을 위한 전수교육 등을 진행하고 있다. 양행선 광주전남지사장

공군 호국 충렬사
군 장병 위문법회

여산 법사, 바비큐파티 제공

공군 8325부대 호국 충렬사(지도법사 여산 김윤봉)가 부대안전과 장병들의 안전한 군복무를 기원하는 위문법회를 봉행했다.

10월 18일 부대 체력단련장에서 열린 이번 위문행사는 부대장 정지웅 소령을 비롯한 부대관계자, 군인 가족, 장병 등 150여 명이 동참했다.

이날 위문법회에서 장병들을 위해 바비큐 파티를 제공한 김윤봉 법사는 인사말을 통해 "매우 어려운 시기에 군 복무 중인 장병여러분들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며 "부처님의 가르침에 따라 나라와 국민을 위해 봉사한다는 마음가짐으로 군 복무에 임해달라"고 당부했다.

정지웅 부대장은 "최근 북한의 연이은 도발로 인해 긴장을 늦추기 않고 영공수호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장병들을 위해 자리를 마련해준 불교관계자들께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공군 호국 충렬사는 과거 봉수대가 있던 군사적 요충지로 서해 영공을 책임지고 있다.

조동제 전북지사장

광주외국인복지센터
한국어 말하기 대회

온판비세스 씨 대상 수상

외국인 근로자를 위한 한국어 말하기대회가 열렸다.

광주외국인복지센터(센터장 이주성)는 10월 15일 하남산업관리공단 대강당에서 외국인근로자 25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제4회 외국인 근로자 한국어 말하기 대회'를 개최했다.

1차 심사를 거쳐 2차 본선에 오른 9개국 총 15명이 참여한 결선대회에서는 온판비세스(캄보디아) 씨가 '한국말을 배워야 합니다'라는 주제로 발표해 대상의 영예를 안았다. 최우수상은 대보(동티모르), 우수상은 파우지(인도네시아) 씨가 각각 수상했다.

이주성 센터장은 인사말을 통해 "한국사회는 다양한 사람들이 살아가면서 다른 문화가 함께 공존하는 사회로 변화하고 있다. 이번 행사는 서로의 문화를 존중하고 차별과 소외받지 않고자 하는 의미를 담았다"고 말했다.

비전사 주지 보혜 스님은 축사에서 "올바른 한국어 사용을 통해 사회통합과 더불어 일하는 사업장에서 불편함을 줄일 수 있는 계기가 되길 기원한다"고 전했다.

양행선 광주전남지사장

봉 행

사단법인 한국불교선조계종
창종 4주년 기념법회

귀의 삼보하옵고
본 종단은 창종4주년기념법회 및 종정 이.취임식을 봉행함을 제방에 사룁니다.

종 정 : 예호당 법경
원로의장 : 정인 원 로 : 지선.혜원.월현.정광
총무원장 : 법성 종회의장 : 법륜
문화원장 : 혜관 포교원장 : 보덕 호법원장 : 도원
비구니원장 : 진언
고시위원 : 정인.혜관.정광.도원.법원
종회의원 : 법경.정인.월현.정광.법성.법륜.혜관.보덕.법원.도원.진언
종회임원 : 법정.정운.지산.법안.해운.도현.무상.향적.청담
법인.정인.해산.법일.성본.고산.도경.황산.청인
원경.법진.지호.도선.공태건.광명화

■ 일 시 : 2017년 10월 31일 (음력 9월 12일) 화요일 오전 10시 30분
■ 장 소 : 부산광역시 북구 덕천동 132-13 성원사

종 도 모 집

문화관광부 허가 2010-4호 등기번호 001856

사단법인 한국불교선조계종은 교육을 중심으로 부처님의 설법하신 법문을 모아놓은 경장과 수행자가 지켜야할 율장과 부처님의 대를 이어 깨달음을 얻은 조사 스님들이 모아놓은 논장 경.율.논 삼장인 불.법.승 경전과 범음범패를 교육하는 종단으로 새롭게 태어날 것입니다.

본 종단과 뜻을 함께 하고져하는 재방의 뜻있는 대덕 큰스님과 종도 여러분을 모시려고 하오니 적극적인 동참 바랍니다.

■ 입종서류 : 주민등록증사본, 반명함판, 사찰사진
■ 총 무 원 : 대구광역시 북구 작원길9 성불사
■ 문 의 : 전화 053)322-0567
H·P 010-6537-0567

사단법인 한국불교선조계종 총무원 대구시 북구 작원길 9 전화 053)322-0567 / 010-6537-0567

분노, 맞서지 말고 불교로 '해독' 하자

미국 언론들, '분노의 시대' 대안으로 불교 '주목'

미국 대통령 트럼프는 취임 이후 줄곧 '미국 우선주의'를 내세우고 있다. 올 1월 취임 연설에서부터 "미국의 새 비전은 미국 우선주의"라고 말하며, 통상 · 외교 · 국방 등 국정 전 분야에서 미국의 이익을 최우선시하는 정책을 공언한 것. 이에 대해 수많은 미국 각계 인사들은 "다문화 · 다인종 시대에 맞지 않는 발언" "'배척'은 종국에 분노와 보복을 낳을 것"이라며 트럼프를 비판하기도 했다.

이 가운데 최근 라스베이거스에서 1명의 총기난사로 58명이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최악의 총기 난사 테러로 인해 미국 사회 내 분열 조짐이 나타나고 있다. 사람들은 1명의 분노가 여러 사람의 생명을 앗아갈 수 있는데 극한 공포를 느끼며, 테러를 가할 위험이 있는 대상을 '더 배척해야한다' 또는 '포용해야한다'는 의견이 팽팽히 맞서는 분위기다. 이런 상황 때문일까, 미국 언론은 자주 미국의 지금 시기를 '분노의 시대(angry times)'라고 칭한다.

부처님은 이런 상황에서 어떤 가르침을 주셨을까. 때 아닌 불교 붐이 다시 일고 있는 미국에서는 분노에 분노로 함께 맞서는 것이 아닌, '불교로 해독하자'는 여론이 모아지고 있다.

미국 언론 '가디언'은 10월 13일 불교가 우리의 분노를 해독해줄 것이라고 말하며 불교에 주목했다. 세상을 전자기기 스크린 너머로 접하는 우리는 내적 본질을 파악하는 힘이 떨어졌고, 이를 해독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 해독법으로 불교를 제시하며 "불교는 상대의 본질에 집중하게 하고 자신의 내면을 관하는데 도움을 주기 때문에 꼭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미국 언론들이 현재 미국은 '분노의 시대'라며 정세를 다스리기 위해 불교의 도리를 공부해야한다고 보도했다. 사진출처=뉴스그램

분노에 분노로 대응하는 사회서
내면 觀에 도움되는 불교 해법
'가디언' 공(空)사상과 명상 제시
뉴스그램 "3독 · 5계 유념하라"

특히 불교의 '공(空)'사상에 주목했다. '가디언'은 "사실 우리는 모두 텅 빈 존재다. 아직 완전히 이해하지는 못했지만, 그 의미를 한번 고민하는 것만으로도 감정을 다스리는데 도움이 된다. 나도 텅 비었고, 상대도 텅 비었기 때문에 화를 내는 것조차 무의미한 것이라고 판단된다"며 "우리는 자신의 '내적 자아'를 투영해 상대를 본다. 상대가 미워지거나 나쁜 감정이 생길 때 해결책은 나를 바라보는 것이다. 불교가 어렵다면 명상부터 배워보라"고 권했다.

다른 미국 언론도 불교를 해결책으로 제시하고 나섰다. '뉴스그램'은 같은 날 부처님을 언급하며, 불교의 도리에 따른다면 모두 편안한 삶을 살 수 있을 것이라고 보도했다. '뉴스그램'은 우선 3독(三毒)을 설명했다. 탐욕(貪欲) 진에(瞋恚) 우치(愚癡)를 일컫는 말이다. 탐욕은 탐내어 그칠 줄 모르는 욕심을 말한다. 진에는 노여움이며 우치는 어리석음이다. 부처님께서는 이 3가지 번뇌가 중생을 현혹한다고 말했다는 것이다. '뉴스그램'은 "이 3독을 알고, 3독에 사로잡히지 않도록 늘 경계해야한다"고 말했다.

이어 새겨야 할 부처님의 말씀으로 5계를 언급했다. △불살생(不殺生) △불투도(不偸盜) △불사음(不邪婬) △불망어(不妄語) △불음주(不飮酒)가 5계에 해당한다. 이는 각각 △살아 있는 것을 죽이지 않는다 △도둑질하지 않는다 △아내 이외의 여성, 남편 이외의 남성과 부정한 정교를 맺지 않는다 △거짓을 말하지 않는다 △술을 마시지 않는다는 의미를 갖는다.

'뉴스그램'은 "3독을 멀리하고 5계를 따른다면 위협이 많은 정세에서도 편안한 상태를 유지하고 스트레스를 받지 않을 수 있다"고 전했다.

박아름 · 박진형 기자

태국 불교계, '검은 돈' 내막 드러났다

前 방콕불교연맹 대표 횡령 혐의 '덜미'
한화 약 810억원 가량 현금 · 현물 적발

태국 국가 불교연맹의 검은 돈 내막이 드러나 한차례 폭풍우가 예상된다.

방콕 국가 불교연맹이 부패사건에 연루됐다고 '방콕포스트'가 10월 14일 보도했다. 노파라트 벤야와타나눈(Nopparart Benjawatananun) 불교연맹의 전(前) 대표가 국가 지원금이던 사찰재산을 횡령한 것이 밝혀지면서 이 문제는 불거졌다. 현재 불교연맹의 재산은 압류될 위기이며 노파라트는 경찰 조사를 받는 중이다.

노파라트는 약 7100만 바트(한화 약 24억 원)의 국가 불교연맹 자산을 횡령한 것으로 조사됐다. 함께 돈을 횡령한 공모자도 현재 8명 밝혀진 상태다. 이들은 국가 예산으로 사원 기금을 먼저 받은 뒤 노파라트나 그의 측근들에게 돈을 건네준 혐의를 받고 있다. 또한 약 23억 바트(한화 약 785억원) 가치의 현물 25점도 압수돼 경찰이 현재 그 출처를 찾는 중이다.

꾸준히 있어온 횡령 비리는 정치적 반대세력의 폭로로 드러나게 됐다. 사건을 조사하는 담당자는 "수많은 불법 자금이 계속해서 발견되고 있다. 자산이나 현물 뿐 아니라 주식 등을 통해서도 불법 자금을 마련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경찰은 추가 조사에 돌입했다.



방콕불교연맹의 횡령혐의가 불거졌다. 방콕 현지 경찰들은 현재 23억 바트(한화 약 285억 원) 가치의 현물 25점을 압수했으며 계속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사진출처=방콕포스트

현지는 이런 사태에 부정적인 반응을 보이며 개인의 문제가 아닌 단체의 문제로 봐야한다는 분위기다. 무릇 불교단체라면 부처님의 뜻을 포교하고 세상을 부처님의 손길로 보듬는데 힘써야 하는데 세속적 문제로 도마에 올라 유감이라는 의견이다.

박진형 기자 realjeanp@hyunbul.com

불자 작가 조지 손더스, 맨부커상 수상

〈링컨 인 더 바르도〉로 올해의 수상자 거머쥐

세계 3대 문학상으로 꼽히는 영국 맨부커상의 올해 수상자로 불자 작가인 조지 손더스(58)가 선정됐다고 '라이언스로어' 등 외신이 10월 17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미국인이 이 상을 받은 것은 이번이 2번째로, 첫 번째 수상자는 미국 인종문제를 풍자한 작품 〈셀아웃〉을 쓴 폴 비티였다.

맨부커상 심사위원회는 조지 손더스의 첫 소설 〈링컨 인 더 바르도(Lincoln in the Bardo)〉의 내용과 형식면에서 독창성을 높이 평가한 것으로 알려진다. 롤라 영 맨부커상 심사위원장은 "작품이 매우 획기적이고도 독보적이었다. 재치 있으면서도 지적이다. 작품 속 '거의' 죽은 영혼들에게 역설적으로 생동감을 부여했다"고 선정 이유를 밝혔다.

〈링컨 인 더 바르도〉는 에이브러햄 링컨의 11살 아들 윌리의 죽음을 영혼들의 목소리로 기록한 책이다. '바르도'는 티베트 불교에서 죽음과 환생 사이의 시간을 일컫는 말이다. 손더스는 링컨 대통령이 1862년 워싱턴의 한 묘 앞에서 아들 윌리의 시신을 안고 오열했다는 실화를 바탕으로 소설을 구성했다. 손더스는 '라이언스로어'에 "불교 경전을 읽었을 때 '바르도'에 대해 알게 됐다. 그것은 일반적인 영혼 이야기에 대한 인식을 뒤엎을 만큼 흥미로웠다"고 설명했다.



영국 맨부커상의 올해 수상자로 불자 작가인 조지 손더스(58)가 선정됐다. 사진출처=라이언스로어

조지 손더스는 수상 소식을 들은 후 "매우 큰 영광이다. 남은 인생과 그 안에 써갈 작품들이 이 상에 부합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한편 맨부커상은 노벨문학상, 프랑스 공쿠르 문학상과 함께 세계 3대 문학상으로 일컬어진다. 지난해에는 한국 작가 한강이 저서 〈채식주의자〉로 인터내셔널 부문을 수상한 바 있다.

박아름 기자 pak502482@hyunbul.co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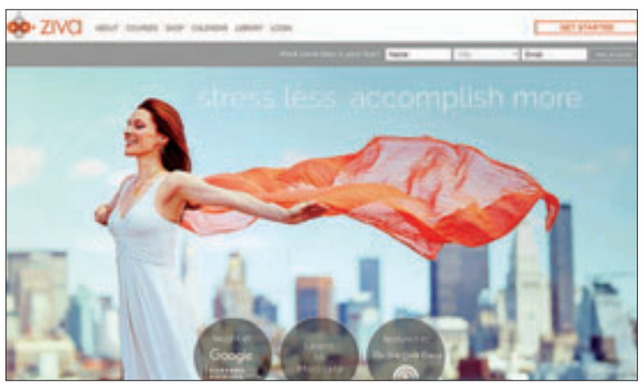
브로드웨이 스타, '명상지도자'로 탈바꿈

美 출신 여배우 에밀리플랫츠, 뉴요커 대상 명상 지도

뉴욕 브로드웨이에서 댄서이자 가수로 활약한 한 여배우가 명상 강사로 나서 눈길을 끈다.

에밀리 플랫처는 뉴욕 브로드웨이 무대에서 10년간 춤 · 노래 등의 공연으로 활약한 배우다. 그는 뉴욕 소호에 '지바 마인드(Ziva Mind)'라는 명상센터를 차리고 뉴요커들을 대상으로 명상을 지도하고 있다. 특히 그는 미국 4대 엔터테인먼트 상인 TV의 에미상(Emmy), 음악의 그래미(Grammy), 영화의 오스카(Oscar), 연극의 토니상(Tony)을 수상한 예술인들을 대상으로 명상을 지도한다.

그가 명상을 접하게 된 계기는 20대 시절로 거슬러 올라간다. 플랫처는 브로드웨이 뮤지컬 '코러스 라인(A Chorus Line)' 공연 기간 동안 공연자들이 아플 경우 무대에 오르는 대역을 맡았다.



뉴욕 브로드웨이에서 댄서이자 가수로 활약한 한 여배우가 명상강사로 나서 눈길을 끈다. 사진은 에밀리플랫처가 운영하는 '지바 마인드' 명상센터 공식홈페이지. 출처=zivameditation.com

그는 "대역 준비를 해야만 했던 당시 상황이 나를 명상으로 이끌었다. 브로드웨이에서 내게 주어진 배역도 없었고, 어떤 역할을 해야 할지 모르는 불안한 상황이었다"며 "불면증에 시달렸고 26세임에도 불구하고 흰머리가 났으며 점점 상황은 악화됐다. 그러나 명상을 접한 이후로 나는 브로드웨이에서 꿈을 펼치며 살고 있고 어릴 때부터 이루고 싶었던 것을 하면서 보내고 있다"고 설명했다.

플랫처가 방황하던 당시 동료 배우가 명상을 권유했지만, 그는 처음에 회의적인 반응을 보였다. "처음 명상에 대한 이미지는 저에게 히피들의 전유물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실용주의자였던 플랫처는 명상을 시도했고, 그의 삶이 즉시 개선되고 편해지는 것을 느꼈다.

플랫처는 "명상 후 곧바로 좋아짐을 느낀 나는 '왜 사람들은 명상을 하지 않을까?'라는 의문을 갖기 시작했다. 그 뒤로 나는 브로드웨이를 벗어나 인도로 향했다"며 "3년간 명상을 지도하는 과정을 이수한 뒤 명상센터를 열게 됐다"고 덧붙였다.

플랫처는 온라인 강의와 개별강의를 열어 명상에 회의적인 생각을 갖는 이들에게 명상의 장점을 소개한다. 그는 "스트레스는 우리를 바보로 만든다. 명상에 회의적인 이들은 일단 명상을 시도할 것을 추천한다"고 강조했다.

이보형 객원기자



* 본 지면 광고는 본지와 일체 책임 관계가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생활안내

▷ 문 의 : 02) 2004-8214 / FAX 02)737-0696 / e-mail : jabi1522@hyunbul.com
▷ 가 격 : 1회 1Box (4.3×5.0) 4만원, 1회 1Box (8.7×5.0) 8만원
▷ 마 감 : 매주 월요일 ~ 수요일. 수요일까지의 입금 기준으로 광고 게재됩니다.
▷ 계 좌 : 농협 053-01-269088 / 국민은행 222-25-0005-381 (예금주 : 주식회사 현대불교신문사)

【금주의 법어】

오온(육신, 감각, 지각, 의지, 분별)의 집착은
그 뿌리를 갈망에 두고 있느니라.

- 잡아함경 -



천도재 구병시식 49재
수시 접수 中
태중 아기 영가 (낙태 유산)
49재 천도 전문도량
서울시 노원구 중계4동 약천사 자운 합장
02)3391-8523
010-9002-8523
빙의 치료 전문

불교범음범패 교육도량
학인모집 실전위주교육
범음범패 바라 나비무 회심곡
사찰행사전문
천도재 49재 점안식 회심곡
011-9317-6686
「유투브」에서 대명스님를치세요!
대명 합장(부산)

무형문화재 학인모집
부산시 무형문화재 제9호
영산재작법 천수바라연수원
염불 사물. 승려증 발급 종단
- 특별반 3개월 과정 모집
제9호 영산재 작법무, 천수바라
사찰행사 전문
(사)대한전통불교예술대학
전통불교조계종 총무원 영축사
010-5511-7000

허리병 고치는 법 배울 분
2대째 이어온 기술 발명특허
아픈분 한번만 오시면 해결가능
7일이면 호전상태 가능
스님은 기술전수 특별대우
네이버 검색「허리선생 혜경」클릭
50년전통 010-3829-7582

역학 · 빙의 퇴마
개인 지도 · 예약 상담
1. 역학 : 사주,궁합,택일,사업운
2. 성명학 강의 및 작명, 개명
3. 빙의퇴마,전생요법,심리상담
4. 정신분열,환청,환시,우울증
※ 빙의(신병)출장 퇴마 및 상담
010-3772-4606 제행
서울 지하철 4호선 상계역

불교실전의식 학인모집
본 교육원에서는 각단 불교의식 및 재의식에 필요한 사물(북,태징,요령,목탁) 및 바라춤, 나비춤,법고(홍고)를 빠르게 습득하여 여법하게 집전할 수 있도록 지도해 드립니다.
휴심사교육원
(서울 동작구 사당동 이수역 14번출구)
010-8588-2816

천도재 49재 점안식
각종 불공
집전하여 드립니다
바라무,나비무,법고무
호적, 살풀이, 화청
010-4304-0120

불공 저렴한 보시금으로 여법하게 집전하여 드립니다
49제, 점안, 살풀이, 바라
이 인연으로 성불의 씨앗 되십시오
010-2168-2800
011-850-0176

범음범패 학인모집
천도재의식, 상용예불 해설 및 소리 강좌
매주 금요일 오후 3시 ~ 6시
천수바라, 공양작법, 사물지도
사찰행사 문의 환영
(살풀이, 극락무, 지전무, 관음무)
055-744-5300
010-5243-3587
경남 진주 여여불음원 강주 법일 자운 합장



관 상 (손금)
- 생일만 알면 조상운, 평생운을 알 수 있다
- 스님, 천기누설 특별개인지도
- 상술, 비법, 질병 전문강의
- 암, 질병, 묘터, 재판, 이혼, 부도, 낙태유산,조상영가, 얼굴만 봐 도 알 수 있다.

010-4014-8822
(천기누설비법)

양 도 공 고
(등록된 종무법인임)
종무업무를 국가기관에 등록받은 불교법인, 불교연합회 불교종단 양도함
011-412-8040 법광

신묘 방편력
사찰, 포교당, 대지, 건물 등 속히 매매 성취
010-2896-6689
광명 공덕
터 / 자리도 봐 드립니다

법당 철거 조성
정성을 다 해드립니다
퇴불은 파불없이 좋은인연 맺어 어려운 스님들께 무료로 이원해드립니다. 연락바랍니다.
010-2395-3333
남양주시 진접읍 내각1로 58

불교 각종의식 및 재의식 실전교육 학인모집
각단 불공및 재의식에 따른 작법,사물 (목탁, 정근북 송주북, 태징, 요령)등을 빠른 시일내에 여법하게 집전 할 수 있도록 도와드립니다
서울시 동작구 사당동 휴심사 수복원
010-8588-2816

최면을 알면 인생이 달라집니다
요즘 국내외에서 치료법으로 활용되고 있는 최면,우리들의 내면에 빙의(신들림)나 우울증, 어깨통증 환자를 비롯해 수많은 증상들로 고통받고 있는 분들은 주저하지 말고 연락하여 해결하고 새로운 삶을 살기 바랍니다.
※ 최면 치료는 재발이 없습니다.
새로운 심리치료로 재발이 없습니다.
최면은 누구나 배울 수 있습니다
열심히 노력하면 누구나 전문가가 될 수 있습니다
* 강의 : 3개월
(일주일 3시간 / 목요일 오후 2 ~ 5시)
한국임상최면학회 회장 상담치유학박사 강성진 교수
052)227-7044. 010-4844-7002
홈페이지 www.hypnosis.or.kr

불교 범음범패 학인모집
천도 재의식, 각 예불, 천수바라, 나비무, 송주북, 정근북, 법고
진주시 집현면 정수리 417 금륜사 대진 합장
010-7579-8200

사찰행사, 회심곡 (화청), 바라춤, 염불, 49구재, 천도재, 점안식구병시식
010-6246-6672

종 도 모 집
가족처럼 종단을 선도할 종도님을 모집합니다
경남 합천군 삼가면 금리3길 6-4
불교승가여래종 동경사(도연)
입종서류 : 입종신청서1부/반명함판사진3매/주민등록증앞뒤복사1부/승려증 발급
010-6562-1577
팩스 055-933-1576

불사용 달마도
불사하시는 스님들을 위하여 불사나 선물용으로 청암달마도를 저렴하게 그려드립니다. 10매 이상은 절 이름과 스님 법명을 넣어드립니다.
규격 : 45cm × 55cm / 가격 : 6,000원
(고급 족자에 그리면 15,000원)
010-2953-8770
농협 919-02-137213 정휘춘 청암 달마원

부전스님
(비구, 비구니)
공양주 보살님
모십니다
010-9421-0730

철학, 경전, 49, 천도, 예수재 배우면서 사찰을 같이 운영하실 비구니 스님 모십니다.
35-45세, 차후 사찰을 무료로 양도 해줍니다.
010-6536-0120

공양주
보살님
모십니다
010-9515-3660

부전스님
모십니다
(경북 칠곡 동명면)
010-8266-8786

귀신을 마음대로 부리고 싶은 스님과 돌맹이로 만든 방편이 필요한 스님은 전화 하십시요
☎ 02)963-1148 / 011-741-0867
• 서울 동대문구 왕산로 274-1 3층 백선사 대주스님 합장

위 패 몰
www.위패몰.com
염주 마이크목걸이 / 사찰합동위패 / 영가전대
051-244-2040

풍경 좋은 산사에서
공양주 보살님
모십니다
(경기도 이천)
031-641-6311

비구니 스님
구합니다
(부산 부산진구 사찰)
010-3818-1070
010-8609-1230

과일의 왕 **두리안**
제일 맛이 좋은 시기에 수확하여 들여왔습니다.
두개 6.5KG 이상 70,000원
한박스 14KG 이상 130,000원
Sale!
주문하시면 즉시 택배로 배송되며 받아보실 때는 영하 40도로 급냉해 보관된 두리안이 먹기 좋은 상태로 해동이 되어 있습니다
〉 망고, 체리, 아보카도 수입과일 일체 판매합니다 〈
인터넷에서 주문하셔도 됩니다. 한글로 두리안샵
www.durianshop.com
향다원
판매및 문의
불자가 운영합니다
대표전화 ☎ 031-882-1357
Fax 031-881-1350 전화 : 010-5474-1345
입금구좌 : 농협 100023-56-156761 (조명숙)

한국불교대학 大관음사
우학스님 상좌 및 예비수행승(행자)모집
이 시대 불교를 리더할 참신한 예비수행승(행자)을 모집합니다
1. 수행위주의 교육
2. 수계 후 공부 100% (대학, 강원, 기본선원) 교육비 전액지원.
3. 공부 마친 후 국내도량, 해외도량, 복지시설 등에서 활동 할 수 있음.
4. 본인의 희망에 따라 대구큰절, 감포도량 중 선택하여 행자생활 함.
문의 : 054-753-8228, 010-8852-0075

수인작법 사주팔자
- 옛 고승과 도인에게만 전수되어 내려온 비술
- 손 하나만으로도 몇년 전, 몇월, 몇일의 운세점검 몇년 후, 몇십년 후, 몇월, 몇일, 몇시의 일도 예측할 수 있는 작법
- 명리를 배웠어도 시원치 않은 분
- 운명학을 배웠어도 시원치 않는 분

천지조화의 수치를 열어 보입니다
010-7703-1188

현대식 불교문화를 선도하는 포교원
현대인의 스트레스를 한방에 해결할 수 있는 수련법!
티벳, 인도, 요가, 명상호흡을 통해 누구나 쉽게 치유될 수 있는 수련법입니다.
지도자 수련생 모집 : 출가스님, 법사, 포교사 등
티벳, 인도, 요가 명상호흡협회
붓다선원 혜웅 합장 (서울 성동구 홍익동)
02-2296-3001. 010-4740-3001

MYANMAR (미얀마 語) 강좌
매주 토요일 오후 2시
▶ 위빠사나 강좌 (매주 화요일 오후 2시)
미얀마 문화원 (종로구 청진동)
문의 : 02)733-5670



주 문 : 전화·문자 010-4475-6611 (주소와성명, 염주 번호를 선택하여 주문주세요.)
계 좌 : 농협 351-0895-1240-43 (자비의등불)
보급처 : 캄보디아 국제NGO 자비의 등불 후원사업체(향불원, 등록번호 221-82-72640)

교육학 박사



진각스님의 명리학교실 · 단기속성교육과정 개강
- 제도권 학문이 된 命理學을 수학하여, 방편으로 삼고자 큰 마음을 내신 스님만을 위한 제1기 초급입문반과정.
- 한자(漢字)를 몰라도 가능하며 명리상담법, 작명법을 주 1회(월요일)로 하여 짧은 속성단기과정 프로그램을 개설.
- 부산 송광정사 부설 문화대학 교육학박사 진각
- 대학교 평생교육원에서도 10년간 강의 · 강의경력 23년
- 부산지하철 3호선 배산역 하차 4번 출구.

부산 ☎ 051-868-8438

바다의 미네랄과 폴리페놀 덩어리 지구상 최고의 항산화 식품...
NEW 임해 밥타 죽순 식물성 탈백 콩고기
몸속의 오염된 지방을 분해 배출시키는 탁월한 항산화 식품!
전립선 및 다이어트, 성인병 예방에 최고!
❶ 스님들의 단백질 영양 부족을 해소하기 위해 개발된 고단백 식물성 콩고기 식품
❷ 효모와 항산화(폴리페놀)가 함유된 건강 단백질 콩고기
❸ 하루 섭취량 40g(가격 하루 700원대)로 충분한 단백질 영양 섭취
❹ 가격은 1kg 22,000원 (25인 분량)
〈사찰에서 다량 구매시 할인하여 드립니다.〉
※폴리페놀은 항산화 능력(활성산소 제거)이 6년근 홍삼보다 65배, 블루베리보다 44배



임해 밥타 죽순 차(茶)용
• 500g 茶용 (6개월분) 6만원
• 깨끗한물에 씻어 2L기준 20g 정도 넣어 30 ~ 40분 끓인 후 복용하시면 됩니다. 재탕으로 1회 더 복용 가능합니다.

(주)임해 대표전화 1661-4288 / 010-4746-0335
인천광역시 동구 방축로 37번길 30 인천산업유통센타 37동 201호 ㈜ 임해
기업은행 418-038069-04017 [예금주 : ㈜ 임해]

"참 불교방송"
출연하실 스님을 모십니다

본 "참불교 방송"은 케이블 방송국인 현대미디어 에서 운영 하는 모바일 케이블 방송인 "에브리 온TV" 어플 을 통해서 채널을 런칭 하여 시험방송을 마치고 샘플링 방송을 송출하고 있습니다.

인터넷이 pc로만 사용하던 시대에서 지금은 휴대폰(모바일)로 대부분 사용하듯 방송도 케이블 티비로 가정의 TV에서 보던 방식이 휴대폰으로 시청하는 시대로 바뀌는 시점에 본 방송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모바일 방송인 "에브리 온" 방송은 케이블에서 시청하는 대부분의 채널이 회원가입 없이 무료로 시청 할 수 있고 불교 채널도 기존 2개의 채널에 "참불교 방송"이 추가되어 총 3개의 불교채널이 방송되며 약 260개의 기존 케이블 채널이 방송되고 있습니다.

방송출연 하실 관심 있는 스님의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 드립니다.

좋은 법문과 방송에서 프로그램으로 할 수 있는 모든 소재의 방송 가능합니다

또한 방송된 프로그램은 신도들께 유튜브 와 카카오톡 이나 밴드 또는 문자로 동영상 보낼 수 있게 제작 해 드립니다.

방송시청 방법 :

휴대폰 Play 스토어에서 "에브리 온 TV" 어플 설치 (EVERY ON TV)
방송 분류에서 종교 선택 "참불교 방송" 선택시청
채널 : 300번
ON 에브리온 TV



방송문의: 070-7766-6360(代)
010-4058-7553

알기쉬운
구단구궁법

특허 상표등록번호 40-0863341 저작권등록번호 C-2011-003967
서비스표등록번호 41-0213393

저작권자 상표권자 법화종헌	저자(속명 정흥교)는 경주불국사, 대구동화사, 부산범어사 승가대학에서 수학하고 고려고찰 고산사, 석불사 등 주지직을 수행하고, 전통불교조계종정을 역임. 지금은 「구단구궁법주」로써 자비의 방편학문인 「구단구궁법」을 세상에 널리 펼쳐 많은 중생을 요익케 하고 있다.
누가? 몇일?	◆ 누구나 5일이면 실력자가 될 수 있습니다. ◆ 왕초보 저학력 아무상관 없습니다. ◆ 써먹지도 못하는 죽은 학문이 아니라 살아있는 이 시대의 필수과목입니다.
내용	◆ **손으로 짚어 5분안에 자금회전, 일의성패, 직업, 성격, 적성, 궁합, 택일, 이사방위** 등을 주저없이 판단하고 기판(답안지 5분) 작성시에는 과거, 미래 십년도 한눈에 일년 열두달도 한눈에 알 수 있습니다. (날짜별, 시간별도 마찬가지이다.) ◆ 한문에 관계없이 초보자도 가능함 ◆ **귀신뽑아 조상천도 연계** ◆ 교수 이수 후 즉시 영업 활동 가능함 ◆ **사찰, 포교당, 철학관 상담소 운영**에 획기적인 방법
※ 1월(寅月)의 높은 나무는 바람결에 귀신의 소리를 듣는다.	
수강료	◆ 스 님 - 오십만원(책값 별도) ◆ 일반인 - 일백만원(책값 별도) ◆ 우체국 : 601401-01-001843(예금주 : 자비실천불교연합회)

구단구궁법 교실 부산광역시 북구 만덕대로 27번길 31, A동 107호(지하철 덕천역 12번출구)
cafe.daum.net/9dan9gung 전화 010-7415-0803

* 본 지면의 불자정보 광고는 광고주의 요청에 따라 게재한 것이므로, 광고지면 제공 이외에 광고주와의 거래 관계 및 일체 책임 관계가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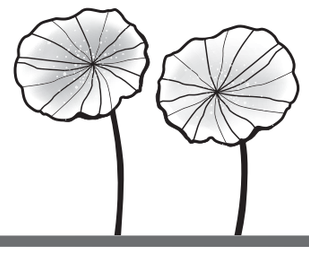
불자정보

▷ 접 수 : 매주 월 ~ 수요일 (팩스,이메일로 광고 접수 받습니다.) ▷ 게 재 : 매 다음주 수요일
※ 수요일까지 입금된 기준으로 광고 게재해드립니다.
▷ 문 의 : FAX 02)737-0696 / 02) 2004-8213 / iom@hanmail.net
▷ 가 격 : 기본 4.7㎝ 50,000원(1회) / 가로 6.7㎝ 70,000원(1회) / 가로 9㎝ 100,000원(1회)
▷ 계 좌 : 농협 053-01-269088 / 국민은행 222-25-0005-381 (예금주 : 주식회사 현대불교신문사)

【금주의 법어】

지혜로운 사람은 해야 할 것과 하지 않아야 할 것을 잘 알아 시행하기 때문에 바다에 강물이 끊임없이 모여들 듯 재물은 나날이 늘어나리라.

– 잡아함경 –



서울시 사찰 안내

- 위치 : 서울시 강동구
- 지하철역 인접 / 대로변인접
- 토지 137㎡(약41평) 건물 2층 1층 요사 2층 법당
- 방4개, 주방, 공양간, 화장실3개 등 • 가액 : 7억5천만
- 사진 정보 : www.010-3426-9393.com

서울. 경기 사찰 & 포교원 매매 / 임대 급히 구함

이현종 공인중개사 사무소 (대표 공인중개사 이현종)
주소 : 서울 광진구 뚝섬로52길44 101호
010-3426-9393 / 02-449-0284

인천 추천 사찰 안내

(www.이박사.com)

- 2층 단청 법당. 1층 요사채 • 토지 1.300㎡
- 조용하고 위치 좋음. 뒷편이 산. 운영 잘 됨.
- 양도가액 : 15억 8천만원 (융자가능함)

■ 참되고 좋은인연 만드는 이박사공인중개사

010-7347-1010 (02-430-0284 이박사)
주소 : 서울시 송파구 동남로18길40.가락동프라자@상가 (대표:이규철)
■ 비밀 보장. 방문 접수. 전국사찰. 암자 급히 구함 !!!

사찰 안내 "가람"

- 전국 사찰 암자 포교원 양도 양수해 드립니다.
- 철저한 권리분석과 입지분석
- 계약 체결시 까지 홍보
- 매물홍보 최적화(사진촬영) • 비밀보장 (희망자 한함)

사찰 사진과 상세한 정보는 가람공인중개사사무소 사이트
"사찰안내가람"(인터넷 검색창에 입력)에서 볼 수 있습니다.

가람 공인중개사사무소 (대표 : 김인수)
02-492-6789 / 010-8980-4789
주소 : 서울특별시 중랑구 망우로 36번길 38 (상봉동127-15호)

광진 사찰 안내

◎ 위치 : 서울시내 ◎ 위치 : 경기도, 수도권
◎ 부지 : 55평 ◎ 면적 : 150평
◎ 인법당 : 40평 ◎ 법당 : 40평,차량진입
◎ 산밑 청정함 ◎ 요사 : 80평
◎ 양도가 : 6억 ◎ 양도가 : 10억 5천

*40년세월 신용과 믿음으로 일합니다. 출장 상담 받습니다.
*인터넷 검색창에 「광진불사」를 입력해보세요.
*전국사찰,땅,포교당,다량보유 부전, 공양주, 처사 소개 합니다.
*고불, 석불, 골동품, 종교법인 상담받습니다.

광진불사 010-4586-4525

사 찰 안 내

- 위치 : 밀양IC에서 얼음골 방향 15분거리
- 잣나무 숲과 계곡의 완벽한 환경
- 총면적 1678평
  대지 328평에 2층 건물
- 1층 명상홀과 요사채 60평
  2층 대웅전 24평, 나무 숲속에 삼성각 4.5평
  별도 요사채 30평과 창고 20평
- 석물 원통문 수월관음 연화탑 포대화상
- 농지에 사과나무 220주 호두나무 40주
- 가액 : 6억 5천

010-4895-2050

사 찰 안 내

- 위치 : 부산 사하구
- 상가 건물 5층건물에
  반지하 대형사찰 198평
- 시설A급 현재 법회 하고 있고,
  몸만오시면 됨
- 관리비등은 걱정 무! 부동산 사절!
- 은행융자 9,000 안고,
  1억 8천만원!

010-6717-6826

사 찰 안 내

- 위치 : 경남 밀양시 산외면
  금곡리 603번지
- 법당 27평, 구 건물 11동
- 산사에 대지 660평,
  현재사용부지 2,000평
- 매실 350그루 외 다수 유실수
- 현재시세 4-5억정도 형성
  사정상 급 안내
- 가액 : 3억

010-9203-1165

인천사찰(급)안내

- 도심 현대식 건물 사찰
- 토지 340㎡, 3층 법당,요사채,공양간
- 대로변사찰. 깨끗하고 웅장한 사찰
- 스님노환으로 양도
- 양도가액 : 13억 5천만원(융자가능함)

010-7347-1010 (02-430-0284)
사무소 방문 부동산 무료 상담
(서울 이박사 공인중개사 이규철)
전국사찰다량보유.무료상담

경기도 포교원 안내

- 위치 :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 지하철역 인접
- 토지 1,296㎡ (약390평)
- 건물 3동 법당 공양간 상담실 등
- 방 많고 돌탑등 조경이 잘되어있고 주차장이 넓음
- 가액 : 보 2000만, 월150만원
  시설비 8000만원

010-3426-9393 (포교원전문)
02-449-0284

토 지 안 내

- 위치 : 경남 의령군 한우산
  (합천 삼가면 10분거리)
- 절터 570평, 녹차밭(8년생)
  480평 = 1050평
- 특징 : 조립식 건물 1동
  (주방 1, 방 1, 욕실,
  에어콘, 높은 다락)

010-6239-3161

사 찰 안 내

- 위치 : 경남 창녕군 소재
- 부지 : 580평(종교용지)
- 법당 : 30평(목조,단청)
- 요사채 40평, 산신각 5평
- 가액 : 3억3천만원
- 특징: 도심인근의 조용한사찰로 기도와 포교지로 좋습니다

- 위치 : 대구광역시 동구 소재
- 부지 : 100평(종교용지)
- 법당 : 40평(2층,청기와,단청)
- 요사채:2동60평, 기타:산신각,석탑,석등
- 가액 : 4억9천만원
- 특징: 번화가에 위치한 도심사찰로 신도구성이 잘되어있어 사찰운영이 아주용이합니다

동진불사 서울) 010-5848-0455
대구) 010-4942-0455 / 제주) 010-5122-8080
* 전국소재 사찰 양도, 양수 하실분 연락바랍니다.

사 찰 안 내

《격암 남사고선생 십승지지》

- 위치 : 소백산 국립공원내 달발골
- 부지 : 10필지 3,036평
- 용도: 대지 3필지 469평
  전 7필지 2,567평
  법당: 38평, 창고: 15평
- 특징 : 심야전기시설
- 가액 : 12억

010-2480-2918

사 찰 안 내

- 위치 : 부산 영도구
- 시장, 은행, 마트 가깝고 교통편리함
- 대지57평, 건물 철근 콘크리트 2층집
- 1층 요사채 30평내, 방2개, 주방1개
  거실1개, 세면장 화장실1개, 도시가스
- 2층 법당 20평내, 스님방 1개
  도시가스 외부세면장 화장실 1개
- 모든 사물은 갖추어져 있음. 몸만 오시면 됩니다
- 가액 : 3억 1천만원

010-4495-7005 (스님전화)

도심속 작은사찰안내

- 위치:경남 창원시 진해구 여좌동
- 건물 : 1층 단독주택, 대지 37평
- 아담하고 예쁜사찰, 법당, 요사
  실내화장실, 실외화장실, 세탁실
  창고, 포교, 철학 상담하기 좋은 사찰
- 난방 도시가스, 심야 전기
- 가액 : 2억 1,500백만원
  (대출 7,500백 안고 1억 4천)

010-7188-7723

사 찰 안 내

- 위치 : 전남 여수시 학동 3길10(2층)
- 총평수 63평, 법당 20평
  접견실 10평, 서실 10평
- 큰방 2개, 공양간,
  화장실 남 · 여 2개
- 가액 : 보증금 3천 월 5십만원
  시설비 약간

010-5342-1459
061-662-5130

포 교 원 안 내

- 위치 : 김해시 가락로길 30(중앙통)
- 3층 건물 중 2층 80평
- 삼존불 탱화 완비
- 관리비 및 난방비 무
- 가액 : 보증금 2,000만원
  월 80만원
  시설비 보시고 결정

010-6208-5555

포 교 원 안 내

- 위치 : 강서구 화곡동
  2500가구 아파트 상가
- 평수 30평, 2층건물중 2층
- 시설: 원목수미단, 삼존불,
  후불탱, 신중탱, 인등
- 시설완벽, 모든집기 포함
- 가액 : 보증금 2천만원
  월 130만원
  시설비 1,000만원

010-8779-9971

사 찰 안 내

- 위치 : 강원 원주시 신림면 연봉정길 161-3번지(구, 용암리 49-4번지)
- 종교용지 570평, 터밭 278평
  주차장 44평, 원주-제천 중간 지점
  임법당 32평, 삼존불, 삼성각 10평
  요사채 17평, 청룡 백호 2겹 쌓인 도량 정남향
- 사정상 급 양도 : 3억 5천만원

033-744-3859
011-369-3859 (스님직통)
장난전화 사절

사 찰 안 내

- 위치 : 경남 사천시 IC 15분 거리
- 면적 : 부지 55,000㎡, 건물 270㎡
- 법당, 삼성각, 용왕당, 요사채2동, 황토방
  연못, 채전밭, 각종 유실수
  산과 계곡, 마을 가깝고 포장도로
- 법당방6, 심야전기, 화목보일러
- 가액 : 5억 5천만

010-5346-4138
051-861-2233
금호부동산 연사 가-13-1645(박춘식)
부산 연제구 월드컵대로 153번길18(연산동)

암 자 안 내

- 위치 : 경북 김천시 지례면
  신평리 599번지
- 대지 129평, 법당 17평
- 아미타도량, 관음, 지장,소불 104위
- 거실, 주방, 방 2, 욕실 2
  경내돌탑 수려함
- 가액 : 8,400만원

010-8503-5769
054-430-5769

산밑에 예쁘게 단청이된 사찰안내

- 위치 : 경상남도 창녕
- 토지 : 약 530평
- 건물 : 법당 1동, 칠성각 1동,
  산산각1동, 요사체 약40평1동
- 가액 : 3억 2천(5천만원 빼드림)
- 사정상 시세이하로 계산함

010-3007-5611

사 찰 안 내

《격암 남사고선생 십승지지》

- 위치 : 영주시 풍기읍 삼가리
- 부지 : 대지 136평
- 건물 : 46.42평 1층 법당
  2층 거실방 3개
- 특징 : 심야전기시설
- 가액 : 3억8천만원

010-2480-2918

사 찰 안 내

- 위치: 부산시 동래구 온천동
- 특징: 대지 약 80평
  (종교부지)
- 법당 : 약 26평
  (주지실, 삼성각 포함)
- 요사채 : 약 24평
  단독종교법인 사찰
- 가액 : 4억 5천만원

010-5626-5080

사 찰 안 내

- 위치 : 경남 양산시
  물금읍 3층
- 평수 : 60평
- 가액 : 보증금 1,000만원
  월세 60만원
  시설비 상담후 가격절충

연락처 010-9459-9477

사찰 및 요양원 안내

사 찰
- 1층 30평, 칠보관음, 천불상 용왕대신
- 2층 25평, 삼존불, 관음소불 130
- 요사채 40평, 큰방 3, 황토방 1

요양원
- 1층 90평, 2층 90평. 대지면적 약 900평
- 정원 25명, 현입소인원 25명
- 신축건물 월매출 약 4천5백만원(요양원만)
- 뒤에는 높은 산이요 앞에는 큰 저수지가 내려다 보이는 전망 최고의 명당터
- 위치 : 경남 밀양
- 가액 : 18억(융자 5억 5천 포함)

010-9567-0813

암자터(펜션.전원주택)안내

- 위치 : 경북 문경시 가은읍
  완장리 소재
- 대지 300평. 건물 25평
  (조립식). 전답 921평
- 사방이 산으로 둘러 쌓인
  명당터. 토목 조경 완료
- 가액 : 5억

010-3518-3958

사 찰 안 내

- 위치 : 경주시 산내면
- 대지 : 152평
- 한옥한채(법당),
  부속건물 2동, 텃밭 있으며
  교통이 편리함
- 가액 : 1억 8천만원

자세한 내용은
010-9338-1755 로
문의바랍니다.

사 찰 안 내

- 위치 : 경남 양산시
  물금읍 3층
  부산대병원 인접
- 평수 : 60평
- 가액 : 보증금 1,000만원
  월세 60만원
  시설비 상담후 가격절충

연락처 010-9459-9477

포 교 원 안 내

- 위치 : 경남 언양권 교동리
- 2층 건물 50평
- 법당. 방 3개. 공양간.
  세탁실. 창고
- 시설비 2천만원
- 보증금1천만원.월세50만원

상담전화 010-7752-1026

사찰안내 및 전세

- 위치 : 울산광역시 울주군
  온양읍 소재
- 총면적 : 530평
- 법당. 종무소, 요사채,
  산신각, 공양간. 창고
- 가액: 7억 전세: 2억

연락처 010-2702-0303

사 찰 (급) 안 내

- 위치 : 김천시 면소재(시 인접)
- 건물 : 32평 독채, 사찰 등기필(등기부 등재)
- 법당(약사여래불), 주방, 방2, 실내화장실
- 면 중심가(상가지역) 포교사찰(남향)
- 대지: 약 100평(2집사용),
  사용도지료 1년 35만원
  (지주가의 땅으로 상가일대가 도지료를 냄.
  건물은 지상권 등기되어 개인소유(자기집) 임)
- 가액 : 4천 8백 50만원

010-7295-1259

비구니스님 요사채 분양 안내

- 위치:경북 울진군 온정면 원덕산길 392 (백암온천 부근)

300여년전에 방장스님이 계셨던 참선도량 기도 영험도량 광흥사에서 요사채를 지어 분양하고자 합니다. 대중스님이 모여 수행, 정진하는 도량이 되고자 하오니 많은 관심과 동참 바랍니다.

대한불교조계종 광흥사 주지 합장
054-788-7672
010-8573-6353

포교원 안내

- 위치 : 대구 동구 효목 2동
  동구시장 맞은편 명보약국 골목
- 2층 40평 내실, 상담실, 주방
- 법당 29평, 석가모니주불, 문수보살
  관음보살, 지장보살, 산신불
- 가액:보증금 500만원 월 45만원
  몸만 오시면 됩니다
  시설비는 추후 상담
- 오후 2시 30분 이후 연락주세요

010-9282-5885

암 자 안 내

- 위치 : 경기도 하동군
  옥종면
- 법당, 용궁전, 산신각,
  요사채
- 총 1,515㎡ (458평)
- 가액 : 6천만원

010-9036-2131

사 찰 안 내

- 위치 : 경북 안동시
  송천동 1555
- 총평수 : 266평

(법당 30평, 요사채, 건물)

- 가액 2억 5천만원

010-5347-0270

사 찰 안 내

- 위치 : 경남 진주시 시내 10분거리
- 평수 80평, 2층 건물
- 2층 법당 1층 요사채
- 산신각, 창고 건물 1동
- 대중교통 편리함
- 가액:대출 4천만원 양도가 1억 6천 절충가능
- 비구니스님 수행 도량으로 적합

010-8794-1257

사 찰 안 내

- 위치 : 대구시내
  팔달역에서 5분
- 대지 200평
  법당 20평
  요사채 40평, 산신각 10평
- 가액 : 1억 5천

010-8861-1785

한 옥 안 내

- 위치 : 지리산 산청 단성 IC에서 5분거리
  지방도 2차선접 토지 1,700평, 한옥 50평
- 정원수 백여종 다량,
  식용가능 야생초 다량 식재
- 용도:사찰, 영수원, 동호인주택,
  펜션, 찻집 음식점 가능
- 주변도시 진주시내와 20분거리
  하나로마트 대형마트 5분거리
- 가액 : 12억 8천만원

010-5923-3388

사 찰 안 내

- 위 치 : 북한산(삼각산) 자락에 위치한 절 임
- 건물 : 법당, 산신각
- 평수 : 460평
- 가액 : 7억 5천
- 대중교통 편리함(도보로 5분 정도 임)
  위치는 서울시 성북구 정릉동쪽 임

연락처 010-9730-2251
(부재중 문자 남겨 주시면 연락 드림)

전망좋은 암자 안내 및 전세

- 위치 : 경남 통영시 산양읍
  연화리 연명
- 삼존불,각단탱화,스님방사,산신각
- 가액 : 1억
- 전세 1000만원 월 30만원
  전세 500만원 월 40만원
- 몸만 오시면 됩니다

010-8643-5235
010-7475-0474

사 찰 안 내

- 위치 : 경주소재
- 부지 : 약 800평(종교부지)
- 법당 : 38평
  기타 석등(목조 닷집)
- 요사채 40평, 공양간 18평
- 산신각, 칠성각 각 7평
- 가액:10억 8천만원

010-4183-5959

독채포교당 임대 안내

- 위치 : 부산시 연제구 연산동
- 대지 : 50평
- 1층 : 법당, 거실, 부엌, 화장실
  2층 : 방3, 거실
- 도로변대문 3m 연결
  냉난방시설, 얼마전 올수리
  일반주택구조, 동남향
- 가액: 전세 2천만원 월 60만원
  시설비 2천만원(인테리어비)

010-9282-5885

울산 큰 포교원

- 위치 : 울산 중구 학성동에 있습니다
- 전국에서 포교원 하기
  제일 좋은 지역
- 3층 건물 2층 3층 각 60평
  (옥상 독으로 사용)
- 가액:보증금 5천 월세 9십만원
- 시설비 이사비용만 받겠음

※ 포교원 장소로서는 최고 위치임

010-3858-0306

사 찰 안 내

- 위치 : 경남 고성(요지)
- 부지 : 280평
- 삼존불,각단탱화,법당,스님방
- 공양주방, 화장실2, 실외화장실,
  창고1, 집기일체,즉시법회 가능
  (몸만오시면 됩니다)
- 가액: 대출 8천안고 2억 3천만원

010-8643-5235
010-7475-0474

사 찰 안 내

- 위치 : 창원
- 대지 : 125평
- 건평 : 100평
- 가액 : 3억 5천

010-5019-5385

포 교 원 안 내

- 위치 : 서울 중구 신당동
  현대아파트 상가 406호
- 4층 (50평)
- 보증금 1500만원, 월 85만원
  시설비 차후 조정 결정
- 무료주차시설 완비

010-9421-9364

포 교 원 안 내

- 위치 : 부산시 금정구
  동부곡로 11
- 부곡시장 상가 2층 35평
- 보증금 2000만, 월세 40만
  (조정가능)
- 시설비는 현장 보시고 결정

010-5522-6677

사찰(터)안내

- 위치 : 경북 청송군
  안덕면 고와리
- 사찰터로 적당한 전답
  1천8백 평
- 가액: 1억8백만

010-2016-6281

포 교 원 안 내

- 위치 : 경북 포항 청림동
- 상가 2층 80평 단독사용
- 삼존불, 소불, 흑탱화,
  제반시설 완비
- 법당, 주방
- 가액 : 은행5천만원 안고 1억

010-2857-2811

사 찰 안 내

- 위치 : 부산시 수영구 무학로
  10번길 35(광안동) 광안리 최고요지
- 3층 건물 2층 50평,
  법당 5존불 외
- 한자불 50불 30cm, 후불탱화
- 방3개,주방1개,식당,화장실2개
- 가액 : 1,500만원, 월세 70만원
  시설비 3,500만원

010-3884-0122

사 찰 (급) 안 내

- 위치: 경남 고성군 고성읍 내
- 대지 200평, 1,2층 70평
- 1층 요사채 2층 법당
- 즉시 법회 가능 시설완비
- 가액 : 3억 3천 (가격조정)

010-4561-2149

포 교 원 안 내

- 위치 : 서울 동대문구 전농동
  미주상가 건너편
- 마당 22평,법당 및 사무실40평,요사채18평
- 청량리역 도보3분거리,교통요지,
  1호선,중앙선,버스정류장 앞,옥상 사용가능
- 주차장 및 제반시설 완비
- 가액 : 시설비 3900만원
  보증금 1,000만원, 월세 99만원

010-7409-0490
02)957-0824

사 찰 안 내

- 위치 : 부산 기장, 바다전망 좋음
- 105평(실평 76), 3층 중 3층(신축건물)
- 엘리베이트 2대, 주차 50대
- 법당 5존불 , 탱화
- 종무소, 공양정, 원목락카, 수입원목설비
  방3, 욕실3, 샤워부스3, 친견실
- 부산 기장 바다 전망. 꼭 하실분만 전화주세요

010-3832-6626
010-2065-3338

끌림의 감정센터를 만들어라



박태수 제주국제명상센터 이사장

명상은 세상과의 소통 ㉑



새로움은 낯설기보다 신선하다

본 주제에서 사랑은 '이성 간의 관계에서 서로 그리워하는 마음'을 말한다. 남녀는 서로가 감정적으로 끌리어 그리워하고 보고 싶어 하는 마음으로 만난다. 이러한 관계가 결실을 맺어 결혼을 하게 되고 자식을 낳아 한 가정을 이룬다. 그리고 일생을 함께 살면서 숱한 우여곡절을 겪지만 그 사랑이 유지되도록 노력한다. 그런데 이러한 남녀의 사랑도 시대가 바뀌면서 일생을 함께하기보다 중도에 헤어지는 게 다반사가 되고 있다. 이혼으로 인한 후유증은 이혼 당사자인 부모는 물론 자녀들의 인생, 나아가서는 사회, 국가적으로도 큰 불행을 초래하고 있다.

사랑도 명상하듯이 매순간을 만날 수 있어야 일생을 함께할 수 있다. 매순간을 만난다는 것은 남녀가 만날 때 서로를 향한 느낌이나 생각, 나아가 신체적인 접촉까지 새로움을 경험하는 것이다. '새로움을 경험한다'는 말이 낯설게 다가올지 모르겠으나, 새로움은 낯설다기보다 신선함을 의미한다.

흔히 우리는 관계에서 마음이 변하지 않기를 바란다. 특히 남녀 간의 사랑은 한결같이 변하지 않아야 아름답다고 여긴다. 두 사람을 연결시켜 주는 그리움의 고리가 끊어지지 않아야 미덕으로 보는 것이다. 유시화 시인의 "그대 곁에 있어도 나는 그대가 그립다"라는 말처럼 곁에 있어도 또 보고 싶도록 간절한 마음이어야 고리가 끊어지지 않는다. 그렇다면 '한결같은' 사랑이 이루어지려면 어떻게 만나야 하는가? 이 해답의 일부를 끌림을 일으키는 '쾌감센터'에서 찾아보기로 하자.

캐나다 맥길 대학의 신경과학자 제임스 올스(James Olds)와 피터 밀너(Peter Milner)는 쥐의 학습행동 연구 중 우연한 발견을 했다. 그들은 실수로 쥐 뇌의 시상하부를 미세한 전극으로 자극했는데, 이후 쥐들은 이 자극을 받았던 장소로 계속 되돌아가려고 했다. 쥐들은 그곳에서 뭔가 대단히 좋은 경험을 한 것이다. 분석 결과 그곳에는 쥐들이 되돌아가려는 뇌의 '쾌감센터'가 우연히 자극을 받았다는 것이다. 이후 쾌감센터를 자극할 수 있는 지렛대를 만들어 주고 계속적으로 연구한 결과 자위적인 쾌감을 느끼기 위해 쥐들은 식음을 전폐하고 지렛대를 두드렸다. 1시간에 무려 7천 번을 두드리다 거품을 물고 쓰러지는 쥐들도 생겨났다. 모든 동물의 뇌가 가진 중요한 역할 중 하나가 바로 이 쾌 혹은 불쾌의 경험을 즉각적으로 구분하고 만들어낸다는 것이다.

모든 동물들이 쾌와 불쾌의 잣대로 경험을 나누는 이유는 그것이 그들의 생존을 결정하는데 효율적으로 작용하기 때문이다. 쾌와 불쾌의 신호는 그들을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고 기회를 포착하도록 안내한다. 즉 쾌와 불쾌의 감정은 나설 때와 물러설 때를 알려주는 '생존 신호등'이다. 불쾌의 감정은 해로운 것으로부터 그들을 보호하는 '빨간 신호등'이고, 쾌의 감정은 즐거운 곳으로 그들을 안내하는 '파란 신호등'이다.

사랑도 이런 경험에 바탕을 둘 필요가 있다. 사랑을 지속시키는 커플들은 이 쾌감 신호가 자주 울리는 뇌를 가진 사람들이라고 볼 수 있다. 과학자들은 인간도 쥐와 마찬가지로 쾌감과 연합된 경험을 기억 속에 확실히 남겨놓는다고 보았다. 이를테면 사랑하는 사람들은 부정적 정서에 비해 긍정적 정서 경험을 일상에서 더 자주 느끼는 것이다. 이 긍정적 정서의 빈도가 사랑을 지속화시키는 결정적 역할을 한다. 많은 남녀들이 사랑을 제대로 지속하지 못하는 이유는 긍정적 정서의 빈도가 부족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사랑을 나누는 사람들의 공통적인 질문은 '남녀 간에 무엇이 있어야 사랑이 지속될 수 있을까?'와 관련된다. 저마다 조금씩 다르겠지만 대부분 긍정적 감정이 끊어지지 않는다면 사랑이 지속될 수 있을 것이라고 본다. 그러나 긍정적 정서만이 사랑을 지속하지 않는다는 연구도 있다.

미국 일리노이 주에서 지금의 화폐가치로 약 100억 원의 상금을 받았던 복권 당첨자들에 대한 연구다(Brickman, Coates&Janoff-Bulman, 1978). 복권당첨 1년 뒤, 21명의 당첨자들과 주변 이웃의 행복감을 비교했더니 놀랍게도 별 차이가 없었다. 복권당첨과 행복을 동일시하지만, 실제로 복권에 당첨된 경우를 보면 이것이 답이 아니다. 왜 그럴까? 우선 감정이라는 것은 어떤 자극에도 지속적인 반응을 하지 않기 때문이다. 시간은 기쁜 일도 슬픈 일도 생각보다 빨리 지운다. 바로 이 연구와 관련지어서 본다면 남녀가 서로에게 아무리 긍정적인 정서를 갖고 있다 하더라도 끊임없이 서로가 끌리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다. 변덕스러운 인간의 마음이지만 계속 만남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새로운 변화가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변화와 관련된 마음은 행위의 존재모드와 관련이 있다.

> 쉽지만은 않은 한결같은 사랑
> 간절한 마음이어야 안 끊어져
> 행위와 존재모드 병행하면서
> 사랑의 쾌감 기억에 잘 남겨야

행복한 사랑, 성취 위한 사랑

지난번 칼럼에서 제시했던 인간의 삶의 방식을 다시 상기해 보기로 한다. 알아차림을 심리치료에 접목한 영국의 임상심리학자 존 티스데일(John Teasdale)은 인간의 삶을 두 가지의 방식, 즉 행위모드와 존재모드로 구분하였다. 행위모드(doing mode)는 미래의 목표를 성취하기 위해서 행위에 몰두하는 마음의 상태를 뜻한다. 이 행위모드에 비춰보면 남녀의 사랑은 현재에 만족하지 못하고 무언가 더 달콤한 느낌을 계속 추구하는 사랑이라고 볼 수 있다. 행위모드에서는 마음이 늘 바쁘다. 현재 서로에 대한 애정은 어떠한지, 함께 가야할 삶의 목표를 달성할 수 있을지, 그때는 왜 미워했는지, 사랑이 지속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끊임없이 생각하고 돌아본다. 이러한 사랑은 마음이 현재에 머무르지 못하고 과거와 미래로 분주하게 옮겨 다닌다. 또한 현실과 목표의 차이에 초점을 맞추기 때문에 현실에 만족하지 못한 채 불안과 초조감 속에서 항상 쫓기며 바쁘게 살아간다. 이러한 사랑은 사랑하기 위한 사랑, 즉 집착하는 사랑으로써 사랑은 하되 행복한 사랑이라기보다 성취하기 위한 사랑이다.

반면에 존재모드(being mode)에서는 사랑의 목표를 추구하지 않는다. 사랑에 대한 어떠한 기억이나 계획도 하지 않으며 어떤 사랑을 해야 한다는 압박감도 없다. 마음이 편안한 상태이기 때문에 사랑의 어떠한 모습과도 싸우지 않는다. 모든 것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허용한다. 현재에 머물며 몸과 마음에 다가오는 다양한 사랑의 경험들을 충분히 알아차리고 느낀다. 그 어떤 사랑의 경험도 붙잡거나 집착하지 않는다. 모든 사랑의 행위는 서로의 마음에 떠올랐다 사라지는 일시적인 현상일 뿐이라는 것을 통찰한다.

여기서 필자는 인간의 사랑이 행위모드보다 존재모드로 가야 더 아름다울 것이라는 택일적 입장을 취하는 것은 아니다. 현실세계에서 행위모드는 누구에게나 필요하다. 사랑도 노력해야 한다. 아무리 알아차림을 강조해도 긍정적인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는지를 살펴보아야 한다. 다만 자신의 사랑이 행위모드 중심이라는 것을 알아차렸다면 존재모드의 사랑과 병행할 수 있는 영혼의식을 갖도록 해야 할 것이다. 여기서 영혼의식은 개인이 살아가면서 습득한 사랑의 경험들이 자신의 영혼에 각인되어 형성된 자기만의 고유한 의식을 말한다. 비록 존재모드의 사랑이 행위모드의 사랑보다 순간을 만날 수 있는 사랑이라 할지라도 개인의 고유한 영혼의식은 쉽게 바뀌지 않는다. 순간을 만난다는 것은 새로운 것을 만난다는 것이기 때문에 개인에 따라서 기존의 것을 그대로 따르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늘 새로운 것을 추구하는 사람이 있다. 끊임없이 행위모드의 사랑을 나누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존재모드의 사랑을 추구하는 사람이 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사랑은 남녀가 함께 추구해야 할 목표이지만 이런 사랑의 행위는 반복적이고 새로워야 한다는 것이다. 오늘 아무리 영양가 높은 음식을 먹어도, 살기 위해서는 내일 또 먹어야 한다. 그리고 그러한 음식으로 인한 쾌감은 사라져야 한다. 쾌감 수준이 원점으로 돌아가는 초기화과정이 있어야만 그 쾌감을 유발시킨 그 무엇을 다시 찾는다. 이 무한 반복의 생존 사이클이 지속되기 위해 필요한 조건 중 하나가 쾌감의 소멸이다. 소멸되지 않으면 마치 시계의 알람 소리를 끄지 않아서 계속 울리는 것과 같다. 그래서 사랑은 '단 한 번'의 감정으로 해결되는 것이 아니다. 모든 쾌락은 곧 소멸되기 때문에, 한 번의 커다란 기쁨보다 작은 기쁨을 여러 번 느껴야 한다. 사랑은 기쁨의 강도라기보다 빈도에 의해 유지된다. 인간은 변화에 민감하고 반복에 둔감한 존재다. 새로운 변화에는 민감하게 반응하지만 지속적으로 주어지는 자극에는 둔감하다. 사랑의 상태도 지속되면 그 감정이 저하된다. 그러므로 쾌감의 소멸과 쾌감이 새롭게 일어날 때 사랑은 지속된다. 필자도 결혼한 지 40여 년이 되면서 수없이 많은 기쁨과 괴로움을 겪어왔다. 그러면서 반복보다 새로움이 관계를 더 깊게, 더 달콤하게 한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사랑이라는 쾌감과 연합된 경험을 기억 속에 확실히 남겨놓아야 한다. 서로에 대한 끌림인 쾌감센터의 기능을 갖추는 것이 중요하다. 쥐들이 되돌아가려는 뇌의 '쾌감센터'처럼 끊임없이 서로에게 되돌아가려는 끌림의 감정센터를 만들어야 한다. 이 센터는 편안하고, 기쁘고 때로는 쾌감이 샘솟듯 일어나는 그러한 센터여야 한다. 다만 쾌감을 느끼기 위해 쥐들처럼 식음을 전폐하는 것은 사랑의 집착이다. 사랑의 감정센터는 강력하면서도 다정하고, 수용하며, 놓아 버릴 수 있어야 한다.

청동불상 조성업체

대원불교



그 동안 저희 대원불교를 성원해 주신 여러 스님분들께 머리 숙여 감사 드립니다.

그 성원에 조금이나마 보답하기 위하여 저희 대원불교에서는 청동불 개금 탁자 단청 천불전 특수불 등 일체를 혼을 담아 조성(제작)하여 저렴하고 합리적인 가격에 판매 하고 있습니다. 또한 저희 대원불교에서는 법당 철거 및 정리 일체를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수거해 온 물건 및 퇴불은 파불없이 좋은 인연으로 어려운 스님들께 무료로 조성해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대표 임영달 올림

경기도 포천시 내촌면 진목리 565-5
전화 031)573-3722. 010-7171-2636
팩스 031)573-3723

정성을 다하는 대원불교사랑이 되겠습니다

사찰신도 관리프로그램

"번거로운 설치없이 이용가입 후 바로 사용 가능"

동종업계 최저 가격

최초 가입시 1개월 무료 사용
➔ 월사용료 : 기본 19,800원
설치비 없음, 세팅비 전액무료

"이용 사찰의 프로그램 만족도 우수"



연등표 출력 | 인등표 출력 | 위패 출력
문자발송 | 기부금 영수증 | 사주팔자

부가서비스
- 원격지원 – 해당 사찰의 컴퓨터를 원격으로 제어하여 실시간 프로그램 설명 및 오류 수정
- 적립포인트 제도 시행 – 접속률, 이용후기작성, 사용료 3% 등 최대 22,000P 제공
- 축원문출력, 삼재관리, 회계관리, 우편라벨 출력, 신도생일 및 신도영가 기일 자동 표시 / 물품관리, 전국 날씨정보, 메모장, 일정관리, 등록된 모든 자료 파일 다운로드 가능

NAVER 지엠소프트

대표전화 070-7633-2525 / 010-8588-2525
상담문의 : 평일 09:30 ~ 17:30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 휴무
홈페이지 http://www.gmst.co.kr

빙의치유(영가장애) 상담환영!!

빙의치유도 전문가를 만나야 문제해결이 가능합니다!
한 사람의 인생과 가족의 행복이 걸린 문제입니다!!

각종 빙의의 구체적 증상

- 사람이 갑자기 어느 시점부터 이상 행동하는 경우 (폭력적으로 변한 경우, 술을 갑자기 많이 먹는 경우, 술 먹으면 눈빛이 바뀌는 경우, 밥을 끊임없이 많이 먹는 경우 등)
- 잠잘적 마다 많은 꿈에 시달리는 경우, 잠잘적 마다 가위 눌리는 경우
- 숙면 취하지 못하고 불면증 심한 경우
- 어느 시점부터 사람이 의욕이 없고 우울해지고, 몸이 마르고, 몸이 천근 만근 무거우나 병원에선 특별한 이상이 없는 경우
- 불안, 공포, 무서움증이 심한 경우
- 알 수 없는 머리 두통, 가슴통증, 배아픔 등이 있는 경우
- 환청, 환각 증세가 심한 경우
- 가정불화, 사고 우환이 계속되는 경우
- 중,고등학생이 갑자기 이상 행동, 폭력적 행동, 학습능력저하, 자살충동 일으키는 경우
- 장례식장, 상가집, 국내외 여행 다녀온 후 몸과 마음에 이상 증세 있는 경우
- 여러번 천도재, 굿을 해도 효과 못 보신 경우
- 아무리 센 신기운도 제압, 천도가능 함.
- 신기운, 무병에 시달리는 경우
- 동물(소,돼지,개,닭,오리,어류 등). 식물(큰나무 베고 탈난 경우) 영가도 천도 가능함.

상담해법 문제해결 중심으로 상담 : 빙의치유 전문자격 갖춤

- 차후 지속 관리해 드림 (또 다른 기운이 들어올 수 있음)
- 원격치유 가능 (외국에 있는 분도 치유가능)
- 몸안에 들어온 영가제령, 최고실력 보유 (전국 최고)

상담문의처 | 제주 불교금강선원 (빙의치유영가천도전문상담원)
☎ 064)746-0789 ※전국 어디든 상담환영!

오시는길 : 제주시 삼무로 47, 3층 (연동) 삼무공원버스 정류장 하차하여 바로



용수 스님(세첸코리아 대표)

티베트 불교 1분 명상

과소평가 하지마세요

자신의 가치를 과소평가 하는 습관이 있습니다.

사랑을 받을 만한, 존경을 받을 만한 가치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무한한 가능성이 있습니다.

우리 자체가 훌륭하고 지혜롭고 자비롭습니다.

우리 자체가 행복입니다.

지금도 앞으로도 행복하고 행복할 수 있고 행복할 것입니다.



그림 · 최주현



도연 스님의 '青春 사이다'

⑧ 성찰로 깨닫는 공의 이치

온전한 無에서 올바른 有를 찾아가다

한가위도 지나고 이제 가을에서 겨울로 지나가고 있다. 하늘이 한없이 높고 청명 하니 마음이 저절로 맑아지는 듯하다. 가을의 차분함과 겨울의 정결한 기운이 느껴지는 탓일까? 삶을 돌아보며 무언가를 정리하고 결심해야 할 것만 같다. 바야흐로 성찰의 시기인가 보다.

성찰은 스스로를 살피고 관찰함을 통해 우리 모두를 성숙하게 하고 마음의 평안을 가져다준다. 가을의 끝자락에서 올 한해를 성찰해보고 내년을 어떻게 준비하면 좋을지 알아보기로 하자.

새로운 그림을 그리기 위해서는 아무것도 안 그려진 흰색 도화지가 있어야 한다. 덧칠을 할 수도 있겠지만, 기왕이면 아주 깨끗하고 새하얀 바탕에서 새로 무언가를 그리고 싶은 것이 사람들의 공통된 마음일 것이다. 흰색 도화지를 만드는 작업을 우리의 삶에 비추어 본다면 과거의 인연을 정리한다거나 마음과 기억 속에 담긴 많은 사연들을 정돈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우리의 삶에서 이러한 초기화 작업은 어떻게 이루어질까?

밤사이 자고 일어나면 기력이 회복되며 전날의 근심과 스트레스가 어느 정도 정리되고 사라진다. 마치 컴퓨터를 잠시 껐다 켰을 때 메모리가 정리가 되면서 더 성능이 빨라지고 뜨거웠던 기계의 열이 내려가는 것과 비슷하다. 열심히 활동하고 나면 휴식이 필요하듯 삶을 정리정돈 할 때에도 그러한 이치가 적용된다. 그것을 불교에서는 공(空)이라고 한다. 새롭게 리셋(Reset)된 마음 상태인 것이다.

우리는 마음을 들여다보고 비우는 명상과 수행의 과정을 통해 공의 상태에 들어갈 수 있다. 이것이 나를 돌이켜 보는 성찰의 핵심인 것이다. 새로운 시작을 위한 정리정돈을 위해서는 반드시 비워짐(공)을 경험해야 한다. 이 과정을 통해 나의 마음과 생각은 초기화가 되고 텅 비워지며 맑아진다.

과거의 성현들은 이러한 공의 상태에 대하여 많은 말씀을 하셨다. 먼저, 공민왕 때 왕사를 지냈던 나옹 선사의 누님이 염불을 배우고 나서 스스로 읊었다는, '부운(浮雲)' 에 공에 대한 이야기가 나온다.

空手來空手去是人生 生從何處來 死向何處去
(공수래공수거시인생 생종하처래 사향하처거)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가는 것, 이것이 인생이다. 태어남은 어디서 오며, 죽음은 어디로 가는가?'
(중략)
獨有一物常獨露 澹然不隨於生死 (독유일물상독로 담연불수어생사)
'여기 한 물건이 항상 홀로 있어 담연히 생사를 따르지 않는다네.'

공수래 공수거, 우리의 한 생애가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가는 것이라 한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아무것도 없는 무의미하고 허무한 것은 아니다. 그 안에 담긴 의미와 가치가 분명히 있다. 위의 시에서는 그것을 '담연히 생사를 따르지 않는 한 물건' 이라고 했다. 과연 비워진 마음에서 느낄 수 있는 그 한 물건이란 무엇일까?

조선시대의 서산 대사는 선가귀감에서 '여기에 한 물건이 있으니, 본래부터 가없이 밝고 신령하여, 일찍이 나지도 않고 죽지도 않으며, 이름 지을 수 없고, 모양 그릴 수 없다' 고 했다. 또한 '모름지기 마음을 비우고 스스로 비춰보아, 한 생각 인연 따라 일어나는 것이 없는 줄 믿어야 하느니라'

空 상태, 아무 것도 없는 것 아냐
무한한 지혜 · 창의성 발현 가능해
인간관계 문제도 원만 해결 이끌어
미워하는 마음 사라지면 자유 찾아

라고 말씀하셨다. 그 '한 물건' 에 대해서 마음으로 비우고 스스로 비추어 보아야 볼 수 있다고 했다. 아울러 그것은 인연 따라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고 했다. 그렇다. 그것은 인연을 초월한 다른 영역의 힘과 질서이기 때문에 우리의 얽히고설킨 인연을 정리할 수 있는 것이다.

고려시대의 보조국사 지눌 스님은 수심결(修心訣)에서 스스로를 지켜보는 나로서 공적한 영지(空寂靈知)를 말씀하셨다. '모든 것이 다 빈 곳에 신령스런 앎이 있다' 는 것이다. 또한, 대승의 핵심 경전인 반야심경에서도 '우리의 몸과 마음을 비추어 보면 공함을 알 수 있고 일체의 고통에서 벗어 날 수 있다' 고 했다.

이렇듯 텅 빈 상태에서 나타나는 충만감과 신령함이 모든 문제를 해결해 준다. 비워진 가운데 아무 것도 없는 것이 아니다. 오히려 그 정반대다. 무한한 지혜가 나오며 뛰어난 창의성과 창조력이 발생한다. 이러한 상태에서는 나도 남도 모두 좋을 수 있는 새로운 계획을 세울 수 있다. 그것을 이룰 힘도 생긴다. 일상에서 머리가 비워지면 생각지도 못한 기발한 아이디어가 나오기 마련이다.

더 나아가 인간관계에서의 성찰을 생각해 보자. 텅 빈 충만감에서 나오는 힘으로 자신을 정리하면 나는 이미 새로운 사람이다. 전날의 복잡한 상태에서는 스스로를 정리하는 것도 힘들었지만, 성찰을 통해 정리된 자기 자신은 더 이상 복잡하지 않다. 따라서 상대와의 관계도 원만하게 풀어갈 수 있다.

고요하고 편안한 가운데 나를 섭섭하게 한 인연이 있는지 생각해 보자. 일단 마음으로 나를 아프게 한 그 일이 없었다고 생각해보자. 그게 잘 안된다면 마음속으로 용서해본다. 서로의 관계를 공함으로 이끄는 것이다. 결국 관계성도 자기 자신의 문제이기 때문이다. 내 안에서 걸릴 게 없으면 된다. 내 마음에서는 원망하고 미워하는 마음이 사라지면 문제는 해결 된다. 그 문제로부터 자유로워지면 직접 만나더라도 그 문제로 인해서 괴롭지 않다. 오히려 성숙한 인간관계로 발전한다.

이번엔 역으로 내가 누군가에게 잘못한 것은 없는지, 원한을 살 만한 말이나 행동을 하진 않았는지 살펴보자. 만일 그러한 사람이 있다면 마음속으로 용서를 구하고 그 일이 없던 공의 상태로 돌아가 보자. 잘 비워지지 않는다면 참회의 마음으로 기도를 해 본다. 더 이상 마음에 걸림이 없다면 그 사람을 다시 만나서도 편안할 수 있다.

과연 누군가와의 관계 속에서 가해자와 피해자를 엄격하게 구분할 수 있을까? 손해를 본 사람이든 손해를 준 사람이든 모두 마음속에는 좋지 않은 악업이 쌓이게 된다.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 관계성에서의 공을 만들어 가는 것이 좋다. 좋지 않은 사건이 일어나기 전의 상태, 즉 공의 상태로 돌아가기 위해 애쓰는 것이다. 그러한 관계성의 공도 내 마음에서 만들어 나가는 것이다.

여기에서 가장 좋은 것은 용서와 감사의 마음이다. 그러한 마음가짐은 초월적 힘과 사랑(자비)을 발생시킨다. 그 따뜻한 힘이 과거의 인연을 정리해 준다. 처음 만났을 때 아무 일 없던 시절보다 공을 경험한 둘 사이의 관계는 더 성숙해져 있을 것이다. 우리의 마음이 텅 빈 충만감, 즉 공의 상태에 머물러 있다면 누구를 만나든 어디에 있건 존재 자체로 평온하고 모든 관계를 행복으로 만들어 나갈 수 있다. 우리 모두가 공의 상태에서 올바른 성찰을 할 수 있기를 바란다. 온전한 무(無)의 상태에서 올바른 유(有)를 지어 나갈 수 있기를 기도하고 발원한다.



바로 우리가 이렇게 움죽거리고 생활하는 것이 참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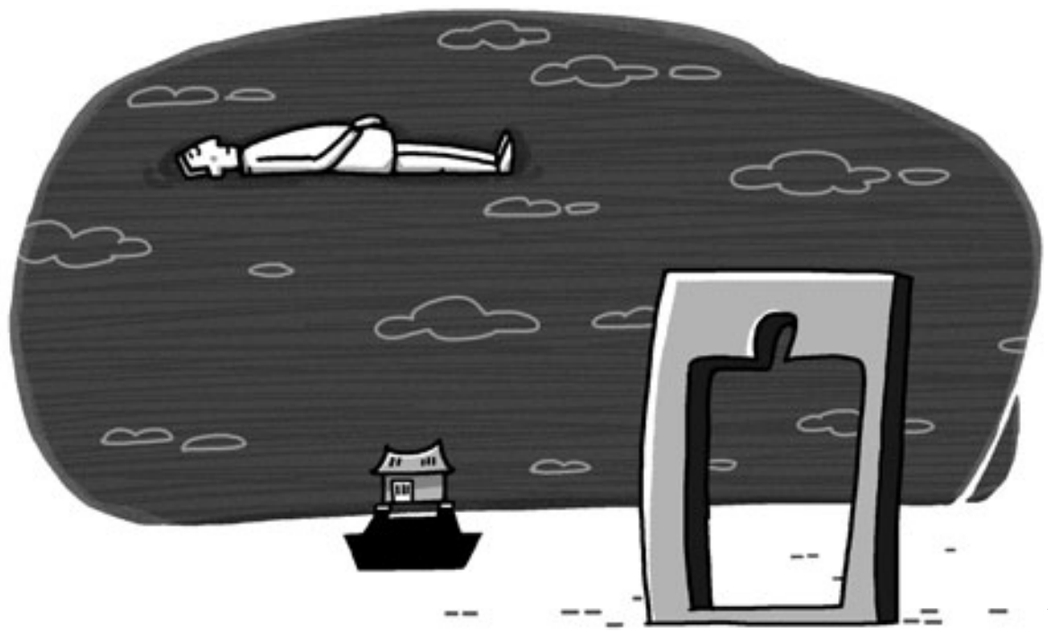
두려움 없이 저승세계에 가려면

질문 저는 제가 평생을 통해서 불법을 공부해 왔기에 그 어떤 것에도 걸림이 없다고 자부해 왔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 갑자기 심장이 움직이지를 않아 응급실에 실려 갔다 오면서 정말 참 공부는 글자와 이론에 있는 게 아니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꿈결 같은 어둠 속에서 제가 살아온 모습들이 병풍처럼 비쳐지는 그 가운데에서 저는 어떤 것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다시 깨어나서 새로운 삶을 살아가게 된 제가 정말 어떠한 공부를 하여야 두려움 없이 저승세계에 갈 수 있는지 가르침 주십시오.

답변 그래서 예전에 이런 말이 있었죠. 어느 스님께서 조용히 산등성이의 돌 위에 가서 떠억 앉아 있으려니까 어느 노승이 지나가시다가 하시는 말씀이 "여보게 자네, 앉을 때가 옳은가, 앉았다 일어날 때가 옳은가?" 하더랍니다. 그러니깐 "앉고 서고 그런 게 어디 따로 있겠습니까?" 하니까 "허허, 그래? 그러면 솥에 넣어서 푹 삶은 자갈은 물렀겠지?" 하거든. '솥에 넣어서 푹 삶은 자갈은 익었겠지.' 도대체 그 말을 듣는 순간 무슨 말인지 알 수가 없더란 말입니다.

그래서 그날부터 경이라는 경은 다 제껴 봐도 그런 문구가 없어. 그 스님을 찾으려고, 경을 다 버리고 찾으려고 애써도 이름도 성도 묻지 않은 것도 실책이고, 그 스님을 찾으려고 돌아다니다가, 어느 마을에를 들어섰는데 동짓날이 됐더랍니다. 동지가 됐는데 마당에 다 큰 솥을 걸어 놓고선 팥죽을 쑤고 있거든요. 팥죽을 쑤면서 큰 주걱으로다가 휘휘 젓거든. 그런데 그 팥죽이 벌렁벌렁 끓는 걸 보고서 그때서야 '아이고, 이런 것이로구나!' 하고 무릎을 탁 치면서 "스님! 찾았습니다, 스님!" 이랬답니다. 그러니 거기서 그 소리를, 그 대답을 못한 스님이나 그 말씀을 하고 간 스님이나 둘이겠습니까? 무슨 까닭에 그걸 보고서 (손바닥으로 법상을 쳐 보이시면서) "어이구, 찾았군!" 했는가 말입니다. 그 팥죽 끓는 걸 보고서 그 솥 안의 돌이 말랑말랑한 걸 알았겠느냐 이 소립니다.

천칠백 공안이라고 하더라도 이 삼천대천 세계 어느 것이 화두 아닌 게 없고, 어느 것이 법 아닌 게 없고, 우리 생활 자체가 그대로 공안 아닌 게 없고, 참선 아닌 게 없으니 여러분이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똑바로 일러 줬는데도 불구하고 얼마 가다 보니까 단전이다 명상이다 하는 사람도 있는가 하면 딴 데로 나가고 있어요, 기껏 가르쳐 봐도.


그림 · 최주현

본래 이 세상에 여러분이 "응아" 하고 나왔으면 그게 칼이 될 수도 있는가 하면 화두입니다. 어느 어린애든지 나올 때 "응아" 하고 소리 안 지르고 나오는 애가 없습니다. 그리고 물주머니에서 안 나오는 애가 없고. 내가 있다는 겁니다, 있다는 거! 그럼 갈아야죠! 그게 화두예요. 내가 난 게 화두고, 바로 우리가 이렇게 움죽거리고 생활하는 것이 참선이에요. 일분일초도 끊어지지 않는 참선! 숨 들이쉬고 내쉬고 이러는 게 참선이야, 그냥. 숨 들이쉬고 내쉬는 데서, 그 한 구멍으로 들고 한 구멍에서 나니 두드러지지도 않고 줄지도 않더라.

여러분은 날더러 "스님은 경전에 있는 심오한 뜻은 얘기 안 하고, 왜 이렇게 만날 저런 얘기만 할까?" 그러시겠지만,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있다면, "솥 안에 넣고 그 솥 안의 자갈은 말랑말랑하게 익었겠지?" 한 거는 뭐며 팥죽을 쑤는 걸 보고선 (법상을 치시며) "아이쿠, 이제는 익었구나!" 돌이 익었다 이거야. 돌이 그랬다는 소리는 무슨 소리냐 이겁니다.

여러분이 몸은 살려 놓고 저승에 가서 죽은 사람을 보지 않으면 안 됩니다. 몸을 살려 놓고 미지의 저승세계에 가서 죽은 사람을 보고 얘길 하고 죽은 사람들이 사는 도리를 다 알고서야 산 사람을 똑바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야 똑바로 행할 수 있고, 똑바로 자비를 베풀어 에너지를 공급할 수가 있는 겁니다. 자기를 자기가 모르고서야 어찌 공급을 할 수가 있으며, 길을 인도할 수 있으며 또는 여러분의 눈을 띄울 수가 있겠습니까? 밥은 내가 대신 먹어 줄 수 없지만, 그 밥을 먹게끔 할 수 있는 길잡이로서, 자기가 해 먹어 봐야 해 먹을 수 있다고 말을 하고, 해 먹을 수 있는 물리를 틔어 주게끔 해 줄 수 있지요. 그렇게 같이 마음을 내 줄 수 있는, 하나가 돼 줄 수 있는 그러한 에너지, 광력 · 전력 · 자력 이런 게 다 동시에 들어가게 됩니다.

여기에 오시는 분들은 그냥 얘기만 듣고 가려고 하지 마세요. 얘기만 하려고 그러면 뭐, 만담하는 식이게요. 그건 소용없는 거라. 어느 만큼 얘기하는 사람이 얘기하면서도 함이 없이 하느냐? 그만큼 둘이 아니게 할 수 있겠느냐? 그만큼 자비를 베풀 수 있겠느냐? 그만큼 네 아픔과 둘이 아니게 생각할 수 있겠느냐? 내 몸과 같이 생각할 수 있겠느냐? 이것이 거기 대두되는 것입니다.

몸에서 벗어나야 하는 이유

질문 스님께서는 나를 발견하고 의식에서 벗어나면 되는 줄 알지만 의식에서 벗어나도 자기 몸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하셨습니다. 몸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하신 이유가 무엇인지 가르침 주십시오.

답변 우리는 지금 몸뚱이라는 집을 짓고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몸뚱이가 살고 있는 집은 지구입니다. 지구인데 우리 몸뚱이가 수명이 있듯이 지구도 수명이 있다고 봅니다, 물질이기 때문에. 그러면 우리 인간만 생명이 아니라 모든 것이 전체 생명이라고 볼 때 그래도 고등 동물이라고 한다면 인간을 최고로 치죠. 인간이 돼야만이 부처를 이룰 수 있고, 한마음으로 전체가 돌아갈 수 있는 그런 영향력을 가질 수 있고, 지혜를 가질 수 있고 그 능력을 가질 수 있다는 얘기죠. 그런데 우리가 이 공부를 해서 그렇게 깨달아서 포용력 있게, 지혜롭게 참 걸림 없이 갈 수 있다면, 예전에도 자주 주장자 얘기 했듯 저런 달세계나 저런 모든 혹성들에게도 내가 네가 되고, 네가 내가 될 수 있는 그런 영향력을 여러분이 다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건 어떻게 해서 가지고 있느냐.

여러분은 지수화풍에서 소생돼 가지고 지수화풍을 지금 쓰면서 살고 있고 지수화풍에서 나왔습니다. 그리고 또 지수화풍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지수화풍에서 지수화풍을 먹고 삽니다. 그 속에서, 복합적인 재료가 다 거기서 나오는 거니까요. 그 질량은 수만 개의 이름을 가졌다 하더라도 거기서 다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계발이 되는 것도 그렇고, 참 과학이 발전되는 것도 그렇고, 모든 것은 다 거기에서 나오는 거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계발이 되고 또 인간이 많이 늘어나고, 그것이 증강된다고 할까요? 우리가 먹고 사는 것도 또 생각을 안 해 볼 수 없는 거고. 그러니깐 그건 식량이라고도 할 수 있죠.

또 우리가 자원이나 식량을 더 만들지 않고 곶감 꼬치 빼 먹듯 빼 먹으면은 그것은 마치 은행에 예금해 놓은 것을 꼬박꼬박 빼다 쓰기만 하고, 벌지 않아서 나중에는 통장이 비는 것처럼 살림을 유지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이 마음공부를 해서 모두가 한마음으로 돌아갈 수만 있다면 내가 없을 때는 가져올 수도 있고 있을 때는 남에게 줄 수도 있는, 그런 영향력과 지혜로운 마음이 생길 수 있죠. 즉 이 육체에서 마음이 벗어나면은 이 몸뚱이라는 물질도 굴릴 수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벗어나지 못하면은 굴릴 수 없다' 하는 것은 여러분이 독 안에 들어 있다면 독을 굴릴 수가 없고, 독 안에서 벗어난다면 독을 굴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독이 혹성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그 혹성 안에 있는 재료를 마음대로 용도에 따라서, 크나 작으나 앞에 다가오는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다는 얘기죠. 그러면 재료라든가 이런 거는 어디에서 어떻게, 그렇게 멀고 먼데 어떻게 조달이 되느냐고, 구름 잡는 얘기라고 들으실지 모르겠지만, 그것은 분명 우리의 능력에 따라 이루어질 수 있고 지금도 진행되고 있는 진리이고 길입니다. 또 그 길을 부처님께서 가르치셨고요. 또 나 역시 없는 거를 이렇게 말하는 것도 아니고요.

이 한생각은 체가 없어서 요기 요거 (법상을 가리키시며) 생각하는 거나, 저 달세계 생각하는 거나 둘이 아니라 이 소립니다. 그런 까닭에 그것도 서로 오고 감이 없이 오고 간다 하더라도 도가 아니라고 한 것은, 오고 가기만 하면 뭘 합니까? 교류가 돼서 우리가 맛을 봐야 하는 것이 원칙 아닙니까? 여러분이 장사를 해도 이익을 봐야 되고, 회향이 돼야 되는 거죠.

그와 같이 예를 들어서 본다, 듣는다 또는 가고 올 수 있다, 그 마음을 서로가 교환하고 알 수 있다 또는 그것이 어디서 나온 건지 알고 있다 이럴 때는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 거기에 통신력과 광력 · 전력 · 자력이 충만히, 우리가 지수화풍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충만히 교류가 된다는 얘깁니다. 그래서 모든 재료나 우리 살아나가는 계발의 문제라든

☞ 30면으로 계속

KBS 과학카페



박현숙 원장 출연
(2010. 2. 6)

이강옥 교수의
체질개선 해독 다이어트

"당신도 날씬해질 수 있다"

일상생활하며, 공복감없이 2주에 5-8kg 감량

살아 숨쉬는 천연 비타민과 미네랄,
수억의 효소들을 인체에 공급하면 모든 장기들이
휴식을 취하면서 수십년간 쌓인 독성 노폐물을 청소하고
지방을 분해하는 내과적 수술로써
체중 감량이 된다는 26년 임상실험!

여자가 살빼기 더 힘든 이유

여성이 살빼기 더 힘든 것은 임신과 출산이라는 여성 본래의 역할로 남성보다 2배 이상의 체지방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최근 영양과다, 운동부족, 대사기능 장애 등으로 노폐물이 쌓여 임신전의 체중으로 복귀하지 않는 여성이 상당수이다. 또한 생리기간 동안 체내에 축적된 수분이 부종으로 바뀌어 체중이 증가하여 합병증과 암발생 등 고위험을 수반하게 된다.

체내 노폐물이 빠지며 건강체질로 바뀌는 효소 절식법

똥똥하다는 것은 단지 체내에 보기 싫은 지방만이 쌓인 것이 아니다.
오염된 환경에서 성장한 우리의 몸 속에는 노폐물이 장 속에 이끼처럼
숙변으로 쌓이고 간에 지방이 엉키고 혈관에 쌓여 혈액이 탁해지고 막히는
현상이 발생한다. 살빼는 약을 먹거나 단식을 하여도 살은 빠진다. 그러나
무엇이 빠지느냐가 문제다.체중은 줄이되 노폐물을 제거하고 줄여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손발이 저리고 숨이 답답하고 피는 더욱 탁해져 혈액순환
장애의 증상이 있다.

초록원웰빙 02)523-0708 박현숙 원장
인터넷 검색창에서 「초록원웰빙」을 치세요.

좋은인연 대출안내

☑ 대출이 더 필요하십니까?
☑ 불사자금이 부족하십니까?
☑ 사찰구입자금이 필요하십니까?

1980년 설립하여 전국의 많은 사찰과 인연을 맺고 있는 사찰전문 은행인 형산새마을금고와 의논해주시면 좋은 인연이 되어 드리겠습니다.

사찰을 매매하실때 문의해 주세요~

부동산권리분석 · 매매관련세금 · 감정평가


형산새마을금고 본점 전경

· 대출기간 기본5년
· 근저당설정비 면제
· 제주도까지 전국가능
· 타은행대출 전환가능
· 단체명의사찰 가능
· 종단사찰 가능

365 친절상담

전무 이강욱 ☎ 010-9842-4200
부장 김상민 ☎ 010-7314-2522

형산새마을금고
본 점 054)282-9600
제1지점 054)282-9601
제2지점 054)282-9602

수행도우미

미국FDA 등록인증 3009241067


발로해(두한족열양말)
노폐물 독소 쏙 빠지며
발 보들보들
발냉병 즉시 해소
법당에서 절할때 꼭 필요해요


선하트조욜
하루 10분 수행으로 몸맘 행복한 조욜
상·중·하 단전 차크라 열려 기운 쌩쌩!
스트레스 제로! 피로 제로!
온 몸에서 엄청난 氣감 체험


사라따
누구나 누워서 저절로
자동단전호흡 100%
피로회복, 氣모음 확실
환자에게 최고의 선물


휴~ 힐링베개
잠이 스르르~ 저절로
가슴답답, 우울, 수면장애, 어깨뻐근, 손발저림
목아픔, 결림, 허리 뻐근 완전해결!
이완이 스르르 저절로 와선심매 100% 체험


보디스킨
발목,장단지,허벅지,엉덩이,등허리
목, 뒷골은 3분만 밀어도 氣통하며
정신이 맑아지고 졸림, 나른,
피로회복 즉시 해소

www.법왕정사.net
010.3487.0035

한계 있는 것만 알지 마시고 한계 없는 것도 좀 알아야!

☞ 29면에서 계속

가, 또는 식량 문제라든가 이런 것도 한계가 있다는 것을 알고 우리는 살아야 하는 건데 '깨달으면 한계가 없는 것도 알 수 있다'는 얘깁니다. 한계가 있는 것만 알지 마시고 한계가 없는 것도 좀 아셨으면 하는 겁니다. 무한량, 한계가 없이 영원하다는 그 문제도 좀 생각해 보실 수 있는 그런 영향력과 지혜를 가지시라 이거죠.

그러면 만약에 그런 멀리 있는 것과 우리가 교류가 되지 않는다면, 벽이 쌓아진다면 우리는 어디로 피난을 가겠습니까? 내 집이 망가진다면 어디로 가겠습니까? 또 한 가지, 우리가 식량이 부족하면 어디로 가서 얻어먹겠습니까? 또 재료가 없다면 어디서 나서 쓰겠습니까? 이런 거 세 가지만 말해도 우리는 이 마음 자체가 그렇게 충만하고 교류가 될 수 있고 벽이 없고 그렇다는 부처님 말씀을 생각해 보지 않을 수 없습니다. 몸으로는 한계가 있어서 제대로 지탱할 수 없는 것이 우리 몸인데, 그럼 몸하고 지구하고 우리가 비교해서 볼 때 '몸을 이끌어 나가는 데도 한계가 있다' 하는 거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나 내 몸이 주인이 없으면 얼른 망가질 거고, 내가 깨달아서 주인이 있다면 내 몸도 고쳐서 쓸 것입니다. 그러면 가고 싶으면 가고 그냥 벗고 싶으면 벗고 말고 싶으면 말겠죠. 그것이 자유입니다, 이 옷을 벗는 것도. 그런데 그렇게 한계가 있듯이 그럼 지구도 한계가 있지 않겠느냐? 그렇습니다, 한계가 있겠죠. 그러나 이게 겉껍데기가 있고 속껍데기가 있고, 그 안에 셋째 번에 아주 그 얇은 껍데기가 우리 뱃가죽에도 있듯이 또 있습니다. 별성도 껍데기를 벗으면 새 빛이 나면서 다시 살듯이, 인간도 이 껍데기를 벗고서 다시 또 몸을 바꿔 가지고 다시 나오는 이치에 의해서 우린 살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그렇게 몸이 없어졌다가 다시 나고, 났다가 다시 꺼지고 이러는데, 이러한 혹성이나 저러한 별성 같은 거는 이것이 꺼멓게, 예를 들어서 그 껍데기를 벗으면서 그대로 속에서 새 빛이 다시 날 수 있는 것이 그게 한계가 없다는 문제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마음공부를 해서 같이 교류를 할 수 있는 그런 영향력이 있다면 그렇게도 할 수 있는 문제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자주 천수경도 하시고 염불도 하시죠? 염불하시는데 내 마음이, 한마음이 즉 관세음(觀世音)이고 지장(地藏)이고 독성(獨聖)이고 산신(山神)이고 용왕(龍王)이고 이렇게 일체가 내 한마음에 들었다고 돼 있죠. 그 한마음에서 그 이름이 나가는 거고 한마음에서 씀씀이가 다 가락대로, 차원대로 나가죠. 그런데 왜 내가 이런 소릴 하느냐 하면, 여러분은 말로만 '내가 관세음이고, 내가 부처고, 내가 지장이고, 이 마음에, 그 한마음에 다 들었다는데, 뭐.' 이렇게 꽁꽁이 세우는 마음이 있단 말입니다. '내가, 내가 부처니까 인간은 다 부처가 될 수 있고, 다 부처다.' 하는 그 마음만 알고 이론만 알고 있지 진짜 행은 그렇게 못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여러분이 '내가 이 공부를 빨리 해야지.' 하는 급한 마음을 가지시기 이전에 여러분은 자기의 아집이라든가 아상을 놔 버려야 하고, 자기 분수를 지켜야 하고, 또는 시간도 지켜야 하고, 의리도 지켜야 하고, 도의도 지켜야 하고, 사랑도 지켜야 하고 그러니까 자만이나 아만을 부리지 말고, 착을 놔야 하고, 욕심을 놔야 하고, 투기를 하지 말아야 합니다. 또 모든 악한 것은 내 마음으로 안아서, 예를 들어 이 물 한 컵에 있는 (법상 위의 물컵을 들어 보이시며) 물방울이 아주 악인이라고 합시다. 악인이라 하더라도 그걸 내 물그릇에 넣어서 같은 한그릇으로 만들어 주는 것이 관세음보살의 행입니다.

그러면 관세음보살이 여러분의 이름에 속한다고 볼진댄 그렇게 넣어서 안아서 녹여 주고, 병자가 있으면 병자가 있는 대로 여기 넣어서 안아 주고, 또 가난이 있으면은 내 가난과 같이 생각해 줄 수 있는, 이익을 줄 수 있는 마음이라야 되고, 그래서 내 몸과 같이 생각하고 내 아픔같이 생각하고, 또 죽는 사람이 있어도 내 마음으로, 한마음으로 안아서 나를 만들어서 다시 내놓는다면 그것이 바로 천도입니다. 이 마음과 마음이 서로가 서로를 안을 때, 참 그것은 즐겁고 여간 좋은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그 마음이 그렇게 될 때에는 밉고 곱고, 너는 잘못하고 잘하고 이것을 따진다면 소용이 없습니다. 그래서 항상 보살들이 될 수 있는 100%를 가지고 있고 99%를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또는 부처가 될 수 있는 가능성이 99%다 할지라도, 관세음보살 지장보살이 다 될 수 있어도 이 행을, 그대로 선행을 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아닙니다. 그건 중생을 벗어나지 못하는 일에 속합니다.

인도해 주시는 직접적인 공부 방법

질문 수년에 걸쳐서 공부를 했는데도 부끄러운 말씀이지만 정확하게 스님께서 저희들에게 길을 인도해 주시는 직접적인 공부 방법이 과연 무엇일까 궁금하고 헷갈릴 때가 있습니다. 누구나 알아들을 수 있는 마음공부의 길을 일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지금 여러분한테 길을 인도하고 있는 것은, 우리가 벌써 내 마음속에, 한마음 주처의 주인공에다 '내 주인공밖에는 나를 이끌어 갈 수 없다, 내 주인공밖에는 나를 형성시킬 수 없다' 하는 겁니다. 부모에게는 뼈와 살을 받아서 이 집만 받아 가지고 나온 거지, 악업과 선업의 그 업식을 통째로 지니고 나온 건 아니다. 내가 나를 형성시켜서 나를 이렇게 지니고 나왔다. 전생이 지금 현생이다. 현생에 전생과 더불어 현생이 지금 같이 살고 있다. 그러니 과거의 내 이전을 멀리 가서 찾지 말고, 나 (가슴을 짚어 보이시며) 있는 데서 찾아라.

그렇게 주인공에다 놓고 갈 때는, 지난번에도 얘기했죠? 아주 빡빡하고 마르고 척박한 땅에 물을 주고 모든 걸 그렇게 하니까 노골노골해지듯이, 돌도 골라내고 다 이렇게 행으로 하니까 말입니다. 그렇듯이 그렇게 하면서 우리가 주인공에다 모든 것을 맡겨 놓을 수 있고 '아, 이 병도 주인공밖에는 해결할 수 없다.' 이렇게 믿고 들어갈 때에…, 거기에서 또 짚고 넘어가야 하는 게 있습니다. 여러분이 엎드러지면 여러분에게 일어날 힘도 있죠? 그러니까 거기 놓을 때에 안 되는 것도 거기고 되는 것도 거긴데, 되는 것도 고정되지 않고 안 되는 것도 고정되지 않으니 그 굴리는 것은 운전수에 달려 있다. 이리로 가는 것도 저리로 가는 것도 운전수에 달려 있으니 안 되는 거 되는 것을 다 거기에, 거기에서 나오는 거니까 거기에다 다 놓고, 되게 하는 것도 너고 또 몰라서 못 쓰는 것도 너니까 그것을 지혜롭게 운전해 간다면, 그것을 그렇게 놓고 간다면 벌써 시각이나 청각이나, 후각이나 감각이나 지각이 발효가 된다 이겁니다, 발효가. 그거 발효가 되면 벌써 오신통(五神通)이라고 하는 그 이름이 아닌 내 마음이 아주 밝게 맑아지고, 지혜로운 마음이 생기고, 그때는 자꾸자꾸 지혜가 생겨요, 두뇌로.

그러면서 내가 보는 눈도 달라지고 듣는 것도 달라지죠, 내가 하는 것도 달라지고 생각하는 게 모두가 달라져요, 전부 바뀌졌어. 이상하게 바뀌져요. 그게 성숙해 가는 거죠, 익어 가는 게. 그렇게 함으로써 나는 편리하고 편안해져. 그러면 옆의 사람도 그 불을 밝게 해 줄 수 있기 때문에 그걸 광력이라고 해도 돼요. 우린 보이지 않지만 광력이라고 해도 된다. 광선을 쏘여서 암을 낫게 하기보다도 내 광선이 항상 밝아서 있으니 그 광선으로 하면은 몸뚱이를 자르고 온통 그런 짓 안 하고도 할 수 있지 않으냐. 이건 생활에 직결되어 있는 문제입니다, 모두가. 일체 만법이. 그럼 광선도 있고 전력도 있고 자력도 있으니 얼마나 충만하냐. 통신력도 있고 입력도 있다. 또 입력이 있기 때문에 컴퓨터에 한번 이렇게 넣어서 한다면, 우리가 충만하게 일체를 다 가지고 있기 때문에 뭐든지 다 할 수 있다는 거죠.

몸을 살려 놓고 미지의 저승세계에 가서
죽은 사람을 보고 얘길 하고 죽은 사람들이 사는 도리를 다 알고서야
산 사람을 똑바로 볼 수 있습니다.

신세 진 빚 갚고 살고 싶어요

질문 꾸준히 다니지는 않았지만 기회가 생겨서 다른 사찰에서 수계를 받았기에 또 굳이 받아야 하나 하는 생각을 하다가 마음공부를 이왕 하려면 선원에서 수계를 받아야겠다는 마음이 생겼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동안 살아오면서 알게 모르게 지은 죄가 많다고 생각됩니다. 부처님 말씀을 따라 살아가려고 마음먹고 있습니다만 지금까지 물질적으로나 정신적으로 빚을 진 사람들에게 어떻게 갚아야 하는지요. 어떻게 하면 크고 작게 진 빚을 갚을 수 있는지요.

답변 내가 그전에 산으로 다니면서 공부하던 때의 얘깁니다. 장마가 들 때인데, 어느 때에 장마가 들지 인간들은 정확히 모릅니다. 그런데 어디 논두렁을 지나서 물이 들어오고 나가는, 연못처럼 물이 고인 데가 있었어요. 질척한 그곳에서 물을 떠서 논에도 주고 그러는 모양입디다. 그런데 날이 궂은 날도 아닌데, 큰 개구리가 뒷다리에다가 뭘 걸고선 질질질질 끌고 올라가는 겁니다 그래서 뭔가 싶어서 자세히 보니까 알 있죠? 개구리 알. 그거 떠내려 갈까봐 끌고 가는 겁니다. 풀섶에다 끌어다 놓는 거죠. 그게 작아서 보이지 않더니 자세히 보니까 물에서 질질질질 끌고는 그 거대한 풀섶에다 갖다가 놓는 겁니다.

그리고 개구리가 제 자식을 업어다가 풀잎 위, 나뭇가지 있는 데다 갖다 놓는 겁니다. 그래서 어떡하나 볼 양으로 거기 가서 보고 또 보고 그랬어요. 그런데 그 이튿날이 되니까 그걸 다 작업을 해서 기다란 알집을 끌고 가는 겁니다. 그런데 글쎄 그 이튿날 보니까 웬 걸, 날이 흐려지기 시작하더니 태풍이 오고 비바람이 치면서 비가 주룩주룩 쏟아지는데 말도 못하는 거예요. 눈을 뜰 수가 없었어요.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거듭거듭 진화가 돼서 인간까지 태어났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새끼를 살리고 알을 살리기 위해서 미리미리 끌고 가는 개구리도 있고 두꺼비도 있는데 그런 것도 하나 모른단 말입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해야만이 자식들의 뿌리에 밑거름을 줄 수 있고 또는 뿌리의 밑거름이 부모, 조상님들한테까지 가서 묵은 빚을 갚을 수 있게 되겠습니까? 여러분이 부모에 효도를 못해서, 효도는 차치하고라도 살아가면서 한 번도 부모님께 무슨 뭐 하나를 제대로 한 게 없어요. 그것이 바로 묵은 빚인데 말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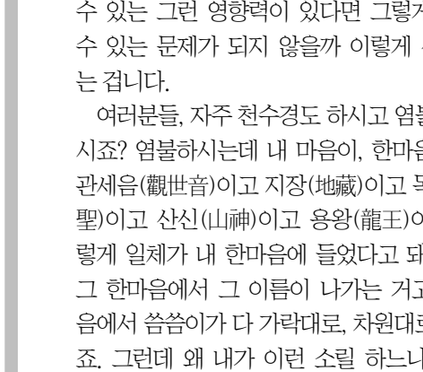
나도 묵은 빚 때문에 많이 울었죠. 그랬지만 개구리만 못해서야 되겠느냐 얘깁니다. 개구리뿐이 아닙니다. 내일 모레 장마가 들 것을 벌써 미리 알고 있고, 언제 태풍이 불어서 다 망가지고 쓰러지겠다 하는 거를 미리 알고 있는데 말입니다, 옥수수나무나 수수나무도 올해는 태풍이 불어서 내가 온전히 서 있을 수가 없다 할 때는 뿌리를 넓게 잡아요. 그래서 그 뿌리를 넓게 잡은 걸 보면 올해 태풍이 얼마만큼 분다는 걸 알 수 있는 거죠.

그런 식물들도 그러는데 하물며 지각까지 가지고 있는 인간이, 지견이 풍부한 인간이 어떻게 기복으로만 나가면서 도깨비장난을 하겠습니까? 인간이 귀신 짓을 하면 그런 습만 남았기 때문에 죽어서도 귀신밖엔 못 되는 겁니다.

그래서 달마 대사가 양 무제에게 말하지 않았습니까? "얼마나 공덕이 됩니까." 하니깐, 공덕이 하나도 없다고 했지 않습니까. 보시를 아무리 많이 하고 집을 많이 지어 준다 해서 공덕이 되는 게 아니라 마음공부를 해야 물을 한 컵 떠 줘도 공덕이 된다 이겁니다. 그런데 더군다나 만민이 다 와서 공부를 하는 자리를 만들었을 때 마음공부 하고 가는 사람의 공덕은 얼마나 크겠습니까. 여러분이 지금 사시는 그 마음씨가 바로 이다음에 다시 돌아서 나올 때 무심의 통장으로서, 다시 그 통장을 가지고 나오기 때문에 여러분이 편안하게 살 수 있고, 또는 자식들에게도 햇빛을 줄 수 있고, 또 부모에게 묵은 빚을 갚을 수도 있는 그런 능력을 가진 훌륭한 여러분이 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모두 여러분이 마음과 마음으로 전달을 하고, 마음과 마음으로서 타파를 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기르시려면, 그리고 기르려고 하기 이전에 당장 가정에서 일어나는 일들부터 해결을 할 수 있는 해결사가 되려면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언제까지나 남한테 기대고 한 됫박 얻어서 먹고는 그것 없어지면 또 달라고 언제까지 그러겠습니까? 영원토록 세세생생에 벗어나서 정신계의 어버이로서 묵은 빚을 다 갚을 수도 있고 햇빛을 줄 수도 있고, 내 몸속에 있는 중생들도 제도해서 모두 보살, 부처가 되게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 주위 사람들에게 물질적으로나 정신적으로 빚을 갚고 싶다면, 이제부터라도 더욱 마음공부를 열심히 해서 더불어 벗어난다면 하다못해 초목들까지도 아마 합장을 하고 숭배할 겁니다.

굴셀건
80ml × 60팩
13만원

지리산 다슬기 眞 골드
無색소, 無방부제, 無화학첨가물로 만들어진 다슬기 엑기스!
껍찔채 가마솥으로 재래식 중탕해 고농축 멸균처리로 누구나 안심하고 드실 수 있습니다.
신장 기능 강화에 좋은 다슬기, 간 기능에 좋은 껍질까지 들어간 2배 엑기스!
느릅나무 유근피 원액

물 맑고 공기 좋은 지리산 일대 국산 야생 느릅나무 껍질(유근피)!
가마솥에 오래 달여 진공포장해 편리하게 드실 수 있습니다.
위장을 맑게! 염증은 싹~ 가라앉히는 효과!
100ml × 60팩
6만 5천원
평안할 康
제품문의 : 칠성상회 (02) 879-2007
입금안내 : 농협 1282-17-003433 (주)한메소프트
입금금액 : 지리산 다슬기 진골드 130,000/느릅나무 유근피 원액 65,000원

육임실전 비법 출간
육임으로 쓴 세계 최초의 육임실전비법이다. 지금까지 이론책은 많았지만 육임으로 실전법이 나온 책이 없었다. 이론을 많이 알아도 적용방식을 모르면 공부하는 시간만 허비하고 정확한 점사가 어렵다. 그러므로 이론과 실전방법을 적용하는 공식으로 각각의 정단에 적용하여 만든 비술이다. 생년월시로 보는 사주와 신수는 물론이고 시간법으로 보는 초사 잡는 법, 목적사 구별법 등으로 편리하게 (e-book) 전자책으로 출간하였다. 명리, 주역 등을 공부하신 분도 실전방법을 알면 알 수 있도록 만들었다.
실전비법 30만원, 출판기념 이벤트로
육임실전비법 + 수강 3개월 – 합 50만원
50명 선착순 모집!
http://www.사주보궁.com
전화 02)793-7333

易理作名法
(당신도 作名大家가 될 수 있다)


이름을 한번 잘못 지으면 평생 후회하게 되고, 다시 개명해야 하는 불편이 따릅니다. 일반인들은 작명에 대한 지식이 없다고 하더라도 소위 전문가라는 분들이 함부로 작명하고 개명하는 것을 보고 안타까운 심정을 금할 수 없습니다. 30여년간 연구하고 개발한 저자의 역리 작명법은 다른 작명법과는 확실히 다릅니다. 본서에는 이름에 쓰면 절대로 안 되는 불용문자(不用文字)를 수록하였기 때문에 작명과 개명하는데 좋은 참고가 되리라 생각합니다. 특히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된 대법원이 선정한 인명용 한자(人名用漢字) 8,142자 전부를 수록하였습니다.
易理作名法 (503쪽) 著者 : 孫中山 會長 (전, 대구미래대학 강사)
서점판매가 : 40,000원 (스님 판매특가 : 30,000원)
■ 입금계좌 : 기업은행 530-002326-01-014 (예금주 : 손상용)
韓國陰陽學會 中央會
010-9391-5699

| 불자 세상보기 |

총무원장 선거에 대한 小考



성태용
前건국대 철학과 교수

교단 안팎으로 위중한 시기라는
설정 스님 당선 소감 매우 공감

무사히 끝난 선거에 잡음 '無用'
하지만 적당히 넘어가서도 안돼
'가라앉는 배' 되지 않기 위해서
새 집행부 뼈 깎는 아픔 감내해야

멈추는 순간 쓰러진다는 각오를
신임 총무원장 스님께 충언합니다

"지금은 교단 안팎으로 매우 위중한 시기다." 새로 총무원장에 선출된 설정 스님이 당선 소감에서 한 말이다. '매우 위중한 시기'라는 말에 모든 불자들이 공감할 것이다. 아니 그러한 말 정도로는 우리 불교 종단의 위기를 다 말할 수 없다고 외치는 불자들이 훨씬 더 많을 것이다. 그리고 그러한 위기감을 느끼게 하는 중요한 원인 가운데 하나가 바로 승단의 문제라는 것도 틀림없다.

도대체가 왜 총무원장 선거를 한번 치를 적마다 모든 불자들이 조마조마한 심정으로 바라보아야 하는 것인가? 어찌하여 속인들의 선거보다도 더 잡음이 많고, 청정성을 의심케 하는 일들이 무더기로 쏟아지는가?

무사히 잘 끝난 선거를 두고 괜스레 잡음을 만든다고 해서는 안 될 일이다. 하지만, 적당히 넘어가고 넘어가면 나중엔 어찌 될 것인가? 한국불교는 가라앉는 배가 될 것이요, 총무원장 선거는 가라앉는 배의 선장을 다투는 일이 될 것이다. 아니 그 가라앉는 배를 더더욱 빠르게 가라앉게 하는 촉매 역할을 할 것이다.

너무 모진 표현 아니냐는 비난을 각오하고 '가라앉는 배'라는 표현을 쓴 필자의 충정을 이해해 주시리라 믿고, 아예 한 걸음 더 나아가 볼까 한다. 객관적인 사실로 보면 이미 한국불교는 가라앉는 배라 할 수 있다.

무엇이 객관적인가? 우선 스님의 수가 그러하다. 그리고 신도의 수가 또한 그러하다. 조계종 스님의 수가 1만 3천 명이 되지 않는다. 다른 종단 다 합쳐도 그리 늘지 않을 것 같다.

불교가 탄압받던 시절, 인구수는 1,000만 명 정도로 잡아도 많을 것 같은 조선왕조 성조 때 5만의 도첩이 발행되었다 한다. 아무리 다종교 시대라 하더라도, 2대 종교에 들어가는 불교의 승려 수를 생각하면 터무니없이 적지 않은가? 거기에 지금 출가자의 추세를 보면 해마다 더 적어지고 있다. 이것만 보아도 가라앉는 배가 아닌가?

신도 수는 또 어떤가? 젊은 불자들의 수는 정말 타 종교와 비교하면 부끄러울 정도로 적고, 전체 불자의 수도 급격한 감소를 보이고 있다는 것이 통계상으로 드러나고 있다. 승려 수와 신도 수가 이렇다면 가라앉는 배가 아니고 무엇인가? 그런데 그 가라앉는 배의 선장을 뽑는 일이 그 배를 더더욱 가라앉히는 모습을 보인다면 정말 답이 없다는 것이다.

이번 선거의 총무원장 후보들이 그렇다는 말이 아니다. 설정 스님이 당선소감에도 밝혔듯이 모두 한국불교와 조계종단의 위기에 대한 투철한 인식을 바탕으로, 그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사명감에 충만하실 것으로 믿는다. 그렇지만 현 상황이 너무나 심각하기에 천만 불자들은 그 충만한 사명감이 더더욱 충만한 모습으로 구현되기를 바란다.

우선은 총무원장 선거로 더더욱 위태롭게 드러난 청정승단의 모습을 회복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앞에서 말한 '가라앉는 배'라는 표현이 나오게 만드는 근본적인 문제들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을 내놓아야 할 것이다. 적당주의가 통할 때는 이미 지났다. "설마 그럴까"하는 의구심으로 넘어가는 불자들의 의심도 그냥 '눈 가리고 아웅' 하는 식으로 넘어갈 수준은 이미 지났다. 아프더라도 사실을 사실로 밝히고, 뼈를 깎는 아픔을 각오하지 않는다면 골수에 든 병을 치료할 길이 없다.

설정 스님의 당선 소감에는 "달리는 말은 발굽을 멈추지 않는다"는 말씀도 있었다. 그 말씀에 정말 모진 말을 덧붙여야 할 것 같다. "멈추는 순간 쓰러진다는 각오로 임해 주십시오"라고. 우리 불교 종단의 현황이 잠시라도 노를 멈추면 더더욱 가라앉는 배와 같다고 보는 것이 필자만의 쓸데없는 걱정이 되도록, 필자의 구업을 좋은 결과로 회향해주시기를 바라며 드리는 말이다.

社說

VR 활용한 새 포교전략 세우자

불교계에서 가상현실(VR) 기술을 활용한 문화콘텐츠가 제작되면서 새로운 포교지평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다. 보수적인 성향 탓에 사회변화와 시대 흐름에서 항상 뒤처져 있던 그간의 한국불교와는 다른 모습이어서 반가움이 앞선다.

VR을 기반으로 한 콘텐츠 확산은 이미 일반사회에서 큰 호응을 얻고 있다. VR은 내년 2월 개최를 앞둔 평창동계올림픽을 비롯해 정부와 국내외 주요기업들이 신 산업콘텐츠로 준비하는 분야이고, 각 지역 도심에는 VR카페 · VR게임존 등이 들어서는 추세다. 이에 발맞춰 불교계가 템플스테이 · 사찰음식 · 사찰안내 등을 주제로 VR영상 서비스에 나선 것은 박수 받을 만하다. 아직 초기단계인 만큼 뛰어난 기술력이 적용되진 않았지만 앞으로의 변화 가능성을 엿볼 수 있어 새로운 포교콘텐츠로 자리 잡을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

당장의 과제는 불교계가 간직한 고유의 역사 · 설화 · 가르침 · 자연환경 등을 어떻게 VR기술로 대중에게 풀어낼 것인가이다. 대중이 이를 통해 불교문화에서 감동을 느끼게 된다면 수요는 더욱 늘어나게 되고, VR기술과 불교콘텐츠 기획력은 자연스레 발전할 수밖에 없다.

이제는 불교계가 VR을 비롯한 최신 기술 교육을 통해 전문가 양성에 나설 때다.

특히 젊은 세대일수록 최신기술에 관심이 높은 만큼 이들을 위한 교육프로그램이 시급하다. 아울러 불교계 내에 관련 직업군 활동무대를 조성해 미래세대 포교에 힘을 실어야 한다. '인재양성'을 표면적으로만 강조해온 불교계가 이 기회를 놓치지 않길 바란다.

문화재청, 변화가 필요하다

문화재청이 이번 국정감사에서 부실한 문화재 복원과 보존 · 관리 행정으로 여 · 야 의원들에게 날선 비판을 받았다고 한다.

10월 16일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주최로 열린 문화재청 국정감사는 성토의 장이었다. 여 · 야 의원들의 문제 제기는 다양했다. 사찰 목조문화재 화재보험 가입부터 저화질 CCTV 문제, 미황사 천불도 훼손까지 불교와도 직 · 간접적인 부분이 많았다.

이 중 몇 가지는 고질적으로 지적돼 온 문제이지만 개선되지 않음이 확인됐다. 대표적인 것이 사찰 목조 문화재 화재보험이다.

조훈현 자유한국당 의원에 따르면 사찰 목조문화재 화재보험 미가입률은 66.3%에 달한다.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된 경주 불국사와 합천 해인사 장경판전도 화재보험에는 가입돼 있지 않다고 한다. 그런 의미에서 "문화재청이 종단과 협의 하에 가입을 독려하고, 보험료 지원 등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조 의원의 지적은 의미가 있다.

미황사 천불도 문제는 종단 차원의 조사와 대응이 필요한 부분이다. 복원이 아닌 훼손된 경위와 해결 방안들에 대해 종단 안팎의 전문가들이 머리를 맞대 해결해야 한다. 또한, 특정업체만이 지속적으로 사업을 맡게 된 이유에 대해서도 조사돼야 한다. 문화재청도 부실한 복원을 허락한 부분에 대해서도 책임을 져야 할 것이다.

올해 초 문화재청은 불통 행정으로 조계종과 마찰을 빚은 바 있다. 당시 본지는 문화재청의 불통 행정에 대해 "최순실의 국정 농단과 같다"고 비판했다. 새로운 정부가 출범했지만, 행정은 그다지 달라지지 않았다. 이번 국정감사를 계기로 문화재청의 행정에 변화가 있길 바란다.

현대불교 불교의 생활화·현대화 · 세계화
발행인 : 혜도 대표이사 겸 편집인 : 박종수 인쇄인 : 배성한
(우)03131 서울시 종로구 율곡로 6길 36, 606호 (운니동, 월드오피스텔) 대표전화(02)2004-8200 / 대표팩스(02)737-0698
편집국 02)2004-8257 FAX (02)737-0698
광고국 (02)2004-8213~6 FAX (02)737-0696
회사홈 현불닷컴 www.hyunbul.com
실시간 뉴스 현불뉴스 www.hyunbulnews.com
쇼핑몰 현불샵닷컴 www.hyunbulshop.com
현대불교 지사안내
대구지사 : (053)768-8008 부산지사 : (051)405-9402
광주전남지사 : (062)512-5003 경남남부지사 : (055)746-9778
전북지사 : (063)910-8977 영주지국 : (054)634-3429
구독신청 · 배달안내 (02)2004-8212 / 구독료 : 1개월 5천원
1994년 10월15일 창간 등록번호:다-3379 /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 요강을 준수한다



사유의 숲을 거닐며
송마나 작가

세이렌 노랫소리와 부테스

아침저녁으로 쌀쌀한 날씨에 몸이 움츠러드는데 TV 화면에서는 젊은이들이 깊은 바닷물 속으로 거침없이 뛰어내린다. 꽃송이들이 터지듯 하얀 포말을 흩뿌리며 물속으로 낙하하는 그들의 모습은 아름답다. 비단 바다가 아니더라도 물만 있으면 사람들은 물속으로 뛰어든다. 왜 인간은 물속으로 뛰어드려는 본능이 잠재하는 것일까?

지상 최초의 다이버는 '부테스'였을 것이다. 그는 이아손과 함께 황금 양털을 찾는 아르고호의 모험에 참가했는데, 세이렌의 노랫소리에 홀려 아르고호의 선원 가운데 유일하게 바다로 뛰어들었다. 물거품 속에서 태어난 아프로디테가 그를 물속에서 끄집어내어 대기 중으로 데려가는 동안에 에릭스를 수태했다.

세이렌의 노랫소리가 얼마나 매혹적이었으면 부테스는 노를 젓던 손을 멈추고 홀로 갑판으로 올라가 바다로 뛰어내렸을까?

나는 사람들의 넋을 빼앗아 갔던 세이렌의 노랫소리가 듣고 싶었다. 그래서 이태리 남쪽에 있는 카프리 섬의 마리나 피콜라 해변의 협소한 틈새에 있는 '세이렌들의 바위'로 배를 타고 나아갔다. 지중해의 파란 파도가 암초 사이의 바위 동굴 속으로 포효하듯 밀려들었다. 얼마 후 깊이를 알 수 없는 어두운 동굴은 하얀 포말을 뱉어냈다. 쏟아져 나온 물거품은 '세이렌들의 바위'를 따라 하늘로 솟아올랐다. 흡사 새들이 비상하듯.

오디세이아가 몸을 돛대에 밧줄로 꽁꽁 매어두고 세이렌의 음악을 즐겼듯이, 나도 몸을 의자에 붙들어 매지 않았다면 작은 배가 암초와 '세이렌들의 바위' 사이에서 소용돌이치느라 몸이 바다 속으로 튕겨 나갔을 것이다.

밀랍을 바르지 않은 나의 두 귀에는 삐죽삐죽한 바위에 부딪치는 파도소리가 들렸다. 새소리를 들었는지도 모른다. 해안에서 떨어져 파도가 잔잔한 바다 위의 요트에서는 벌거벗은 젊은이들이 부테스처럼 바다 속으로 풍덩풍덩 뛰어내렸다.

부테스는 새들이 내는 여인의 노랫소리에 끌려서 바다 속으로 뛰어들었을 것이다. 그리스어로 새를 세이렌이라 부른다. 여자의 젖가슴을 지닌 새의 목소리가 부테스를 불렀다. 근원의 모태(母胎) 속에서 들려오는 소리는 남성이 겪는 변성기가 없는 여성의 맑고 깨끗한 노랫소리이다.

조르쥬 바타유는 〈라스코 혹은 예술의 탄생/마네〉에서 라스코 동굴에 그려진 벽화 가운데에서 세 개의 장대 위에 새가 앉아있는데 이것은 샤먼들이 '새 코스튬'을 걸친 것의 원형으로 하늘로 날아오르는 새의 본성, 즉 본향으로 나아가는 것이라고 했다.

세이렌은 부테스에게 우리가 있는 이곳으로 오라고 노래했다. 부테스는 예전에 어머니의 양수 속에 있었다. 그곳에서는 오직 어머니의 음성만이 들려왔다. 어머니의 목소리는 기원의 내부에서 울리는 노랫소리이다.

부테스만이 아르고호에 타고 있던 50명의 선원들 가운데서 어머니의 노랫소리를 알아들었다. 그래서 그는 망설임도 없이 존재의 근원을 향하여 몸과 마음을 송두리째 내던졌다. 인간이 부테스처럼 물로 뛰어드려는 욕망은 우리 안에 근원으로 회귀하려는 본능이 있기 때문이 아닐까.

하기책자 5권을 스님과 불자들에게 무료로 보내드립니다!



(명)
글쓴이 : 혜천법사

"타고난 자신의 운명(運命)인 사주팔자(四柱八字)를 개선(改善)시키고,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것일까?"

책자 내용
* 사주명리학(사주팔자술)이란 무엇인가?
* 사주팔자(四柱八字)를 뛰어 넘을 수 있는 비책(秘策)이 있다
* 한해의 사주팔자(四柱八字)를 개선(改善)시킬수 있는 방법(方法)은 무엇인가?
* 부록

"영가들이 확실하게 천도되는 비법(秘法)이 수록된 책자"

"영가천도의 중요성"

※이 책은 영가의 장애로 인하여 인생살이에 크나큰 고통과 타격을 받으며 살고 있는 많은 불자들을 위하여 20년여 동안의 경험을 토대로 어떠한 영가이든 100%천도가 이루어지는 영가천도의 묘법이 수록된 책자입니다.

"전생의 빚을 소멸시켜 자신의 운명을 바뀌게 하는"

생전예수재기도의 중요성과 그 성취효과

글쓴이 : 혜천법사

책 자 안 내
① 생전예수재는 "왜" 필히 지내야만 하는가?
② 생전예수재 신청 및 집에서 기도하는 방법
③ 생전예수재 기도후 일어난 영험사례

"풍수원리를 잘 적용하게 되면, 그 가정과 사업체는 번영과 성장을 하게 되지만 이것을 무시하면 재난과 재앙이 뒤따른다는 풍수사상!"

12품 팔상탑주, 그 비법과 불가사의한 효험력

글쓴이 : 혜천법사

책 자 안 내
① 인간의 길흉화복은 그 원인이 어디에서 오는 것일까?
② 생활풍수의 영향으로 생기는 문제점과 그 해결방안의 모색
③ 팔상탑주는 어떤 원리에 의하여 조성되었는가?
④ 팔괘의 상징에 대한 설명
⑤ 12품 팔상탑주의 종류별 설명
⑥ 팔상탑주의 적용장소 및 사용방법과 신비스러운 효험력
⑦ 팔상탑주에 대한 적용순서 및 적용방법
⑧ 생활풍수 측면에서 알아두면 도움되는 주택풍수의 좋은 조건, 나쁜 조건
⑨ 팔괘만다라 액자의 신비

산소(음택)풍수의 중요성 글쓴이 : 혜천법사

① 풍수지리란 무엇이며, 우리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② 조상님의 산소자리는 왜 명당이어야 하는가?
③ 조상님 산소자리를 생기가 도는 명당터의 토질로 변하게 하는 산소처방 비법은 무엇인가?
④ 이장의 문제점과 그 해결 방안으로서의 산소처방 비법?
⑤ 산소(묘)에 대한 잘못된 인식과 관습에 대하여?
⑥ 본회의 산소처방 비법은 어떠한 경우에 적용하면 좋은가?
⑦ 산소처방을 한 후 일어난 신비스러운 현상들의 사례

상담문의 및 책자신청 성지관음회
경기도 광주시 오포읍 오포로 345-4 성지빌딩
전화 031)768-8414~6, Fax 768-8413

영혼의 세계 (빙의)

영가천도는 이렇게 해야 한다!

- 영가천도를 행하는 사람이 영화 화면 보듯이 훤하게 영가를 볼 수 있어야 한다!
- 영가의 생각을 환자의 입으로 영가의 이름, 나이, 성별, 빙의, 년수, 살던곳, 가족인지 아닌지를 확인 할 수 있어야 된다.
- 영가가 몸에 들어온 이유를 말하게 해야 한다.
- 영가가 병든 상태인지, 다친상태인지등을 확인하여 치료해줄 수 있어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환자의 병이 낫지 않는다.(영가의 병이 사람에게 옮겨온 경우)
- 영가가 무엇을 좋아하는지, 갖고 싶은것, 먹고 싶은것을 물어서 원하는 것을 갖고, 먹게 해주어야 떠난다.
- 예를들면 소주가 먹고 싶은데 맥주를 주면 영가가 토라져서 천도가 되지 않는다.〈환자의 입으로 말한다〉
- 영가가 알아듣기 쉬운말로 설득을 해야 한다. 어려운 경문을 외우면 영가는 알아듣지 못한다. (살아있는 사람도 어렵게 얘기하면 못 알아듣는다)
- 환자의 입을 통해 영가가 떠난다고 말하고 빛을 타고 가는 것이 환자가 볼 수 있어야 된다. (빛은 영가가 천상으로 가는 길이다)
- 조상영만 천도하면 된다고 생각하는데 영가를 확인해 보면 조상령 보다도 타 영가가 훨씬 많은 것을 알 수 있다. (조상영가, 전생영가로 인해 잡귀가 들어온다)
- 영가 천도제를 하고 나면 곧바로 병이 호전되어야 한다.
- '비만' 같으면 그 자리에서 살이 빠지는 것이 확인 되어야 하고 육체적인 증상이 곧바로 개선 되어야 한다.
- 먹는 음식이 절제가 되지 않고 살이 찌시는 분.

불임, 자연유산, 우울증, 심장발작, 조울증, 강박증세, 신들림, 불면증, 악몽, 가위눌림, 현대의학으로 진단이 안나는 병, 몸에서 기운이 빠져나가는 병, **근육이 풀어지며 통증으로 고통 받는 분, 몸이 굳어지며 감각이 없는 분**, 병원 등을 수십군데 찾아다니고도 못고친 병으로 고생하는 분

※ 스님(수행하시는 모든분)오래된 고질병으로 고생하시는분.
※ 영가를 확인하면 어마어마한 사실을 알게된다.

▶ 풍수에 관한 모든 것 상담 가능 ◀

천 광 수 련 원 ☎ 043)905-8275
<충북 보은군 내북면 봉황리 223번지>

올 가을 '꼭' 읽어야 할 추천 도서

※ 전국 유명서점 및 인터넷서점에서 구입 하실 수 있습니다.

불광출판사

E형 인간성격의 재발견

우리나라 스트레스 면역학의 선구자, 변광호 박사가세계 최초로 규명한 E형 인간!
인생 끝까지 몸과 마음 모두 행복하게 살다 죽는 'E형 성격 닮기' 프로젝트

변광호 저 / 15,000원

니까야로 읽는 반야심경

이 책은 부처님 가르침의 원형이 가장 잘 보존됐다고 여겨지는 초기경전 《니까야》를 통해서 《반야심경》의 원류를 찾아 해석한 내용을 담았다.
'니까야(Nikaya)'란 '모음[集]'이라는 뜻의 빨리어로, B.C. 3세기경에 성립한 초기불교의 경전 모음집을 가리킨다.
반면 《반야심경》은 B.C. 1세기, 불교 교단의 분열로 촉발된 대승불교 운동에 힘입어 형성된 반야부경전(般若部經典) 중 하나이다.

이중표 역해 / 20,000원

심리학자의 인생실험실

이 책의 가장 큰 특징은 저자가 자신의 풍부한 인생 경험을 토대로, 구체적인 사례를 들어 자기구원으로서의 명상을 이야기해주고 있다는 점이다.
또한 76년간의 세월 속에서 수많은 응어리진 고통에 맞서 터득한 지혜, 그리고 이 순간에도 고통에 몸부림치고 있을 이들에게 들려주는 진짜 조언이 빼곡히 들어차 있다

장현갑 저 / 16,000원



E형 인간성격의 재발견 | 니까야로 읽는 반야심경 | 심리학자의 인생실험실

비움과 소통

무량수경 심요

정토종과 선종, 화엄과 밀교의 정수를 담은 최후의 불경 '무량수경' 회집본을 최초로 강설한 책. 하련거 대사가 무량수경 5종 역본을 회집한 『불설대승무량수장엄청정평등각경佛說大乘無量壽莊嚴淸淨平等覺經』을 경문으로 삼아, 황념조 거사가 그 요점을 풀이(요해)하고 정공 큰스님이 강의(강해)한 국내에서 번역된 가장 상세한 무량수경 해설서이다.

정공법사 저 · 허만항 편역 / 33,000원

대혜종고 정법안장(전2권)

대혜선사 안목으로 본 선문답 661화
부처님과 321인 선사의 661개 선화禪話를 통해 부모로부터 태어나기 전 참마음 깨닫기. 간화선의 확립자인 대혜종고선사가 화두 661화에 대해 독자적인 게송이나 평을 단 선문답집. 원오선사의 『벽암록』이 100칙則의 공안(화두)으로 구성된 것을 미루어 볼 때, 이 책은 무려 6배에 달하는 선어록이다. 선禪 용어사전 첨부.

대혜종고 저 · 석영곡 옮김 / 각권 60,000원

백봉 거사의 선문염송요론

선종의 교과서인 『선문염송』의 난해한 선문답이 담긴 선화(禪話)를 바탕으로 백봉 거사가 번역과 강론을 통해 화두를 풀어헤쳐 실상을 드러내고 있다. 독자들은 '지금 여기' 바로 이 당체(當體)에서 시대와 공간을 뛰어넘어 선종(禪宗)의 핵심 종지를 깨닫는 기연(機緣)을 갖게 될 것이다.

백봉 김기추 저 / 각권 12,000원



무량수경 심요 | 선문답 661화 | 선문염송요론 (전3권)

담앤북스

달라이 라마, 명상을 말하다

근작 중 그의 수행자다운 진면모가 가장 잘 드러나는 명상 수행서다. 이 책의 특징은 달라이 라마가 직접 자비심을 계발해야 할 이유, 명상 자세와 방법 등의 기초 수행부터 더 깊은 단계의 수행에 이르기까지 직접 설명한다는 데 있다.

달라이 라마, 페프리 홉킨스 저 · 이종복 옮김 / 15,000원

티베트 현자들이 비밀리에 전수한 마음수련의 모든 것
티베트 마음수련법 로종

티베트불교와 현대서양문화 양자에 정통한 저자가 로종의 7가지 핵심 가르침과 59가지 수행법을 현대적으로 해석해 설명한다. 타인의 언행이나 작은 시련에도 쉽게 부서지는 마음 때문에 고통받는 현대인에게 마음에 관한 근본적인 성찰과 마음을 단단하게 하는 해법을 제시해 준다.

따렉 깝뀐 저 · 이창엽 옮김 / 16,000원

불교가 궁금한 이들에게 전하는 속 시원한 해답 33
불교는 왜 그래?

'불교신문' 현직 기자가 우리 주변에 스며 있는 불교문화를 보며 떠올릴 수 있는 궁금증을 33가지로 추려, 풀어 놓은 불교 입문서다. 저자 장웅연 기자는 취재를 하면서 보고 듣고 느낀 불교의 가치와 깨달음을 담으려고 노력했다. 덕분에 누구나 알기 쉽고, 재미있는 불교입문서가 탄생했다.

장웅연 저 / 14,000원



달라이 라마, 명상을 말하다 | 티베트 마음수련법 로종 | 불교는 왜 그래?

운주사

강미농의 금강경 강의

이 책은 티벳불교 샤카파 법맥의 무착대사가 보리심 수행의 핵심을 정리한 37개 게송이다. 불자들이 당연히 실천해야 하는 보살행뿐만 아니라, 해탈로 들어가는 데 가장 중요한 '수행차제'를 아름다운 비유로 노래하였으며, 금강승 수행법의 정수까지 밝혀주고 있다.

강미농 저 · 양관 옮김 / 58,000원

인간불교, 부처님이 본래 품은 뜻

대만의 성운대사가 한평생 설하고 실천해온 인간불교의 모습을 이해하기 쉽고 재미있게 서술하였다. 불교의 발생과 교리, 역사 등을 설명하면서 인간불교의 다양한 모습들을 조망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불교는 결국 인간을 위한 종교, 즉 인간불교일 수밖에 없음을 보여준다.

성운대사 저 · 조은자 옮김 / 22,000원

문수진실명경 역해

'문수진실명경'은 지혜의 상징인 문수보살을 찬탄하고 있는, 티베트불교에서 근간이 되는 경전 중 하나이다. 네팔에 머물며 수행과 티베트 경론 번역에 힘쓰고 있는 중암 스님이 인도와 티베트 주석서들을 참조하여 방대한 설명과 각주를 달아 펴냈다.

중암선해 저 / 35,000원



강미농의 금강경 강의 | 무엇 때문에 바쁘십니까 | 마음이 아플 때 따라 해 봐!

여시아문

그냥 무조건이야

마음으로 곧장 들어가라! 자기 마음의 뿌리, 자기 생명의 근본으로 곧장 들어 가는길! 살아있는 순간순간을 일깨우는 실상의 가르침 제자들과 나눈 진솔한 대화속에 담긴 선지(禪旨) '삶이 곧 불법' 임을 바로 깨치게 하는 우리시대 참말씀

한마음선원 출판부 엮음 / 11,000원

삶은 고가 아니다

인생은 고통이 아닙니다. 생로병사의 괴로움이 있다고 하나 그것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는 부처님의 감로법이 있기에 고통이 아닙니다. 부처님께서는 누구나 부처가 될 수 있는 성품 즉, 불성이 있음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 본문 중에서

한마음선원 출판부 엮음 / 10,000원

생활속의 불법수행

故 대행 큰스님과의 수행 문답집. 일상에서 벌어지는 갖가지 일들과 고통스런 의문들을 큰스님께 묻고, 그에 대한 스님의 선(선)적인 답변을 실어놓은 이 책은 어느 누가 읽어도 친근하게 다가올 수 있는 생활참선의 지침서다.

한마음선원 출판부 엮음 / 15,500원



그냥 무조건이야 | 삶은 고가 아니다 | 생활속의 불법수행

대유학당

초씨역림(焦氏易林)



주역의 괘상 변화를 경전과 고사를 활용하여 문학적으로 승화한 책. 64괘를 64변해서 확장한 4096효에 대한 점풀이를 썼으므로 '역림'이라는 명칭이 생겼다. 중국의 황실에서 비장하며 몰래 전한 점학의 귀족 주역점, 육효점에 활용 가능!

16 × 26cm 양장본 | 2,464쪽 | 2권 180,000원 | 초연수 저 | 윤상철 번역

대산주역강해(周易講解)



대산 선생님의 흥사단 강의를 바탕으로 하여 64괘와 384효를 세세히 정리, 초보자부터 전문연구가 모두 언제나 곁에 두며 보아야 할 책. 20여년을 한결같이 독자의 사랑을 받아온 주역의 교과서.

19 × 26cm 양장본 | 상경, 하경, 계사전 3권 구성
김석진 | 각권 352쪽 | 20,000원

관상학 사전



신체 각부위에 대한 자세한 그림과 상세한 해설을 하고, 관상의 개선방법을 실은 것이 특징이다.
또한 상속에 숨어 있는 음성의 상학에 대해 깊이 있게 다루었다. 그 양과 깊이에서 단연 독보적이다.

19× 26cm 양장본 | 687쪽 |
50,000원 | 함산 박중환